

프랑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2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 2. 주요 산업 동향 /12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8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9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45
 - 대한수입규제동향 /49
 - 관세제도 /53
 - 주요인증제도 /55
 - 지적재산권 /60
 - 통관운송 /62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66
- 외국기업 투자동향 /68
- 우리기업 투자동향 /7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75
- 진출형태별 절차 /78
- 투자입지여건 / 83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86
- 조세제도 /9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93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93
- 2. 물가정보 /97
- 3. 바이어발굴 /98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99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101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02
- 7. 이주정착 가이드 / 104
- 8. 출장가이드 /107



1994 MAGELLAN Geographic Systems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위 치	유럽 중서부
면 적	549천km ² (한반도 면적의 약 2.4배)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수 도	파리 (Paris)
인 구	6,319만 명 (본토 기준; 2006년 12월 기준)
주요도시	Paris(215만 명), Lyon(126만 명), Marseille(111만 명)
민 족	Gaul족(켈트족),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언 어	프랑스어
종 교	가톨릭(90%), 개신교(2%), 유대교(2%), 이슬람교(4%), 기타 (2%)
건 국 일	1789년 7월 14일(프랑스 혁명 발발 일로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한 현재의 프랑스 탄생)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의 입헌 공화국
국가원수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국가 원수, 2007. 5 월 취임, 5년 임기) 총리: 프랑수와 피용(Francois Fillon)
입 법 부	양원제 (상원 321석, 하원 577석)
정 당	여당: UMP(313석), MPF(22석), 소수 우파정당(9석) 민주운동(3석), 프랑스운동(1석) 야당: PS(사회당; 186석) PC(공산당; 15석) 민주운동(3석), 신 중앙당(22석), 소수 좌파정당(15석), 녹색(4석), 극좌파(7석), 지역주의당(1석), 기타 (1석) ※ 의석 수는 하원의 의석 수. 정부 성향: 중도 우파

나. 경제 지표

GDP	1,783십억 유로(2006년, Insee)
실질 경제성장률	2.2%(2006년, Insee)
1인당 GDP	28,200 유로(2006년, Eurostat)
실 업 률	7.9%(2007년 9월말 기준)
물가 상승률	2.4%(2007년 10월 기준)
화폐단위	유로 (Euro) (2002.1.1일부터 유럽13개국 단일 통화 본격 시행)
환 율	US\$ 1 = 0.6937Euro (2007년12월 19일 기준) 1 EURO = US\$ 1.4416 (2007년 12월 19일 기준) 1 EURO = 1,354.31 원 (2007년 12월 19일) 1 EURO = 6.55957 FFR (고정 환율; 프랑화의 유통은 유로화도입과 동시에 중단)
산업구조	농업 2.6%; 공업 29.2%(식료품 3.9%, 소비재 4.2%, 자동차2.9%, 설비자재 5.9%), 중간재 8.6%, 에너지 3.8%); 건설 6.2%; 상품서비스 48.1%; 행정서비스 13.7%(2006년)
교역 규모	504.97 십억 유로 (2006년 수입), 479.94 십억 유로 (2006년 수출)
주요 교역품	10대 수출품목: 승용차, 항공기, 의약품,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석유 제품, 유기화학제품, 향수 및 화장품, 플라스틱자재, 시청각 방송기기 10대 수입품목: 원유 및 천연가스, 승용차, 석유제품, 항공기, 자동차 부품, 컴퓨터 및 정보기기, 의약품, 철강제품, 유기화학제품, 시청각 방송 기기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통계청, OECD, Eurostat, NATIXIS 등 자료 종합

다. 한-불 관계

1886. 6. 4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
1906.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강제 박탈로 외교관계 일시 중단
1949. 2.15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 수교
1961. 2. 1	상표 협력 협정
1963. 4. 1	세관 협력
1963. 4.26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967. 4.12	사증 면제 협정
1968. 5. 8	문화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72.11.29 발효)
1974. 6. 7	한 불 민간 항공 협정
1974.10.1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협정
1975. 1.22	한 불 투자 보장 협정
1975. 9.22	국제 원자력 기구, 한 불간 안정 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서명 발효
1977.12. 8	한 불 투자 보장(쌍무) 협정 서명 (77.12.8 서명, 79.2.1 발효)
1979. 6.19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서명
1980. 9.19	한 불 어업 협정 서명
1981. 4. 4	한 불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서명 (81.12.18 발효)
1981. 4. 4	한 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91. 4. 9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1993. 9.13	한 불 산업 협력 약정 체결
1995. 3. 2	형사 사법 공조 조약
1994. 3.28	한 불 환경 협력 약정 서명
2000. 3. 6	한 불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체결
2002. 4.26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체결
2004.12. 6	한 불 사회보장 협정 체결
2007. 6. 1	한 불 사회보장 협정 발효
교역 규모	US\$ 3.415백만 (2006년 대 불 수출) US\$ 3.219백만 (2006년 대 불 수입)
교 역 품	휴대폰, 자동차, 선박(대불 수출) 전자 부품, 의약품, 화장품(대불 수입)
투자 교류	프랑스의 대한 투자 실적 673건 US\$ 5,073백만 불 ('62. -2007. 9 누계)
교 민	1만 5천 여명 (파리 거주 교민 약 1만 5천명 - 2007년 12월 기준)

2. 정치 사회 동향

1. 정치 및 사회동향

□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추진 동향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제 도입 등 전반적인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을 통해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의 취약 점인 경쟁력 회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 제도의 평준화 개혁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공기업 및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11월 14일부터 전국의 공중교통 파업 및 시위로 거의 모든 산업이 마비되는 혼란을 겪었으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조치일관한 개혁 추진 의지로 9일만에 정상화되었다. 프랑스 경제연구 통계원(INSEE)는 동 파업으로 인해 4억 유로 상당의 경제 손실을 입어 2007년도 GDP 성장이 0.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들과의 최종 협상은 2008년 1분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공무원 노조들은 1월 중순에 협상의 입지 강화를 위한 시위 및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주요 세제 개혁 정책은 대 부분 순조로이 추진 중이나 근로시간 단축(주 39시간에서 35 시간으로 단축)으로 발생한 추가 휴가일을 급여로 지불해주고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정책안은 전경련 및 집권당과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25,000명 추방 목표는 11월 현재 21,000명 추방 실적으로 보아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2년 내 노숙자 주거지 완전 공급 정책은 최근 갑자기 몰아 닥친 추위로 인해 시급해진 상황이나 EU의 프랑스 정부에 대한 예산적자 및 정부부채 감소 압력 및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어 노숙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 8%선 미만으로 감소한 실업률은 퇴직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현상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청소년 실업률이 크게 감소, 그 동안 소외당했던 대도시 외곽 지역의 소요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대선 후보자 별 선거 공약 경제 비용 비교표

(단위: 억 유로)

분야	비용
고등교육 예산 50% 이상 증가 및 연구 예산 GDP의 3% 5년간 책정	90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세 및 소득세 면제(보너스 25% 추가 지급)	46
운신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35
최대 과세 한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소득세, 부유세 및 주민세에 사회부채상환기여세(CRDS) 및 극빈자 연대 세(CSG)도 포함> 및 부유세(ISF) 면세<중소기업에 투자 및 기증한 금액(5만 유로까지)에 대해>	30
상속세 및 증여세 면세(95%가 면세 혜택 받을 것)	30
비상 교육정책	26
주택 정책 관련 비용(부동산 융자 이자, 소득액에서 공제)	25
자녀 부양비 1자녀까지 확대 지급	20
환경 세 감면(하이브리드 승용차 구매 보조금 등)	10
중소기업 연구 비용 감세제도 강화	5
합계	317

□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

-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이 국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지난 6월 17일 총선에서 과반수 (289석/577석) 이상의 의석인 313석을 차지해 공약실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사르코지 대선 당선자의 선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 및 언론들은 회의적 내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에 적용한 연평균 경제 성장률(2.25%)이 프랑스의 최근 10년 GDP 평균 성장률(1.5%) 및 2006년 성장률(2.1%) 대비 너무 낙관적이어서 임기 중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기업 정년퇴직제의 평준화 개혁 정책으로 인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사회 개혁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르코지 대통령은 피용 총리의 강경한 개혁추진 의지로 인해 사회 각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서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어 장기전으로 갈 공산도 많아지고 있다.
- 과거 정치와의 단절 및 전반적인 개혁 추진용 자원 확보를 미니 정부(장관 수 15명)의 운영, 공무원의 대폭 감소(퇴직자 30만 명의 절반만 대체 고용) 등 공공 분야의 인건비 대폭 절감 및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보장 세 일체 면세를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제 성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 당분간 공공 적자 및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각종 세제 개혁 추진에 막대한 예산(150억 유로) 투입이 불가피하여 가장 핵심적이며 어려운 개혁 정책(교육, 정부, 연구개발) 추진용 자금 조달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 결국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기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개혁의 결실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이어서 비록 현재 대화의 장을 열어 협력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노조들이 언제 어떻게 반기를 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집권 초기에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이다가 중도에서 가혹한 비판자로 변신하고 했던 프랑스 국민들의 태도가 돌변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예측 가능한 대 내외적 주요 변화 및 영향

- 대대적인 감세 및 면세 조치 및 유연한 근로 법의 도입 등으로 프랑스의 기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 증가 등이 예상된다. 특히, 세제적 비교 우위가 양호한 인근 국가로 도피한 자본 및 주주회사들이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산 위조품 및 안전규격 미달 불량 완구류의 시장 범람(판매량의 68%)에 따른 세관의 통관업무 강화 및 개인 안전 장비에 대한 검사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짙어져 對 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별적 이민정책, 불법 체류 10년 이상의 외국인 신분의 정상화 제도의 폐지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2007년 25,000명, 2008년 28,000명 추방정책 발표 등), 가족생계 수단이 불충분한 외국인 체류자의 가족합류 조건 강화, 미성년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 기회 2회 이상 거부한 실업자에 대한 강제 규정 도입 등 프랑스의 노동 및 사회 환경이 초기 소요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화될 전망이다.
- 고등 교육기관의 자치화 및 연구 분야 대폭 지원 정책에 따라 개인 부담 교육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산업은 IT, 바이오, 나노 기술 쪽으로 전환할 것이며 해외 고급 인력 및 연구원 우대 정책에 따라 동 분야 종사자들 간의 경쟁 치열화 및 브레인 헌팅 현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프랑스 기업 한국 내 주요 인프라 및 관광 프로젝트 참여 확대

1) 필요성

한국은 사회간접시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 시베리아 등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수요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한바, 해양, 위락 산업의 발달이 유망하다.

반면 프랑스는 도로, 대교, 철도, 수 처리 등 인프라 건설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으며 우수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주요 토목 건설국이며 제1의 관광 산업국으로서 오랜 경험과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가 많은 상황이다.

2) 진출 현황

- 프랑스 기업들은 도로, 대교, 철도, 수 처리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합작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도로 및 대교 건설: BOUGUES(마창대교), EGIS(대전천변)
 - 철도: ALSTOM(KTX), SISTRA 등
 - 수 처리: VEOLIA ENVIRONMENT(인천), ONDEO(양주)

3) 향후 조치 사항

- 한국의 지자체 및 한. 불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 역시 필요한 분야이다.
 - 대교 건설, 경전철, 풍력 발전소 등 SOC 인프라
 - 서울 Digital Media City(DMC) 건설
 - 제주 중문 단지 개발 등 관광 단지 개발 프로젝트 등

나. 프랑스 전자 정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

1) 현황

프랑스 정부는 2004-2007년간 총 18억 유로를 투자하여 행정 시스템 현대화 작업 및 새로운 칩 카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프랑스 전자 정부 구축 프로젝트 "ADELE"를 추진하고 있다.

- ADELE : Administration Electronique
 - 추진 기구: ADAE
 -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
 - 140개 분야 300여 개 서비스 분야의 행정 절차 전산화
 - 개인의 신분증, 은행 카드, 사회보장 카드를 전자 주민증과 연결 등
 - 인터넷 사이트: www.adae.gouv.fr/adele

2) 향후 조치 사항

따라서 한국의 인터넷 기술과 프랑스 네트워크 장비 기술간 협력을 통해 프랑스 전자 정부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양국간 협력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기타 아시아권 국가로의 기술이전 등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 프랑스 항공기업 한국 전투기 구입 및 헬기 개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한국의 2020년도 국방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전투기 구입 및 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2010년경 20대 전투기 구입 프로그램(F-X)
 - 2020년 신세대 전투기 120대 구매 프로그램에 포함.
 - 총 예산 24억 \$
- 전투용 헬기 프로그램(272대)
 - 총 예산 50~100억불
 - 국산 수송용 헬기 개발 프로그램(KHP: Korean Multirole Helicopters): 한국산 개발에 Eurocopter사가 파트너사로 참가할 계획이다.
 - 국산 전투용 헬기 개발 프로그램(Indigene): 외국 헬기사를 파트너로 하는 한국산 헬기 개발 계획이다.
 - Eurocopter사의 'Le Tigre'와 Boeing사의 'Apache AH-64D Longbow'가 치열한 경쟁 중.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신 경제동향

□ 경제 저 성장세 지속

- 건전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 경제 성장률(2.5%~3%)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1.9%의 GDP성장세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예산 적자 누적 및 이로 인한 공공 부채 증가가 다시 경제성장의 제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 2006년 경제성장률 2.2% 기록은 고 유가, 기업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고 성장(1.9%)에 기인한다.
 - 상반기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직후 프랑스 정부는 200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1.9%에서 2.5%까지로 상향 조정한 바 있었으나 3분기 GDP 제로 성장 제동에 걸려 2006년도 GDP 고성장 기회가 상실, 2.2% 성장에 그쳤다.
- 2007년 1/4 분기 0.5% 성장률 기록 후 2/4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쳐 상반기 GDP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 2/4 분기 GDP 저 성장(0.3%) 요인은 기업 및 공공투자 정체 및 수입급증(2.1%: GDP 기여도 -0.3%)에 기인한다.

- 기업투자 둔화 요인은 프랑스 기업 특히, 자동차 분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극히 부진했기 때문이다.
- 외국인 직접투자는 6월 한 달 동안 250억 유로라는 10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워 12개월 FDI 누계가 1288억 유로로 40% 증가했다.
- 프랑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도 6월말 현재 12개월 누계로 20%가 증가한 764억 유로에 달했다.
- 상반기 GDP 성장의 0.3% 포인트 감소요인인 무역수지적자(139.3억 유로)악화 요인은 프랑스 기업의 영세성(90%가 10명 미만)으로 인한 수출 부진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국제 가격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수에 의존한 경제성장

- 프랑스는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독보적인 일류 고급상품을 제외하고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계속 상실하고 있어 결국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프랑스의 내수(특히, 전자, 통신 및 가전제품) 증가 요인은 높은 출산율(2.1명)에 따른 인구 증가(2006년 말 63,392천명), 실업 감소 및 구매력 증가(상반기 1.5% 증가 및 2007년 3.3% 증가 예상) 등이다.

□ 무역적자 증가

- 최근 3-4년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무역적자 규모가 계속 커짐으로써 2006년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 격차가 현저히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41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2007년 10월말에 이미 400억 유로를 웃돌았다.
- 10월말 수출(누계)이 항공기 수출 증가로 2.7%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4.1%)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 프랑스의 무역 적자 대상국은 독일로 프랑스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부문에서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

□ 실업 동향

- 실업자 수는 2007년 10월말 현재 210만 여명(BIT 개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 실업률은 2007년 10월말 현재 7.9%로 전년동기 대비 1.1 포인트 감소했다
 - 2001년 6월 이후 최저치이다.
 - 청소년 실업률 0.8% 포인트 감소하여 평균 감소율보다 저조했다.
- 감소 요인은 퇴직 인구의 지속 증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신규 고용 증가에 기인한다.
- 프랑스 완전 고용(= 실업률 5%) 목표 달성을 위한 고용증대 정책 가운데 도시 재개발 MARSHAL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불 해저 터널 공사의 4배 규모: 2013년까지 530개 도시지역 재정비 계획
- 380억 유로 규모의 프랑스 최대 규모 민간 공사 계획: 이미 399개 지역 재개발 공사 계획(270억 유로) 승인. 매주 3개씩 착공
- ILE DE FRANCE(수도권)지방 내 공사비중이 전체의 1/3.

□ 프랑스 경제의 취약점

- 프랑스 경제의 취약점은 유로화의 환율 강세로 인한 기업 마진 및 수출 감소이다.
 - 미국, 일본 및 중국 통화에 대한 유로화의 환율 강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내지 수출기업 마진 감소, 국제 시장 점유율 감소 및 무역적자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생산 및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 및 자동차 산업체들이 동 환율 강세로 인해 수출감소 및 재무구조 악화 등 큰 타격을 받아 구조조정 및 생산 이전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 동 환율 강세의 주 요인은 유럽 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을 위한 고금리 정책, 미국 및 일본보다 높은 EU의 경제성장을 등에 기인한다.
- 경쟁력 약화 문제
 - 유로화 환율 강세로 인한 국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투자능력 부재에 따른 상품 개발 및 품질 향상 능력 부족 등이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들이다. 독일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품의 가격/품질 경쟁력 문제가 프랑스 기업 및 상품 문제임을 시사해 준다.
 - 프랑스 정부는 최근 자국의 3대 전략 산업에 속하는 항공기 및 자동차 업체들의 연구 개발 투자 장려 감세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해 준다.
- 긴 결제 기간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
 - 프랑스는 대기업들과 하청 생산업체들 간의 결제 기간 면에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 INTRUM JUSTITIA에 의하면, 프랑스의 평균 결제 기간은 66.2일로 이탈리아(99.3일), 포르투갈(85.6일) 및 스페인(82.1일) 보다는 짧으나 영국(52.4일) 및 독일(46.9일) 대비 2주 내지 3주가 더 긴 편이다.
 -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결제기간은 평균 105일 최고 115일로 하청 생산업체들의 자금난 내지 투자 감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프랑스 정부는 최근 결제 기간의 단계적 단축 법안을 제시하였다.
 - 2007년 말까지 75일+당월 잔여일 및 2008년 말까지 60일+당월 잔여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결제기간 단축 및 위반 시 건당 75,000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프랑스 연도별 결제기간

(단위: 일)

연도	2005년 봄	2006년 봄	2007년 봄
민간 기업	66.4	67.5	65.8
공공 분야	68.7	69.6	70.1

자료 원: INTRUM JUSTITIA, EUROPEAN PAYMENT UNDEX

□ 인구 고령화 문제

2006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21%에 육박(1,280만 명)하였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천만 명, 75세 이상의 인구는 5백만 명을 돌파했다.

프랑스 연령별 인구 분포 비율

(단위: %)

연도	20세 미만	20-59세	60세 이상	(75세 이상)
2000	25.6	53.8	20.6	7.2
2006	24.8	54.3	20.9	8.2
2007(전망)	24.7	54.0	21.3	8.4

자료원: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 INSEE

프랑스 60세 이상 고령자 현황

(단위: 명)

연도	60-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5	2,669,712	5,093,358	3,807,574	1,090,333
2006	2,744,379	5,018,984	3,837,851	1,201,927
2007(전망)	3,025,479	4,930,531	3,865,773	1,314,789

(자료 원: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 INSEE)

- 2015년 85세 이상 고령자 수가 75% 증가할 전망이다.
- 프랑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퇴직 연금 적자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 퇴직자 증가율이 출생률 및 신규 노동력 증가율을 앞지름으로 인해 퇴직금 관리 금고의 재정난이 큰 이슈로 등장했다.
 - 납세 및 근로 기간 연장: 과거 37.5년에서 40년(2010년부터는 41년)으로 연장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수정: 과거 3년 급여 평균 액 기준에서 20년 급여 평균 액의 75%로 연금지급액을 하향 조정했다.
 - 퇴직 연령 연장 안: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 특별한 혜택이 부여된 공기업 퇴직제도를 평준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공기업 노조들과 협상 중이다.

나. 프랑스 경제 전망

- 프랑스 정부가 2007년 예산책정에 반영한 GDP 성장률은 2%-2.5%인데 OECD 및 프랑스 경제연구 통계원(INSEE) 공히 금년도 1.9% 및 2008년도 1.8%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예산 적자 감소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세계 주요 경제기구 및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전망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1.8%에서 2% 사이가 될 전망이다.
-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는 지난 12월 20일 경제전망에서 GDP성장률이 2007년 1.9% 및 2008년 1,2분기 각각 0.5 및 0.4%가 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분기별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성장률 %)

연도	2006	2007	2008	2007				2008	
분기	연간	연간	연간	1	2	3	4	1	2
GDP	2.2	1.9	1.7(*)	0.6	0.3	0.7	0.5(전망)	0.5(전망)	0.4(전망)
구매력	2.4	3.3	1.5(전망)	-	-	-	-	-	-

자료원: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 INSEE

주: 2008년 하반기 중 GDP성장률이 정지되어 상반기 성장률만을 감안한 최악의 전망치임.

가. OECD의 프랑스 경제 전망

- 지난 12월 6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2007년 1.9%, 2008년 1.8%, 2009년 2%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동 전망 근거는 유가(90불/배럴)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 및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 둔화로 증가한 무역적자가 GDP 성장을 감소(2007년 -0.3, 2008년 -0.3 및 2009년 -0.1 포인트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 및 내수 증가율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것 등이었다.
- OECD는 프랑스의 예산 적자율이 향후 2년 동안 2.7% 선을 유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부 부채율이 2009년 GDP의 68%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7년 8%로 감소한 데 이어 2008년 7.5% 및 2009년 7.4%로 떨어질 전망이다.

OECD의 프랑스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연도	2004경상가격(십억 유로)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1,657.8	1.7	2.2	1.9	1.8	2.0
민간 소비	939.2	2.2	2.2	1.9	2.1	2.4
정부 소비	393.5	0.9	1.6	1.5	1.1	1.1
총 투자	319.7	4.1	4.1	3.7	2.5	2.6
- 공공	51.5	7.2	1.3	4.2	2.3	2.5
- 민간	87.5	6.1	4.4	1.0	0.3	0.7
- 기업	180.7	2.2	4.7	5.0	3.6	3.5
최종 국내 소비	1,652.5	2.2	2.4	2.2	2.0	2.1
재고(GDP 기여도)	4.0	0.1	0.1	0.0	0.1	0.0
총 국내 소비	1,656.4	2.3	2.5	2.2	2.0	2.1
상품 및 용역 수출	424.3	3.2	6.3	3.6	5.0	5.2
상품 및 용역 수입	423.0	5.4	7.1	4.5	5.6	5.3
무역수지(GDP 기여도)	1.3	-0.6	-0.3	-0.3	-0.3	-0.1
실업률	10.0	9.8	9.0	8.0	7.5	7.4

자료원: OECD 경제전망 보고서 2007년 12월 6일 발표

- 프랑스 경제, 재무부는 OECD의 경제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유가(90불/배럴) 가정치는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 영국 은행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내수 진작을 위해 12월 6일 기준 금리를 5.75%에서 5.5%로 0.25포인트 인하했으며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4%선을 고수함으로써 증권계를 실망시킴과 아울러 EU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감을 보였다.

□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별 경제전망

OECD 경제전망에 의하면, 2008년 및 2009년도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견실한 경제 기반 덕분에 금융 및 유가 위기로 인해 0.4 및 0.3 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은 2.3% 및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화 사용지역은 프랑스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미국은 이 보다 약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본은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지역의 물가는 2.1%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실업률도 5.4%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 주요 기관들의 유로화 지역 및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오히려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적게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기관 명	유로화 지역	미국
유럽 중앙은행	2	-
OECD	1.9	2
MORGAN STANLEY	1.6	1.8
SOCIETE GENERALE	1.9	2.2
LEHMAN BROTHERS	1.5	1.9
MERRILL LYNCH	2.1	1.4
BANK OF AMERICA	1.8	1.9

(자료 원: 프랑스 경제 일간지 LES ECHOS)

다. IMF의 프랑스 경제 전망(2007년 10월 9일)

- 10월 16일 발표 예정인 IMF의 세계 및 주요 국가 경제 전망에서 동 기관은 프랑스의 2008년도 GDP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동 근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 위기로 인해 2008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2.8%보다 0.9포인트가 낮은 1.8%로 낮아지는 등 세계 경제 성장률이 5.2%에서 4.8%로 저하할 것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 실업률 감소 전망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07년 실업률(8.2%)은 상반기 중에 이미 달성한 상태이며 10월말 현재 7.9%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2008년에 7.7%로 감소할 전망이다. 근거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한 고용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 (고용주 임의로 해고 가능하되 근속 연수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및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거 퇴직으로 인한 대체 고용창출(10만 명 내외) 등이다.

단, 정년퇴직 공무원의 50%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사르코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세대들의 고용 기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가계 소비 지속 증가 전망

IMF 및 프랑스 기업개발 경제성장 연구 관측센터(COE)는 '07년 프랑스 가계 소비증가율이 전년보다 0.3% 포인트 낮은 2.5%로 전망하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06년과 동등하게 2.8%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가계소비 증가율(1.5%), 구매력 증가율(1.5%), 실업률 감소(8%) 및 정부의 감면세 정책 등을 감안 시, 금년도 가계소비 증가율은 최소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GDP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투자 전망

IMF 및 COE는 '07년 프랑스 기업투자 증가율을 06년 수준(3.6%)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의 상반기 기업투자 증가율(3%), 프랑스 기업의 해외투자 선호, 외국인 대불 직접투자 급증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 프랑스 기업투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의 세제개혁 의지에 힘입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의 '07년도 전망치는 3.6%이다.

□ 수출입 전망

IMF 및 COE는 '07년 프랑스 수출 증가율을 5.9%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06년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프랑스 정부는 금년 수출 및 수입이 각각 6.2% 및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 정부가 전망한 '07년 무역적자액은 301억 유로인데 이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프랑스 산업 구조

- 프랑스의 2006년도 전체 산업 생산 규모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3,234.2십억 유로로 2005년 대비 4.5% 증가했다.
- 3차 산업이 전체 산업 규모는 1,792.3십억 유로로 2005년 대비 1% 증가했으며 산업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품 서비스가 전체 산업의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행정 서비스는 13.7%로 공업 다음으로 3번째이다.
- 에너지 산업 및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 및 2.4%이다.
- 건설 산업은 전체 산업의 6.1%, 농업은 2.6%를 차지하였다.
- 순수 제조업 규모는 846.3십억 유로로 2005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2005년에 비해 0.3포인트 줄었는데 주 요인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0.26포인트 감소한 데에 있다.
 - 중간재(8.6%)
 - 자본재(591%)
 - 소비재(4.2%)
 - 식료품(3.9%)
 - 자동차(2.9%).

산업별 생산 현황(물량 기준)

(단위: 십억 유로, %)

산업별	2004		2005		2006			
	생산	증감률	생산	증감률	생산	증감률	구성비	
							전체	공업
총계	2,790.3	2.9	2,839.0	1.7	2,897.1	2.0	100	-
농업	78.0	10.3	76.0	-2.5	74.2	-2.4	2.6	-
제조업	831.3	1.9	838.3	0.8	846.3	1	29.2	100
농산물 가공 및 식료품	113.5	1.0	114.1	0.5	113.9	-0.2	3.9	13.5
육류 및 낙농산업	48.3	0	48.1	-0.3	47.9	-0.4	1.7	5.7
기타 농산물가공 및 식료품	65.3	1.7	65.9	1	65.9	0	2.3	7.8
소비재 산업	120.0	0.9	121.0	0.9	122.7	1.4	4.2	14.5
의류 및 가죽제품	13.1	-5.4	12.2	-6.9	12.1	-0.3	0.4	1.4
출판, 인쇄, 복사	29.9	0.5	29.9	-0.1	29.4	-1.6	1.0	3.5
의약품, 향수, 세제	51.1	1.9	53.3	4.3	56	5.1	1.9	6.6
가정용 설비	26	2.9	25.8	-0.6	25.4	-1.6	0.9	3.0
자동차	91.3	3.5	89.8	-1.6	84.8	-5.7	2.9	10.0
자본재	157.2	1.9	161.8	2.9	170.6	5.4	5.9	20.2
선박, 항공기, 열차	44.6	5.6	48.8	9.6	51.3	5	1.8	6.1
기계장비	68	4.5	69.3	2	72.9	5.1	2.5	8.6
전기 전자장비	44.2	-5.9	43	-2.8	45.9	6.7	1.6	5.4
중간재	250.2	2.2	248.7	-0.6	250.4	0.7	8.6	29.6
광물	26.5	3.8	26.2	-1.4	26.8	2.4	0.9	3.2
섬유	12.7	-4	11.9	-6.2	11.4	-4	0.4	1.4
목재 및 제지	30.8	3	30.8	-0.1	30.9	0.1	1.1	3.7
화학, 고무, 플라스틱	71.8	1.7	72.4	0.9	71.9	-0.7	2.5	8.5
철강 및 철강제품	74.4	0.7	73.7	-1	75.4	2.4	2.6	8.9
전기전자 부품	33.9	8.2	33.7	-0.6	33.9	0.6	1.2	4.0
에너지	99.1	2.2	103.0	3.9	104.4	1.4	3.6	12.3
건설	167.3	2.5	174.1	4.1	180.7	3.8	6.2	-
상품 서비스	1,323.5	3.3	1,355.1	2.4	1,394.4	2.9	48.1	-
상업	274.9	3.4	279.0	1.5	287.6	3.1	9.9	-
운송	124.7	3.4	127.5	2.3	131.4	3.0	4.5	-
금융	143.9	4.8	149.4	3.8	153.3	2.6	5.3	-
부동산	218.6	3.1	222.5	1.8	228.4	2.6	7.9	-
기업 서비스	418.5	3.0	432.6	3.3	447.8	3.5	15.5	-
개인 서비스	143.1	2.3	144.6	1.0	146.5	1.3	5.1	-
행정서비스	388.5	2.3	392.9	1.1	397.9	1.3	13.7	-
교육, 건강, 사회활동	234.0	2.4	236.7	1.2	239.8	1.3	8.3	-
행정 관리	154.4	2.2	156.1	1.1	158.1	1.3	5.5	-

자료원: 프랑스 국민계보(Comptes nationaux 2007) 및 프랑스 경제통계연구소

나. 프랑스 산업 현황

1) 프랑스 공업 생산 동향 및 전망

- 공업 생산은 2004년 1.9%, 2005년 0.8% 및 2006년 1% 증가한 후 2007년 2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 밝은 면

- 유럽 전반의 양호한 경제 환경 및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전망.
- 유로화 강세에 따른 해외 하청 생산업체의 단가 절감 및 경쟁력 향상
- 유로화 강세 덕분에 낮아진 수입상품 가격 및 상대적으로 높아진 소비자들의 구매력 등 내수 증가에 기여
- 원자재 수입 가격 2006년 50%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생산가 2% 증가 및 2007년 2월 현재 원자재 수입가 15% 증가로 안정세

□ 어두운 면

- 유로화 강세에 따른 국제 가격경쟁력 상실 및 이로 인한 수출 둔화 및 생산 감소(수출 비중이 높은 항공기 및 유명 브랜드 일류 상품 등 일부 산업)
-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경색으로 인한 주요 교역 대상국 특히, 독일의 경제 성장 둔화
- 세계화 추세에 따른 해외 산업이전 분야 국내 생산 감소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산업 생산가 증가 및 경쟁력 상실 및 이로 인한 생산 감소 등 연쇄 반응
- 내수 증가의 대 부분을 저가 수입 상품이 흡수하고 있어 국내 생산 증가 기여도 미흡

2006년도 10대 주요 제조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개 사, %)

산업별	매출액 (증감률)	종사 인원	매출 대비 수출 비율	생산량 증감률 '06('07년 전망치)
농산물 가공 식품	125,873	378,120	17.8	0.1(2.2)
자동차	110,357	262,325	55.3	(-0.2)
화학, 고무, 플라스틱	87,720	317,909	37.4	(-0.2)
제철 및 금속 제품	67,444	325,100	39.5	(0)
기계 장비	62,646	323,563	38.9	(1.2)
제약	46,001	101,849	34.2	(5.0)
전기 및 전자	36,750	155,708	47.3	(2.3)
플라스틱 제품	26,638	146,693	23.5	(2.7)
항공 및 우주 산업	22,518	85,308	62.8	(2.1)
향수, 비누 및 세제	19,920	50,605	39.7	(3.1)

자료원: 프랑스공업통계국(SESSI), 프랑스시장조사회사 XERFI(전망) 및 L'Usine Nouvelle(2007.5. 25)

- 농산물 가공 식품: 2006년 생산 물량 0.1% 증가의 담보에도 불구하고 1,259억 유로에 달하는 프랑스 최대 매출 규모로 자동차에 앞서 1위를 고수했으며 2007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총 37만 명 이상의 고용 규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출 비중(매출액의 17.8%)을 기록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동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어 생산 증가에 기여 중이다.
 - 우유 및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인상 우려 및 이로 인한 구매력 약화가 예상된다. 주요 농산물 가격 폭등 요인은 인도 및 중국의 식생활 서구화 및 호주 등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의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확감소 등이 겹쳐 수급 상의 커다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데에 있다.
 - 중국 및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DANONE사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분쟁 및 광산 수 위생 문제 등으로 동 국가 내 생산 및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팽배하다.

- 자본재: 일반 소비자용 자본재 분야에서는 부진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용 자본재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월 중 자본재 생산이 0.3% 증가(2월 말 현재 4.6% 증가)했다.
 - 항공기 산업은 수주 상태가 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2월 중 1.3%의 생산 감소율을 기록: A380 생산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어 동 분야 단기 생산 회복이 어려운 상황(2005 및 2006년 생산량, 각각 15.8% 및 9.5% 증가)이다.
 - 여타 분야는 세계적인 기계류 및 산업용 자본재 수요 덕분에 활발한 생산 활동 중 (상품 운반 및 하역용 기계류 생산, '05년 및 '06년 각각 13.7% 및 14% 증가)이다.
 - 터빈, 기중기 또는 풍력발전기 등은 에너지 및 건설 투자 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 2월말 현재 선박, 항공기 및 열차 생산은 항공기 생산 감소(1.3%)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열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3.3% 증가했다.
 - 전자-전자 제품 생산, 2월중 3% 증가(전기 제품 생산,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1.3% 및 1.6% 증가)했다.
- 중간재: 새로운 활력 되찾아 2월 말 생산,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 건설 경기의 붐에 힘입은 기계류 생산 증가가 금속제품, 제철업 및 금속 가공업의 경기를 활성화시켰다(1차 가공 금속제품 생산, '05년 4.6% 감소 및 '06년 4.1% 증가)
 - 중간재 생산 가동률이 85.4%로 회복되었다.
 - 원자재 가격 상승(금속 및 원유)에 따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해 관련 산업 생산이 부진한 상태이다.
 - 대기업의 산업 해외이전 및 국제화로 인한 국내 수주가 감소하였다.
 -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 소비재 생산은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 제약-향수-세제 생산 2월 말 5.3% 증가: Sanofi, Meriau 등 세계 리더 그룹 및 외국 자회사들이 프랑스 제약 산업에 진출하여 의약품 수출이 급증(6.7%)함에 따라 동 생산도 크게 증가했다.
 - 비누 및 향수 생산은 수출에 힘입어 증가(2.2%)했다.
 - 의류 및 혁제품(2월 말 현재 2.6% 감소), 출판 및 가정용 시설재 생산은 여전히 침체해 있는데 주요인은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린 데에 있다.
- 자동차 생산은 2005년 및 2006년 각각 1.9% 및 7.1% 감소한 후 금년 들어 신차 개발 출시가 시작되어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2007년 2월 들어 2006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생산 증가율(4.7%)을 기록했다(연간 4.5% 증가세).
 - PSA 및 르노, 각각 2개의 신규 및 대체 모델 출시(6월부터)했다.
 - PSA의 구조조정 계획(4,800명 감원)에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증산하여 4백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세계화 정책에 따른 해외 생산 증가 전략 추진으로 국내 생산 비중 감소 및 해외 생산 증가 추세(2006년 및 2007년 1분기 해외 생산이 국내 생산을 능가)이다.

프랑스 승용차 국내외 생산현황(2007년 1/4분기)

(단위: 대, %)

구분	전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르노(르노-삼성, DACIA 제외)	푸조(PSA) 그룹	(푸조)	(시트로엔)
총 생산	1,335,142	1.5	3.6	1.4	미상	미상
국내	598,927	-9.3	-14.4	-6.2	미상	미상
국외	736,215	12.5	15.5	10.1	20.5	-0.3

자료 원: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회(CCFA)

2)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의 최근 동향

○ 르노(RENAULT) 그룹

- 고용 규모: 126,463명
- 매출 규모: 2006년 41,238백만 유로
- 2006년 전체자동차 판매량 4% 감소(2,433,604대) 및 2007년 상반기 12%감소 (316,934대).
- 영업 마진은 '05년 3.2%에서 '06년 2.45%로 감소('07년 3% 전망)했다.
- 2006년 순이익, 2.77십억 유로로 14.8% 감소했다.
- **주요 전략 및 개발 계획**
 - 2009년까지 3개년 계획: 품질 개선('07년 출시할 LAGUNA 모델부터), 영업 마진 6% 달성, '05-'09년 기간 중 80만 대 판매 증가.
 - 2008년 말까지 16개 신규 모델 출시로 국내외 시장 재탈환.
 - 슬로베니아 투자 공장의 최초 산물인 초소형 모델 TWINGO(국민차) 개발에 7억 유로 투자 및 연간 10만 내지 15만 대 생산(2009년 영업 마진 6% 목표 설정).
 - 개별화 마케팅 전략을 통한 저가 모델 시장 탈환 정책: 2개의 엔진(배기량 1,200cc 및 1,500cc 엔진 포함)과 다양한 옵션의 취사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7,990유로 및 16,200 유로).
 - 소형 모델 CLIO(최다 판매 모델)의 해외(터키) 생산량 증가.
 - 환경보호(CO2 배출량의 50% 감소) 및 운송비 절감 위해 해외 공장용 부품의 50%에 대한 수로운송 수단 채택: 루앙(Rouen) - 르아브르(Le Havre)구간 육로 운송 차량 운행 분(20피트 컨테이너 트럭 12,500대) 절감.
 - 루마니아산 Dacia 브랜드의 중소형 모델 Logan의 수입 전략 고수
 - 한국산 르노-삼성의 SUV 모델, 중형 및 대형 모델의 수입 판매를 통한 고급 승용차 시장 재탈환 전략 추진 중.
 - 인도 시장용 최저가(3,000불 미만) 승용차 현지 생산.

○ PSA 그룹

- 고용 규모: 208,500명
- 매출 규모: 2005년 563억 유로 및 2006년 566억 유로
- 순이익: '05년 10.3억 유로에서 '06년 176백만 유로로 82.9% 감소
- 영업 마진: '05년 3.4%에서 '06년 2%로 감소(자동차 영업 마진: '05년 2%에서 '06년 0.6%로 급감)
- 감소 요인: 중형 모델의 판매 급감(유럽 시장에서 2.7% 감소)
- 세계 시장 판매실적: '05년 339만대에서 '06년 336.6만대로 0.71% 감소(유럽 편중 판매 구조: 유럽 68.2% 및 기타 31.8%)
-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 '05년 14.3%에서 '06년 13.8%로 감소

○ 주요 전략 및 개발 계획

- 2010년까지 단가 30%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 2006년 유럽 공장 내 비 정규직 7,000명 감원에 이어 2007년 정년 퇴직자 포함 4,800명 감원 계획.
- 6개의 추가 모델(총 41개 모델) 개발 전략 수립(9월 중 발표 예정)
- 2008년 19개의 신규 모델 판매 계획(고급 모델 및 저급 모델 집중 개발로 해외 시장 특히, 독일 시장 등 집중 공략 할 것).
- 국내외 시장 세어 탈환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2차 5개(2011-2015)년 글로벌 생산 계획 검토 중: 러시아 생산 계획(최근 양해 각서 조인)을 비롯한 인도 및 멕시코 생산 계획 포함.
- 피 기업인수/합병(OPA) 위기 시, 기업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사 주식 구매신청 어음 발행 조항 채택

- 4대 비상전략: 품질 및 서비스 개선, 가격 절감(저임금 국가 내 구매비중 증가 및 진정한 파트너십 강화), 신제품 개발(6개월 후 다양한 모델 개발 가속 및 신개념 도입), 신형경제 국 겨냥 저가품 개발(일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소형차 개발)
- 르노의 LOGAN에 대적할 저가 모델 개발로 승부

3)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동향

○ 포레시아(FAURECIA)

- 신임 사장 MR. Yann DELABRIERE씨가 '07년 2월 7일부로 부임했다.
- PSA의 자회사로서 PSA그룹이 동사의 지분 71%를 소유하고 있다.
- 고용 규모는 60,000명이다.
- 프랑스 최대, 유럽 2위, 세계 9위의 부품 생산업체이다.
- '06년 매출액은 110억 유로로 3% 증가했다.
- 주 고객인 카 메이커들의 생산 감소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감소했다.
- 재정 악화: 미국 신설공장 가동경비 부담 및 '06년 구조조정(프랑스 및 독일) 부담 (169.2백만 유로)이 가중되었다.
- '06년 말 현재 부채 현황: 1,698백만 유로
- '07년 매출 특히, 하반기 영업 이익이 대폭 개선될 전망 이다.

○ 발레오(VALEO)

- 사장: Thierry MORIN
- 고용 규모: 70,400명
- '06년 매출액, 8,957백만 유로로 전년비 3% 감소('05년 9,234백만 유로)
- '06년 영업 마진율, 2.7%로 '05년(3.3%) 대비 0.6% 감소
- '06년 순이익, 7백만 유로로 '05년(29백만 유로) 대비 76% 감소
- 12개 자립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주종 생산 부품: 전기 및 전자제품(총 매출의 59.3%에 해당)
- 열기관 및 장비: 33.4%
- 차 내부시설 및 모듈, 전동 시스템: 7.3%
- '05년 말 현재 134개 공장 보유: 유럽 75, 아시아 22, 북미 16, 남미 11, 아프리카 10
- 지역별 매출 비중
- 유럽 및 아프리카 69.4%, 북미 14.5%, 아시아 11.8%, 남미 4.3%
- 일본 NIDEC에 전동기관 공장('05년 매출: 253백만 유로)매각 계약체결
- 인도 Minda그룹과 최근 Joint Venture 체결
- 인도 카르나타카주 2대 도시 Pune 및 남부 타밀라드주 Chennai시에 스타트모터 제조 공장 건설 계획 중.
- 최초 투자금액, 2천 5백만 불로 스타트모터 이외에 교류발전기 생산("교류발전기와 스타트모터 각각 100만개 생산) 계획 중: 80% 국내 및 20% 수출
- 출자 비율: MIL사가 30% 및 Valeo 사 70%(2010년까지 1억 불 수준으로 투자 확대 계획)

4)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 '06-'08년 3년간 4억 유로의 이노베이션 및 개발 자금 지원 정책
 - 푸조의 하이브리드 모터 개발 프로젝트에 1.2억 유로('06년) 및 '07년 1.2억 유로의 산업 이노베이션 기관(AII)의 지원금 등을 포함시켰다.
 - 연구비 면세폭, '06년 8백만 유로에서 '07년 16백만 유로로 배가했다.
-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산업계 실업자 구제 보조금을 EU에 요청했다.

다. 우주항공산업

1) 프랑스 우주항공 산업 시장동향

- 세계 항공 및 우주 산업 리더 국가 중의 하나이다.
 - Airbus 수주 현황 호조로 생산 가속 상태: '06년 월 28대에서 '07년 월 32대 및 '08년 월 36대로 생산 증가 중이다.
 - GIFAS에 의하면, '06년 총 수주 액은 '05년 대비 9% 증가한 500억 유로로 1년 매출규모(321억 유로)를 훨씬 능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 '06년 수출도 '05년 대비 15% 증가한 187억 유로 기록했다.
 - '유로콥터'사, '06년 판매 신기록 수립: 총 615대의 헬기 판매(미군에도 공급하기로) 예정이다.
 - 'RAFALE' 전투기, 프랑스 공군에 납품 중이다
 - SNECMA는 AFM56 제트엔진을 GENERAL ELECTRIC과 공동으로 Airbus 및 보잉에 수 천대씩 납품 중이다.
 - DASSAULT의 고급 자가용 경비행기 'FALCON' 특히, 최신 개발 모델인 7X 은 세계적 대인기 중이다: 165대 주문 확정으로 2011년까지 생산 풀가동할 상황이다.
 - 'ARIANE' 로켓, 통신위성 및 미사일 등, 미국과 쌍벽을 이룬다.
- 고속열차와 더불어 프랑스 첨단산업의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무역흑자 황금알을 낳고 있는 효자 산업이다. Airbus의 성공으로 프랑스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 프랑스 EADS 그룹의 자회사인 EADS Astrium사는 '06년 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05년 수익률의 2배 수준이다.
- 차세대 'ARIANE' 로켓용 초 강력 엔진 개발 계획이 최대 현안 사안이다.
 -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신규 엔진 개발(2013-2015년 기간 중)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및 차세대(2020-2025년경 발사 예정인) 'ARIANE' 로켓 장착이 주 목적이다.

2) EADS 그룹: AIRBUS 현안 문제(신임 회장 : MR. Louis Gallois)

- Airbus A380 인도 지연 문제
 - 2006년은 동사 사상 최대의 민항기 인도 및 두 번째 판매실적을 기록한 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버스로서는 장거리 여객기 시장을 상실하여 1/4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해였다.
 - Airbus사는 심각한 위기는 프랑스 관련 산업은 물론 전체 산업 침체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 Airbus A380 인도 지연(2년이 늦은 2007년 2/4분기)으로 인하여 동사는 향후 2010년까지 48억 유로 상당의 매상 감소 타격을 받게 되었다.
- 결제 지연 문제
 - 프랑스 250개 부품업체 및 3,000개 하청업체들은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의 DA 결제 관행으로 인해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다.
 - 동 부품 및 하청업체들은 Airbus A380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더욱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Airbus A380이 인도되어야만 결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Airbus A380 가격경쟁력 약화
 -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 달러화로 결제해야 하는 A380의 가격경쟁력, '01년 대비 40% 하락했다.
- 2007년도 Airbus 수주 동향 및 시장 전망
 - 금년도 430대 인도 및 향후 5년 생산 분 항공기 수주 상태이다.
 - Airbus사는 A380, A350XWB, A400M 등 대규모 항공기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이나 미래 시장 확보 대책은 준비된 상태이다.
 - 연평균 5~6%의 항공 운송 증가 지속 세에 따른 항공기 수요 지속적 증가 전망 등 시장성은 좋은 편이다.

3) 한-불 항공 산업 현안 사항

- 한국의 2020년도 국방 개혁 프로그램
 - 2010년경 20대 전투기 구입 프로그램(F-X)
 - 2020년 신세대 전투기 120대 구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 총 예산은 24억 \$이다.
 - 전투용 헬기 프로그램(272대)
 - 총 예산 규모는 50~100억불이다.
 - Eurocopter사를 파트너로 하여 국산 수송용 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KHP: Korean Multirole Helicopters)과 외국 헬기사를 파트너로 하여 국산 전투용 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Indigene)용 예산이다.
 - 외국 파트너 후보로는 Eurocopter사의 'Le Tigre'와 Boeing사의 'Apache AH-64D Longbow'간 치열한 경쟁 중이다.

라. 화장품 산업

1) 산업에 대한 정의

- 화장품 산업(COSMETIC) 넓은 의미로 위생, 예방, 건강, 외모, 웰빙(well-being) 관련 품목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를 지칭한다.
 - 향수품목
 - 위생품목(비누, 샤워비누, 치약 등)
 - 헤어케어 제품
 - 화장품(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 자외선차단 크림 등)

2) 규모

-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제품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 세계 화장품시장의 규모는 천2백억 달러가 넘고 최근 몇 년간 평균 5~6%의 지속 성장 중. 세계 선두 기업인 프랑스 로레알(L'oreal) 그룹이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 위생, 세제, 식품 제조업체도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등 많은 경쟁사들이 각 분야 및 지역에서 세분된 시장 몫을 차지하고 있다.
- 사치품의 상징인 향수와 화장품은 프랑스 경제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 항공, 자동차, 포도주 산업의 뒤를 잇는 네 번째 수출품으로 국내시장에서도 판매가 급성장 중이다.

- 로레알(L'oreal), 클라린스(Clarins), 겔랑(Guerlain), 이브 로셰(Yves Rocher)등 대표적 기업의 2006년 실적이 2005년 대비 +3.5% 성장한 실적 6십5억 유로를 기록하며 프랑스 화장품 시장은 최근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 2005년 5% 증가율에 머물렀던 수출은 2006년 87억 유로로 7.4% 증가한다.
- 화장품기업의 총 매출실적은 전년도대비 5.7%가 증가했다.
- 유통시장에서는 전문매장, 즉 향수체인점, 백화점, 향수, 화장품 전문 매장들의 매출은 2005년 감소 후 6.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이는 화장품 유통업계의 선두기업인 홍콩계 마리오노(Marionnaud)의 재고 정책에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화장품산업의 대 고객인 대형유통마켓의 매출은 3.4%가 증가한 반면 최근 5년간 6%의 성장률을 기록한 약국의 매출은 한계에 달하여 2006년 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다이렉트셀링(direct selling)을 통한 판매는 1.5% 감소했다.
 - 이 분야 전문기업인 이브 로셰(Yves Rocher)와 르 클럽 드 크레아퇴르 드 보떼(le Club de createurs de beaute)는 대외 수출로 동 판매 감소로 인한 적자를 만회했다.
- 전체적으로 수출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10년 전 화장품산업 총 실적의 50%를 차지했던 수출 비중은 57%로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의 2/3를 선진국에 수출했다.
- 시장 분석 및 전망
 - 선진국 시장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소비자들의 위생, 건강, 미용의식의 고조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했음: 노화방지 제품, 천연 화장품, 바이오 화장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 화장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2007년 동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몇몇 기업들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규 시장의 공세 전략을 모색 중이다.

마. 의약품 산업

1) 개요

- 프랑스 의약품 산업은 일차 원료(항생제, 비타민, 알칼로이드 등 화학 재료) 생산 업체와 의약품 제조 업체로 구성되는데 매출 면에서 의약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 2004년 말 현재 658개의 제조업체에서 103,47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용 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 수는 273개로 전체의 41.5%에 불과함. 따라서 프랑스의 의약품 산업은 아직도 기업 인수 및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영세기업(주로 가족 회사 형태)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Ile de France)에 약 38%(약 250개)가 밀집해 있다.

프랑스 의약품 산업 주요 지수

(단위: 개, 명, 백만 유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기업 수(종업원 20명 이상)	275	270	282	278	273
종사자	99,730	101,902	104,893	104,709	103,471
세금제외 실적	35,843	38,704	42,122	44,355	45,632
투자액	985	1,023	1,177	1,078	970
부가가치(세전 가격)	10,756	11,467	11,794	12,593	11,881
영업 이익 총액	4,471	5,028	5,074	5,749	4,821

자료 원: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프랑스 지역별 의약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 사, 명, 백만 유로)

지역	기업 수	종업원 수	급여	투자 총액
프랑스 전역	658	96,204	3,869.8	959.5
Ile de france(수도권)	249	38,171	1,844.1	194.5
Rhone alpes	71	12,409	488.1	191.7
Centre	50	8,861	275.6	140.4
Haute Normandie	21	5,814	216	73.2
Alsace	15	4,269	150.4	67.3

자료 원: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 프랑스의 2005년도 진료 및 의약품 등 의료관련 총 소비규모는 GDP의 8.81%에 달한다.
- 2005년 프랑스 의약품 소비는 의료 관련 총 소비액의 20.8%에 해당하는 313억 유로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프랑스 국민 1인당 연간 약 500유로의 의약품을 소비한 것이며 2004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이다.
- 2005년 프랑스 정부는 의료보험 환불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Generic 의약품의 시장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약 2억 3천만 유로의 사회보장기관의 지출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의약품 소비 증감 현황

(단위: %)

	1995-2000	2002	2003	2004	2005
총 실적	5.1	5.6	6.0	5.3	4.2
가격	0.0	-1.1	-0.4	-1.2	-1.2
물량	5.0	6.8	6.5	6.6	5.5

자료 원: 의료감사원(Compte de sante) 2005년 보고서

- 의약품은 규제된 분야로 신규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프랑스 위생, 안전, 건강 심의위원회(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의 시판허가증(Autorisation de mise sur le marche-AMM)을 반드시 획득해야 함. 의약품 및 가격의 안정성,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의 환급 등에 관해 공공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산업이다.
- 인구의 노령화와 개발도상국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의약품 산업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화 경향에 맞서 끊임없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 전통적으로 가족기업이었던 소규모 연구소들은 신규 입자의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 및 다국적 기업의 인수 유혹에 어렵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 Pierre Fabre, Ipsen, Servier와 같은 매출규모가 5억~30억 유로의 중견기업들은 지난

10년간 R&D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만 했음.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소홀이 하고 있는 전문 치료용 의약품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이 이들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유전학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학에 의해 개발되는 새로운 치료용 의약품 덕분에 세계 의약품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연구 실태는 점점 악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 유럽국가 중 2005년 프랑스가 발표한 연구 수치는 8%로 2002년 11%보다 감소했음. 최근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임. 2005년 설립된 국가 연구 개발원(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은 생명과학 연구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Paris 근교의 Ile de France지역이 Meditech단지로 선정된 것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노력한 결실이다.
- 미국, 유럽, 일본의 10개 다국적 기업이 42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프랑스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의약품 소비 세계 3위국가인 동시에 40%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세계 의약품 수출 3위 국가이다.
 - Generic(특허 시효가 지난) 의약품의 시장 출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총 매출 38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세 적자 감소정책으로 인한 사회보장 미 환불 의약품의 증가 및 고정 가격 정책 등에 의해 의약품 산업계의 미래는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스라엘의 Teva, 스위스 Novartis사의 Sandoz(브랜드), 인도의 Rambassy 등이 대표 하는 세계 Generic 의약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에 걸림 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의약품 “Blockbusters”의 특허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Generic 의약품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과 Generic 의약품 기업 간의 경쟁은 치열해 질 전망이다. Generic시장의 매출은 향후 5년 이내 약 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Generic 의약품의 시장 침투와 함께 주목할 것은 하이테크(Hi-Tech) 의약품의 등장임. Generic시장이 80-90년대 발명된 주요 의약품들을 대체하며 저렴하게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반면, 장기간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전문 치료용 백신과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해 생산되는 고가 의약품 시장이 신생하고 있다.

프랑스 연도별 의약품 시장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연도	내수					수출	총계
	약국			병원	합계		
	환불 약품	미 환불 약품	소계				
1990	7661	784	8444	1143	9588	2096	11684
1995	10420	1052	11472	1877	13348	4029	17378
2000	13507	1128	14635	2628	17263	9621	26884
2001	14478	1148	15626	3049	18675	12861	31536
2002	15100	1211	16311	3600	19911	14467	34378
2003	16020	1300	17320	4000	21320	14529	35849
2004	17010	1350	18360	4400	22760	15340	38100
2005	18134	1304	19438	4400	23838	16747	40585

자료 원: 프랑스 공업 통계국(SESSI)

2) 프랑스 주요 제약 업체

프랑스 주요 제약 업체(2006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유로)

회사명	종업원 수	실적	업종
Sanofi-Aventis	96,400	25,000	의약품제조
Servier	16,000	2,500	의약품제조
Pierre Fabre	9,300	1,470	의약품, 화장품제조
GlaxoSmithKline France	5,650	3,230	의약품제조
Biomerieux	5,335	930	의약품제조
Pfizer France	5,000	1,911	의약품제조
Groupe Ipsen	3,800	770	의약품제조
Laboratoires Fournier	3,400	593	의약품제조
Boiron	2,222	313	의약품, 유사요법 의약품 제조
Merk France	2,200	602	의약품제조

자료 원: GERS

□ Sanofi-Aventis사

- 세계 제 3의 선두 기업인 프랑스의 Sanofi-Aventis는 2006년 총 284억 유로의 매출 실적 및 70억 유로의 이윤을 기록함. Generic 시장의 치열한 시장 공격에도 불구하고 2005년 실적 대비 3.9가 증가한 실적이다.
- 동사는 “Blockbusters” 약품만 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롬빈 치료제 (Thrombine)인 Lovenox와 Plavix는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24억 및 22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음. 15대 약품이 2006년 총 실적에 기여한 금액은 1/2가 넘는 백7십억 유로이다.

Sanofi-Aventis의 주요 생산 의약품

약품명	적용분야	2006년 매출액(십억 유로)
Lovenox	트롬빈	2.4
Plavix	트롬빈	2.2
Ambien Stinox	불면증	2.0
Taxotere	암	1.8
Eloxatine	암	1.7
Lantus	당뇨	1.6

자료 원: 경제 일간지 Les Echos 2007년 2월 12일자

- 동 사는 트롬빈 치료제인 Plavix를 개발하여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했다.
 - 1998년까지만 하여도 작은 연구소에 불과하던 동 업체는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동 의약품을 발명, 미국 Bristol-Myers Squibb사에 판권 계약을 하면서 비약하기 시작하였다.
 - 동 제품은 현재 세계 80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도입 이후 약 5천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되는 등 동 카테고리 약품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바. 기계/하청 산업

- 32만 명 이상의 고용 규모를 갖는 프랑스 주요 기간 산업이다.
- '06년 매출 신기록: '05년 대비 5.6% 증가한 96십억 유로이다.
- '07년 매출 5% 증가 전망이다.
- 수출(특히, 대 독일)에 의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실적의 43%를 수출 중이다.
 - 총 수출의 1/4 이상을 EU(특히, 독일)에 수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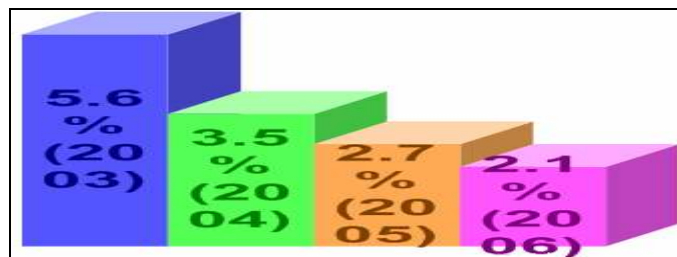
- '06년 산업 투자, 2십억 유로로 '05년 대비 10% 증가했다.
- 하청 산업, '06년 2% 성장: 최대 고객인 자동차 분야가 총 매출의 38%를 차지했다.
 - 유로화 강세에 따른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수주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결제 기간 단축 합의 9월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 프랑스 광학 산업

□ 전체 시장 규모

2006년 38,2억 유로 시장(2005년 36,2억 유로 시장/2005년 대비 2.1% 성장률 기록했으나 프랑스 광학 산업 시장 성장률의 악화 현상 지속).

프랑스 시장 규모 성장률



- 주요 품목별 시장 점유율
 - 안경 렌즈: 55.7%
 - 안경테: 26.8%
 - 콘택트 렌즈: 8.6%
 - 선글라스: 6.4%
 - 기타 제품: 2.5%
- 주요 품목별 2005년 대비 2006년 매출 실적 증가율
 - 콘택트 렌즈 + 3.1% (전년도 증가율 8.1%을 크게 밑도는 수치)
 - 안경 렌즈 +2.3%
 - 안경테 +1.6%
 - 콘택트 렌즈 관련 제품 -3.6%
 - 선글라스 +3.4%
- 2006년도 안경점 점포망의 변화: 425개의 신생 점포 개장으로 전년도 대비 3.5%의 증가했다
 - 2005년 380여 개 판매점 신설 / 전년 대비 4%가 늘어난 수치.
 - 대형 브랜드의 분점이 아닌 독립 매장의 비율은 47%에 이르며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독립 매장의 매출액 규모는 전체의 26-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프랑스 내 안경점 추이

2004년	8,758개
2005년	9,455개
2006년	9,880개

브랜드별 매출액 및 매장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개)

브랜드	매출액	매장 수
La Guilde des Lunetiers(Krys, Vision Plus, Vision Originale)	711	1,214
Optic 2000	785(전년대비급증)	1,114
Alain Afflelou	540(정체)	650
Les Opticiens Mutualistes	430	456
Atol	266	625
Grand Optical	205	78
Générale d'Optique	219	220
Visual (Visual, Alpha Optic)	135	28

자료원: *Bien Vu* Hors Série 2007**1) 안경 렌즈 시장**

교정 렌즈의 경우 2006년 한해동안 2퍼센트의 총 매출액 성장을 기록했다(총 매출액 21억 유로 추정). 교정 렌즈는 전체 광학 시장 총 매출액의 56%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2,400만개의 교정 렌즈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유기 렌즈(verres organiques)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경향 (9/10) 지속이라든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누진 다초점렌즈 (verres progressifs)의 점유율 확대(51% 이상을 차지) 현상

이외에도, 안경 렌즈 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신세대 다초점 렌즈의 등장
- 안경 렌즈의 종류 다양화 및 굴절 렌즈의 도수 선택 폭 개선
 - 예를 들어 색깔입힌 렌즈, 천연 컬러 렌즈, 반사 방지 처리 등과 같이 렌즈 제품의 고급화(sophistication)가 이루어짐
 - 반사 방지 처리한 렌즈는 전체 렌즈 판매 숫자로는 43%, 매출액으로는 56%를 차지

2) 안경테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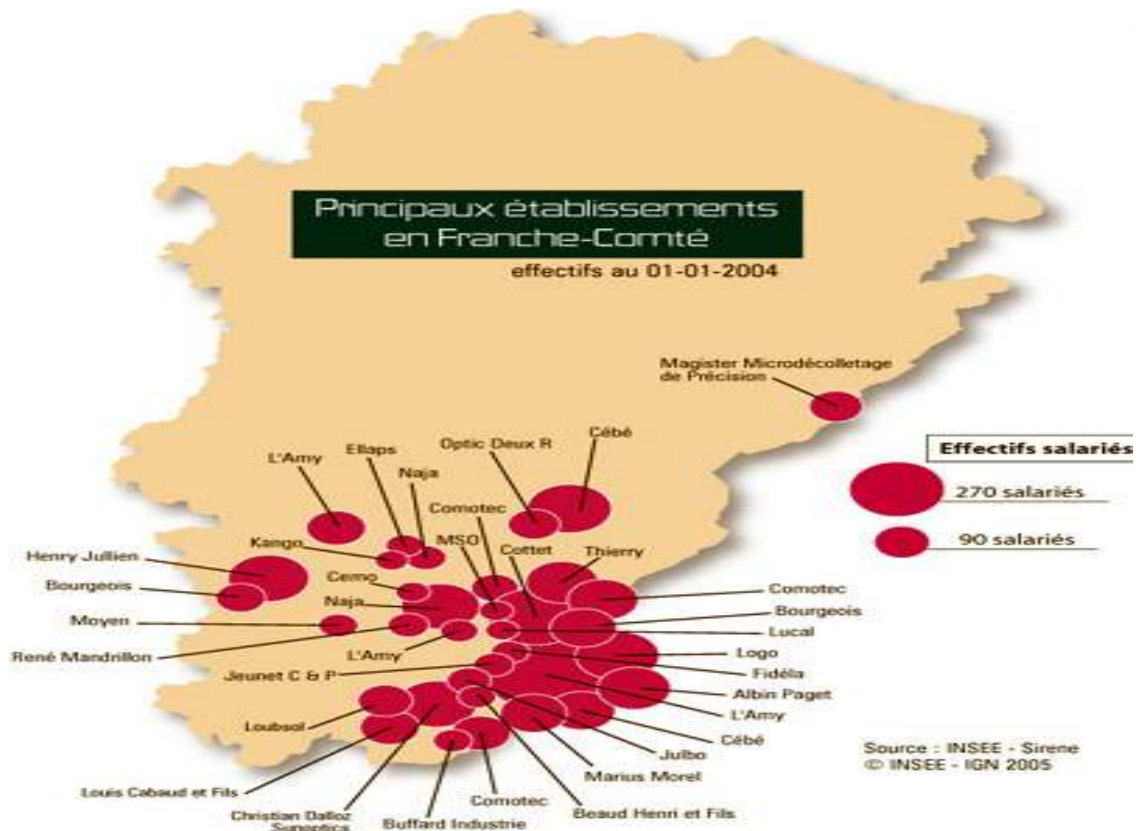
프랑스 안경테 제작업체들은 프랑쉬-콩테(Franche-Comté, 프랑스 동부 지역) 모레스(Morez) 시 근교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금속을 소재로 한 안경테 제작 전통이 매우 오래된 지역이다(88%). 그러나 최근 중국 제조업계의 등장으로 인해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창작, 마케팅, 디자인과 기술 부문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모레스 근방은 전통적으로 시계 제조나 현미경 분야에 강한 지역이다).

2003년 말 통계로 이 지역 안경제조 업체들의 총 고용인은 2,400명에 달했으나, 1999년 이후로 연평균 6.5%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레스 지역의 총 매출액은 여전히 1억 8,000만 유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Oyonnax 근방에서도 안경테 제작업계의 매출액이 5,000만 유로에 이르는데, 여기서는 스포츠용, 공업용 보호 안경의 제조도 있지만, 무엇보다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테 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콩테 지방에 자리잡고 있는 주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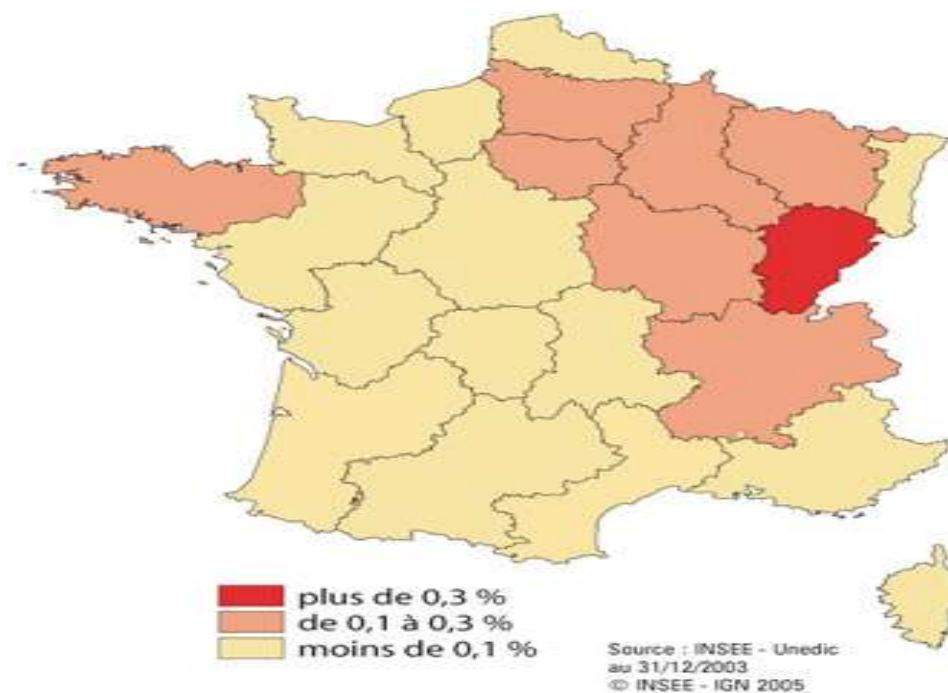
(큰 원: 직원 수 270명, 작은 원: 직원 수 90명)



자료 원: INSEE-Sirene

프랑스 지역별 안경테 제조업체의 집중 정도

Poids du secteur dans l'emploi salarié de chaque région au 31 décembre 2003



주: 가장 진한 색깔 부분이 프랑스-콩테 지역임

3) 콘택트 렌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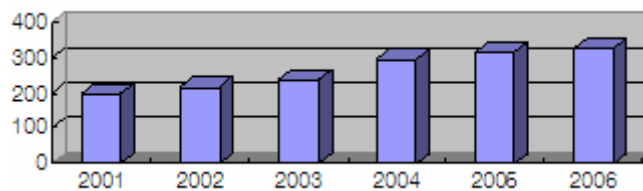
콘택트 렌즈에 있어서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2005-2006년의 기술 혁신 항목 중에서는 실리콘 히드로겔 렌즈의 성공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다(전체 렌즈 매출액의 15% 차지).

2006년의 경향 중에서는 또한 일회용 렌즈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았는데 일회용 렌즈는 이제 전체 콘택트 렌즈 매출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편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향은 또한 다기능 관리용액의 판매 성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으로 다기능성 관리액은 전체 콘택트 렌즈 관리 용품 판매액의 61%를 차지했다. 판매액을 보면, 2006년 프랑스에서는 1억 2,800만 유로 어치의 콘택트 렌즈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9.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밖에 전체 콘택트 렌즈 관련 시장의 매출액은 3억2,900만 유로에 달했다.

2001년 이래로 프랑스의 콘택트 렌즈 관련 시장은 66% 성장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매년 2백만 건의 콘택트 렌즈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자료 IMS), 콘택트 렌즈 관련 매출이 안경사의 수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콘택트 렌즈 및 관련 제품 판매액).

2000년 이후 콘택트 렌즈 시장의 성장

(단위: 백만 유로)



프랑스 콘택트 렌즈 시장의 특징은 매출액 규모로는 서구 유럽 국가 중에서 2위이나 렌즈 착용자의 숫자로 보았을 때의 순위는 훨씬 뒤떨어져 있다. 렌즈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11.7%인데 비해 실제 착용인구는 8% 정도이며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는 곳으로는 독립 안경사 매장이 24%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 착용자의 비율이 79%를 넘으며, 1개월 사용 렌즈를 가장 선호하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비 일회용 렌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원: Etude SIMM, TNS Sofres실시, 2006).

□ 프랑스 광학 업계 관련 정보

- 프랑스 광학 시장의 약 50%가 일드프랑스(Ile-de-France, 파리 근교 지역)에 밀집.
- 파리 시내와 그 근교 지방에서 약 8 milliard 유로의 매출액 기록(매년 10%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파리 근교 지방에는 450개의 광학 관련 업체가 밀집, 23,000명의 고용 인구 창출.
- 광학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2,6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활동 중.
- 매년 약 400개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 안경사의 숫자는 16,147명에 이르며, 이중 5,381명이 매장의 소유주이다.
- 안경사 중 남성 비율은 52.9%이다.
- 안경사 중 35세 미만의 비율이 50.5%에 이른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가. EU FTA 추진현황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협상 권을 위임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EU회원국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적용한다.

1) EU의 FTA 정책

EU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DDA협상에서의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걸프 협력회의), ASEAN 등 지역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재권,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FTA 추진과 관련, EU는 MERCOSUR, GCC와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AN, Andean, 중미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시장 개방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 EU의 FTA의 주요 특징

□ 지중해 지역과의 경제 통합 가속화

EU는 현재 9개 지중해국가(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2010년까지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역간 FTA(Euro-Med Agreement)로 확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 부문까지 자유화를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2006년 이라크와 무역협력 협정(TCA)을 위한 회담 개시를 2005년 말 제안한 바 있다.

□ MERCOSUR와의 협력 강화

2000년 4월 지역간 협력을 위한 첫 회담 개최 이래 지금까지 16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잠시 교착상태를 보였다가 2005년 9월2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MERCOSUR와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이래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MERCOSUR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무역비중이 22.9%에 이른다. 양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구 7억 명의 세계최대의 공동시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협의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상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한-EU 기본협력협정, 신 가입국에 확대 적용 의정서 체결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신규 10개국에 대한 확대 적용 의정서가 200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다.

한-EU 기본협력협정은 1996년 10월 28일 우리나라와 EU간 체결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개국이 확대되면서 동 기본 협력 협정의 확대적용을 위해 동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한편, 2007년 5월부터 한국과 EU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EU, EFTA, 유로-지중해협정, 멕시코, 터키, 칠레, 남아공	MERCOSUR, GCC, 한국	ASEAN,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중남미 6국, 안데안 4국

작년 결렬된 WTO협상 이후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개했다. 협정이 완료되면 양 지역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47%,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약 36%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지난 5월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유럽의 8번째 교역국으로 2006년 한해 총 교역 금액은 5백3십 억 유로에 이르렀다. 작년 한해 동안 유럽 연합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3십5억 유로로 미국에 앞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기록했다.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에 자유개방을 요구할 산업 영역은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화학산업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1) 수출입 동향

□ 세계 무역에서의 위치

프랑스는 세계 5대 수출입 국가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수출 면에서는 4위인 일본과의 격차가 크나 수입 면에서는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5대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 \$)

순위	국가 명	2006년		2007년1/4분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독일	1,111,050	908,651	312,147	248,833
2	미국	1,037,070	1,919,260	270,874	466,122
3	중국	969,284	791,793	265,802	216,819
4	일본	646,779	578,694	163,459	150,351
5	프랑스	489,739	534,635	132,076	143,277
6	네덜란드	462,372	416,694	128,205	114,367
7	이탈리아	409,652	436,478	110,925	118,357
8	벨기에	369,022	353,661	103,908	97,712
9	영국	422,553	546,685	101,252	152,423
10	캐나다	389,488	383,553	98,013	94,81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ITA

□ 최근 연도별 수출입 실적

프랑스의 수출 증가율은 '05년 3.2%에 이어 '06년 6.3%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금년 1-10월 중에는 2.7%로 저조했다. 수입 증가율은 '05년 5.4% 및 '06년 7.1%로 향상된 후 금년 상반기에는 4.1%로 크게 낮아졌다.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상태가 수년째 지속됨에 따라 무역수지는 '04년 적자 기록 후 3년째 악화 일로에 있다. 금년도 1-10월 기간 중 무역적자는 425억 유로를 상회하여 프랑스 GDP 성장에 마이너스(-0.3) 기여를 하였다.

프랑스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05		2006		2007. 상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	470.76	5.4	504.07	7.1	373.09	4.1
수출	451.55	3.2	479.94	6.3	330.53	2.7
무역수지	-19.21	-	-24.13	-	-42.55	-

자료 원: 프랑스 경제통계연구소(INSEE)

2000년 가격 기준 계절 변동치(인플레이션) 조정 후 통계임.

□ 프랑스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수출입 공히 독일이 최대의 교역대상국이며,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 EU 국가들이 주요 교역대상국인데, 그 외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많은 상태며, 한국은 2005년 프랑스 29위 수출대상국, 18위 수입대상국에서 2006년 24대 수출대상국 및 15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프랑스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명	수출액	구성비	증감률	순위	국가명	수입액	구성비	증감률
1	독일	55,298	14.5	7.8	1	독일	66,388	15.7	2.7
2	스페인	37,597	9.9	4.8	2	벨룩스	36,792	8.7	11.5
3	이태리	34,658	9.1	6.9	3	이태리	35,679	8.5	5.5
4	영국	32,434	8.5	3.6	4	스페인	28,959	6.9	5.4
5	벨룩스	29,851	7.8	5.4	5	영국	25,868	6.1	13.5
6	미국	26,412	6.9	5.7	6	미국	25,323	6.0	11.3
7	네덜란드	15,720	4.1	8.5	7	중국	23,975	5.7	13.9
8	스위스	10,419	2.7	2.0	8	네덜란드	17,237	4.1	6.3
9	중국	8,085	2.1	39.3	9	일본	10,282	2.4	-1.5
10	일본	5,698	1.5	5.2	10	스위스	9,461	2.2	7.5
24	한국	2,887	0.8	21.3	15	한국	4,159	1.0	13.9

자료 원: 프랑스 관세청

- 2006년도 5대 주종 수입품은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항공기, 통신위성,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 에너지제품과 운송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제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 10대 수입품은 의약품, 철강제품, 정보기기, 기초 유기화학제품, 기초 플라스틱 물질 등인데 컴퓨터 및 정보기기의 수입이 14.1% 감소했다.
- 15대 수입품은 시청각 장비, 의료기기 및 측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결 같이 감소했으며 특히, 음향 및 영상 송신기는 50.6%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음향 및 영상 수신기 및 전자부품도 19.5% 및 15.1% 감소했다.

주종 품목별 최근 수입 실적

(단위: 천 유로, %)

연도별	2005	2006	증감률	2007.1-10	증감률
총 수 입	388,812,200	426,238,395	9.6	368,701,772	4.1
원유 및 천연가스	35,738,620	43,183,299	20.8	33,410,336	-7.0
자동차	29,434,029	30,866,173	4.9	28,718,014	11.7
우주 항공기	12,498,757	14,173,015	13.4	13,327,193	11.1
석유제품	14,037,642	16,424,104	17.0	11,985,828	-13.8
자동차 부품	12,823,020	13,237,484	3.2	11,808,777	6.3
의약품	11,323,336	12,574,171	11.0	11,770,528	12.7
철강제품	9,145,201	11,180,329	22.3	10,988,078	19.3
컴퓨터 및 정보기기	13,076,355	13,226,727	1.1	9,050,737	-14.3
기초 유기화학 제품	9,667,175	9,773,176	1.1	8,725,107	8.1
기초 플라스틱 물질	6,516,958	7,356,543	12.9	6,816,897	12.3
시청각 수신, 재생, 녹음, 녹화기	7,167,623	8,104,287	13.1	5,894,489	-9.1
시청각 방송 방영기기	5,731,582	8,494,811	48.2	4,865,398	-35.0
수술 및 정형수술장비	5,463,849	5,751,609	5.3	4,734,217	-1.2
외의류	5,336,710	5,495,783	3.0	4,740,008	0.6
계측,검사기기	4,911,323	5,563,517	13.3	4,522,869	-1.1
전자부품	6,137,799	6,150,906	0.2	4,471,687	-13.7
종이 및 판지	4,627,338	4,821,874	4.2	4,258,987	6.2
동	2,744,218	4,890,816	78.2	4,067,460	-1.2
산업용 화학제품	3,751,547	4,141,981	10.4	3,823,732	11.6
알루미늄 및 동 제품	3,168,778	4,301,939	35.8	3,798,394	5.8
내의류	3,976,026	4,158,299	4.6	3,709,757	5.0
신발	3,869,107	4,034,235	4.3	3,634,128	4.2
전기 배전기 및 제어기	3,222,252	3,720,565	15.5	3,436,591	11.1
유압식펌프, 컴프레서 및 시스템	3,418,904	3,449,890	0.9	3,266,169	14.4
기초 의약품	4,390,135	3,776,860	-14.0	3,087,058	-1.0
가전제품	3,300,483	3,509,587	6.3	2,985,315	2.7
플라스틱 판, 시트, 관	3,162,542	3,394,712	7.3	3,037,526	6.4
기타 금속제품	2,872,850	3,108,037	8.2	2,904,102	12.0
전기 모터, 발전기 및 변압기	2,711,435	3,108,858	14.7	2,775,604	9.5
건설 및 추출기계	2,527,306	2,912,960	15.3	2,809,939	17.6
음료수용 과일 및 식물	3,055,669	3,024,456	-1.0	2,606,340	5.9
기타 플라스틱 제품	2,765,659	2,910,908	5.3	2,649,686	9.0
하역장비	2,394,007	2,680,292	12.0	2,545,565	14.4
범용 기계	2,610,656	2,832,320	8.5	2,481,916	6.4
어류 제품	2,650,912	2,944,146	11.1	2,359,992	-1.4
산업용 통풍 및 냉동기기	2,253,959	2,574,808	14.2	2,478,225	14.7
육류	2,742,050	2,932,907	7.0	2,401,772	-2.4
사무용 기계	1,455,482	1,773,288	21.8	2,499,929	76.8
기타 특수용 기계	2,555,158	2,642,014	3.4	2,196,851	2.7
화훼류 또는 관상수	2,668,787	2,703,895	1.3	2,262,438	-0.2
기타 가구류	2,335,949	2,359,750	1.0	2,191,784	12.5
클러치 및 전동축	2,172,457	2,292,970	5.5	2,200,839	15.0
우유 및 우유제품	1,942,600	2,061,984	6.1	1,990,779	16.5
완구 및 게임	1,953,244	1,983,995	1.6	1,842,689	23.6
의자류	2,204,014	2,261,291	2.6	1,937,593	3.7
핵산업 제품	1,747,195	1,805,293	3.3	1,780,925	38.6

밸브류	1,717,709	1,933,111	12.5	1,867,773	16.0
기타 의류 및 기타 액세서리	2,097,108	2,211,003	5.4	1,813,789	-1.4
타이어	1,726,808	1,908,057	10.5	1,839,302	14.8
니켈 및 기타 비철금속	1,221,270	1,543,439	26.4	1,849,110	43.1
케이블 및 철선	1,513,965	1,957,019	29.3	1,708,185	5.8
채소 및 과일 조제품	1,741,566	1,867,776	7.2	1,699,971	10.3
고무제품	1,648,412	1,840,557	11.7	1,706,142	11.6
기초 무기화학제품	1,585,368	1,791,151	13.0	1,676,064	13.5
플라스틱제 포장용품	1,649,985	1,789,943	8.5	1,626,491	8.2
쉐타류	1,886,212	1,945,443	3.1	1,588,874	-2.0
모터 및 자동차용 전기제품	1,864,352	1,842,945	-1.1	1,593,843	3.8
철관	1,490,801	1,661,388	11.4	1,593,526	14.6
섬유제품	1,639,625	1,776,811	8.4	1,541,045	4.8
램프 및 조명기기	1,706,915	1,644,103	-3.7	1,539,965	12.3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100대 수입 상품 중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시청각 방송 및 방영기기(35% 감소), 컴퓨터 및 정보기기(14.3% 감소), 석유제품(13.8% 감소), 전자부품(13.7% 감소), 시청각 수신, 재생, 녹음 및 녹화기(9.1% 감소), 원유 및 천연가스(7% 감소) 등 15개이다.

수입 감소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 유로, %)

연도별	2005	2006	증감률	2007.1-10	증감률
화훼류 또는 관상수	2,668,787	2,703,895	1.3	2,262,438	-0.2
기초 의약품	4,390,135	3,776,860	-14.0	3,087,058	-1.0
계측, 검사기기	4,911,323	5,563,517	13.3	4,522,869	-1.1
수술 및 정형수술장비	5,463,849	5,751,609	5.3	4,734,217	-1.2
동	2,744,218	4,890,816	78.2	4,067,460	-1.2
어류 제품	2,650,912	2,944,146	11.1	2,359,992	-1.4
기타 의류 및 기타 액세서리	2,097,108	2,211,003	5.4	1,813,789	-1.4
쉐타류	1,886,212	1,945,443	3.1	1,588,874	-2.0
육류	2,742,050	2,932,907	7.0	2,401,772	-2.4
원유 및 천연가스	35,738,620	43,183,299	20.8	33,410,336	-7.0
시청각 수신, 재생, 녹음, 녹화기	7,167,623	8,104,287	13.1	5,894,489	-9.1
전자부품	6,137,799	6,150,906	0.2	4,471,687	-13.7
석유제품	14,037,642	16,424,104	17.0	11,985,828	-13.8
컴퓨터 및 정보기기	13,076,355	13,226,727	1.1	9,050,737	-14.3
시청각 방송 방영기기	5,731,582	8,494,811	48.2	4,865,398	-35.0

자료 원: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 100대 수입 상품 가운데 10% 이상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은 26개인데 사무용 기기가 76.8%로 가장 높았고 니켈 및 기타 비철금속이 43.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핵 산업 제품이 38.6%로 세 번째로 높았다.
- 증가율 순위 4위에서 10위 품목은 완구 및 게임(23.6%), 철강제품(19.3%), 건설 및 추출 기계(17.6%), 우유 및 우유제품(16.5%), 밸브류(16%), 클러치 및 전동축(15%), 타이어(14.8%) 등이다.

10% 이상 증가한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 유로, %)

연도별	2005	2006	증감률	2007.1-10	증감률
총 수입	388,812,200	426,238,395	9.6	368,701,772	4.1
사무용 기계	1,455,482	1,773,288	21.8	2,499,929	76.8
니켈 및 기타 비철금속	1,221,270	1,543,439	26.4	1,849,110	43.1
핵산업 제품	1,747,195	1,805,293	3.3	1,780,925	38.6
완구 및 게임	1,953,244	1,983,995	1.6	1,842,689	23.6
철강제품	9,145,201	11,180,329	22.3	10,988,078	19.3
건설 및 추출기계	2,527,306	2,912,960	15.3	2,809,939	17.6
우유 및 우유제품	1,942,600	2,061,984	6.1	1,990,779	16.5
밸브류	1,717,709	1,933,111	12.5	1,867,773	16.0
클러치 및 전동축	2,172,457	2,292,970	5.5	2,200,839	15.0
타이어	1,726,808	1,908,057	10.5	1,839,302	14.8
산업용 통풍 및 냉동기기	2,253,959	2,574,808	14.2	2,478,225	14.7
철관	1,490,801	1,661,388	11.4	1,593,526	14.6
유압식펌프, 컴프레서 및 시스템	3,418,904	3,449,890	0.9	3,266,169	14.4
하역장비	2,394,007	2,680,292	12.0	2,545,565	14.4
기초 무기화학제품	1,585,368	1,791,151	13.0	1,676,064	13.5
의약품	11,323,336	12,574,171	11.0	11,770,528	12.7
기타 가구류	2,335,949	2,359,750	1.0	2,191,784	12.5
기초 플라스틱 물질	6,516,958	7,356,543	12.9	6,816,897	12.3
램프 및 조명기기	1,706,915	1,644,103	-3.7	1,539,965	12.3
기타 금속제품	2,872,850	3,108,037	8.2	2,904,102	12.0
자동차	29,434,029	30,866,173	4.9	28,718,014	11.7
산업용 화학제품	3,751,547	4,141,981	10.4	3,823,732	11.6
고무제품	1,648,412	1,840,557	11.7	1,706,142	11.6
우주 항공기	12,498,757	14,173,015	13.4	13,327,193	11.1
전기 배전기 및 제어기	3,222,252	3,720,565	15.5	3,436,591	11.1
채소 및 과일 조제품	1,741,566	1,867,776	7.2	1,699,971	10.3

자료 원: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프랑스는 점진적으로 OECD 및 유로 존과 같이 산업이 발달한 지역과의 수입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과의 수입 규모는 담보 내지 감소하고 있는데 주 요인은 저임금 국가 상품 수입으로 전환한 것과 달러화 결제 국가 산 수입액이 달러화로는 증가했음에도 유로화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유로화 강세로 인해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 프랑스의 수출 동향

2007년 1-10월 중 수출규모는 3,287억 유로를 상회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했는데 항공기 수출이 9배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다.

의약품(5.1%), 자동차 부품(3.9%), 철강제품(12.9%), 향수 및 화장품(7.8%), 기초 플라스틱 물질(5.7%), 포도주 및 샴페인(9.5%), 전기 배전기 및 제어기(8.5%), 계측 및 검가기기(11.4%), 산업용 화학제품(4.8%), 우유 및 우유제품(11.9%) 등 주종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2.5%), 석유제품(-7.9%), 기초 유기 화학제품(-5%), 전자부품(-11.2%), 컴퓨터 및 정보기기(-15.7%) 등 일부 수출 주종 품목들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천 유로, %)

품목별	2005	2006	증감률	2007.1-10	증감률
총 수출	352,639,064	384,612,260	9.1	328,698,231	2.7
자동차	37,123,534	34,594,276	-6.8	28,460,830	-2.5
우주, 항공기	23,162,101	27,559,654	19.0	23,343,520	797.2
의약품	17,267,051	18,776,753	8.7	16,413,659	5.1
자동차 부품	14,021,413	15,212,296	8.5	13,280,190	3.9
철강제품	10,155,944	11,931,492	17.5	11,094,120	12.9
석유제품	8,764,308	10,772,617	22.9	8,342,058	-7.9
향수 및 화장품	8,018,226	8,600,564	7.3	7,723,449	7.8
기초 플라스틱 물질	7,644,939	8,463,023	10.7	7,540,818	5.7
기초 유기화학제품	8,375,262	9,258,148	10.5	7,480,769	-5.0
포도주 및 샴페인	5,688,015	6,275,192	10.3	5,433,951	9.5
전자부품	7,081,655	7,424,945	4.8	5,510,192	-11.2
전기 배전기 및 제어기	5,612,068	6,180,476	10.1	5,605,849	8.5
계측, 검사기기	5,124,964	5,814,694	13.5	5,257,379	11.4
산업용 곡물 및 식물	5,034,022	5,326,737	5.8	5,360,718	21.2
산업용 화학제품	4,474,921	5,202,469	16.3	4,554,335	4.8
수술 및 정형수술장비	5,107,587	5,287,606	3.5	4,363,977	-0.4
컴퓨터 및 정보기기	5,316,289	5,682,320	6.9	3,705,840	-15.7
우유 및 동 제품	4,173,558	4,269,120	2.3	3,919,225	11.9
종이 및 판지	4,513,289	4,547,755	0.8	3,914,524	3.2
펌프, 컴프레서	3,648,724	3,963,319	8.6	3,441,907	4.4
시청각 방송 및 전파기기	5,550,052	7,682,007	38.4	3,113,954	-54.5
전기 모터, 발전기 및 변압기	2,957,415	3,490,586	18.0	3,213,755	12.0
동	2,189,887	3,843,880	75.5	3,240,648	-0.6
건설기계	2,957,308	3,625,806	22.6	3,193,720	5.6
하역장비	2,750,434	3,422,811	24.4	3,093,687	10.5
기타 금속제품	3,067,754	3,358,708	9.5	3,084,249	293.9
알루미늄 및 동 제품	2,502,859	3,260,598	30.3	2,802,515	3.3
시청각 수신, 재생, 녹음기	3,968,972	3,833,818	-3.4	2,353,865	-24.1
기타 범용기계	2,757,786	2,874,202	4.2	2,436,665	3.2
산업용 통풍 및 냉동기기	2,494,450	2,689,396	7.8	2,490,935	11.3
클러치 및 전동축	2,264,340	2,569,575	13.5	2,442,394	13.4
타이어	2,464,061	2,670,026	8.4	2,438,740	8.2
기타 특수용 기계	2,646,684	2,981,561	12.7	2,226,093	-6.4
여행용구 및 혁제품	2,458,685	2,736,485	11.3	2,310,198	1.4
증류된 알콜음료	2,273,906	2,629,582	15.6	2,299,742	5.7
철관	1,939,793	2,376,841	22.5	2,320,231	18.7
플라스틱 판, 시트, 관 및 프로파일	2,126,223	2,364,703	11.2	2,165,532	8.1
기타 플라스틱 제품	2,225,894	2,305,882	3.6	2,066,896	7.4
원자력 전기 및 핵연료	3,501,219	3,110,826	-11.2	1,890,099	-27.1
육류	2,195,698	2,367,616	7.8	1,949,504	-0.6
기타 의류 및 기타 액세서리	2,147,483	2,302,047	7.2	2,016,004	1.6
외의류	2,019,416	2,118,854	4.9	2,041,271	10.1
고무제품	1,919,698	2,095,686	9.2	1,957,043	11.5
기초 의약품	2,195,121	2,310,762	5.3	1,810,547	-5.0
밸브류	1,718,336	1,892,085	10.1	1,778,798	13.6
핵산업 제품	1,428,354	1,407,312	-1.5	1,734,930	55.6
내의류	1,695,057	1,845,298	8.9	1,719,746	6.9
농화학 제품	1,930,240	1,875,274	-2.8	1,684,388	1.7
기타 전기장비	1,172,105	1,343,510	14.6	1,523,061	44.1
직물	1,941,045	1,842,785	-5.1	1,447,342	-4.4
기타 식료품	1,545,442	1,637,553	6.0	1,493,995	10.1
가전제품	1,667,917	1,688,115	1.2	1,434,929	5.6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의 24대 수출 시장

한국의 대불 수출이 최근5년간 84% 증가하는 등 교역량이 날로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한국의 24대 수출 시장에 불과하다('07년 10월 기준).

프랑스는 '05년 한국의 세계 21대 수출대상국이었는데 '06년에 22대 및 2007년 10월말 현재 24위로 그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아랍 에미리트 연합, 터키 및 핀란드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대불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데에 기인한 것과 금년도 대불 수출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

한국의 24대 수출 대상국

(단위: 불, %)

순위	국가 명	2006		2007(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5,464,848,413	14.4	302,671,387,416	13.7
1	중국	69,459,178,307	12.2	66,754,221,091	17.5
2	미국	43,183,502,182	4.5	37,821,936,975	6.9
3	일본	26,534,015,090	10.4	21,347,245,419	-2
4	홍콩	18,978,862,715	22.2	15,248,526,311	-2.7
5	대만	12,995,658,207	19.6	10,752,410,489	2.3
6	싱가포르	9,489,299,810	28.1	9,768,138,837	24.3
7	독일	10,056,206,527	-2.4	9,342,300,608	13.5
8	러시아 연방	5,179,247,907	34	6,462,611,107	51.9
9	멕시코	6,284,571,287	65.9	6,126,674,844	16.3
10	영국	5,635,118,659	5.5	5,843,088,074	27.7
11	인디아(인도)	5,532,796,943	20.3	5,300,382,519	13.6
12	인도네시아	4,873,522,765	-3.4	4,855,361,066	23
13	말레이시아	5,227,177,747	13.4	4,723,907,479	14.6
14	베트남	3,927,476,198	14.4	4,552,794,985	41.6
15	호주	4,692,086,246	23.1	3,862,334,907	-2.4
16	태국	4,246,112,901	25.6	3,650,324,711	4.4
17	네덜란드	3,609,376,927	-1	3,520,484,639	20.8
18	필리핀	3,930,517,205	22.1	3,520,333,035	9
19	터키	3,035,803,289	9.1	3,420,273,780	35.6
20	이탈리아	4,286,258,927	-0.2	3,349,475,591	-1.6
21	사우디아라비아	2,978,298,268	42.3	3,348,007,042	44.7
22	스페인	3,479,242,223	21.4	3,203,944,007	15.1
23	아랍에미리트 연합	2,895,994,254	6	3,012,792,143	30.9
24	프랑스	3,415,467,327	7.7	2,895,039,762	-1.6

자료 원: KOTIS. 순위는 '07년 기준임.

□ 한국의 유럽 내 7대 수출 시장

프랑스는 2006년 한국의 유럽 내 7대 수출국가이었으며 2007년 10월말 현재 7위를 기록했다(러시아연방 제외 시 6위). 이는 금년 10개월간 대불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했음에도 36% 증가한 폴란드를 앞섰다.

한국의 7대 유럽 수출 대상국

(단위: 불, %)

순위	국가 명	2006		2007(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5,464,848,413	14.4	302,671,387,416	13.7
1	독일	10,056,206,527	-2.4	9,342,300,608	13.5
2	러시아 연방	5,179,247,907	34	6,462,611,107	51.9
3	영국	5,635,118,659	5.5	5,843,088,074	27.7
4	네덜란드	3,609,376,927	-1	3,520,484,639	20.8
5	이탈리아	4,286,258,927	-0.2	3,349,475,591	-1.6
6	스페인	3,479,242,223	21.4	3,203,944,007	15.1
7	프랑스	3,415,467,327	7.7	2,895,039,762	-1.6

자료 원: KOTIS

□ 프랑스, 한국의 세계 18대 수입 시장

프랑스는 2006년 한국의 세계 20대 수입 대상국가에서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18위로 올라섰다. 이는 2007년 10개월 기간 중 프랑스의 대한 수출이 러시아, 인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23.7%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프랑스, 한국의 18대 수입 대상국

(단위: 불, %)

순위	국가 명	2006		2007(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9,382,632,467	18.4	288,865,582,780	13.2
1	중국	48,556,674,714	25.6	51,289,416,760	30.2
2	일본	51,926,291,598	7.3	46,167,394,666	7.6
3	미국	33,654,171,078	10	30,822,854,490	9.3
4	사우디 아라비아	20,552,109,786	27.6	16,752,729,028	-3.7
5	독일	11,364,578,228	16.3	11,016,026,300	18.9
6	호주	11,309,398,202	14.7	10,586,793,305	15.8
7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12,930,857,029	29.1	10,162,566,839	-5.6
8	대만	9,287,534,431	15.4	8,085,192,777	3.9
9	인도네시아	8,848,554,219	8.1	7,253,733,464	0.3
10	말레이시아	7,242,465,515	20.5	6,927,449,070	17.2
11	쿠웨이트	8,133,477,435	36.1	6,862,089,149	1.2
12	카타르	6,985,169,940	24.8	6,467,157,136	15.8
13	싱가포르	5,886,680,017	10.7	5,667,726,795	15.9
14	러시아 연방	4,572,967,271	16.2	5,486,407,452	48.1
15	이란	5,049,156,372	42.8	4,859,462,163	14.9
16	인디아(인도)	3,640,789,184	72.4	3,724,425,490	29.8
17	칠레	3,812,944,588	67.3	3,523,096,998	10.1
18	프랑스	3,219,384,963	16.7	3,265,161,589	23.7

자료원: KOTIS

□ 프랑스, 한국의 유럽 내 8대 수출 시장

프랑스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유럽 내 3대 수출국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러시아 연방 제외 시 2위).

한국의 유럽 3대 수입 대상국

(단위: 불, %)

순위	국가 명	2006		2007(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9,382,632,467	18.4	288,865,582,780	13.2
1	독일	11,364,578,228	16.3	11,016,026,300	18.9
2	러시아 연방	4,572,967,271	16.2	5,486,407,452	48.1
3	프랑스	3,219,384,963	16.7	3,265,161,589	23.7

자료원: KOTIS

□ 연도별 대불(對佛) 무역 동향

1) 한국 통계 기준

한국의 對 프랑스 수출증가율이 '04년 50.6% 급증한 이후 '05년 다소 주춤한 20.0%를 기록한 데 이어 '06년에는 7.7%의 증가율 기록했다.

또한 한국은 對 프랑스 교역에서 '03년까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04년부터 흑자로 전환 후 '05년에는 4억불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06년에도 약 2억불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370백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년도 대불 무역 적자 요인은 지난 해 주종 수출품목이었던 선박의 대불 수출이 금년 들어 거의 전무한 데에 따른 전체 대불 수출의 1.6% 감소 및 대불 수입의 급증(23.7%)에 기인한다.

한국의 對 프랑스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0
수출 (증감률)	1,541 (-10.0)	1,629 (5.7)	1,755 (7.8)	2,644 (50.6)	3,172 (20.0)	3,415 (7.7)	2,895 (-1.6)
수입 (증감률)	2,092 (-6.7)	2,116 (1.1)	2,220 (4.9)	2,483 (11.8)	2,786 (11.1)	3,219 (16.7)	3,265 (23.7)
무역수지	-551	-487	-465	161	413	196	-370

자료 원: KOTIS

2) 프랑스 통계 기준 시

프랑스의 대한(對韓) 수출증가율이 '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해마다 증가한 것은 동 기간 내내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연도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무역 수지
2007.8	232,093	2.5	251,614	3.7	-19,308
2006	390,338	9.2	416,713	9.9	-26,375
2005	357,401	4.6	379,340	9.6	-21,939
2004	341,583	5.7	346,269	7.5	-4,686
2003	323,210	-2.2	322,067	-1.0	1,143
2002	330,487	-0.4	325,307	-1.9	5,180
2001	331,935	1.9	331,446	0.5	489
2000	325,711	14.6	329,907	22.3	-4,196
1999	284,135	3.2	269,832	6.0	14,303

자료 원: 프랑스관세청(FOB/FOB 기준)

한국, 프랑스의 24대(2006년)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명	2006년 수출액	증감률	구성비	순위	2006.8- 2007. 7	구성비
1	독일	55,298	7.8	14.5	1	58,166	14.8
2	스페인	37,597	4.8	9.9	2	37,886	9.6
3	이태리	34,658	6.9	9.1	3	36,883	9.3
4	영국	32,434	3.6	8.5	4	33,398	8.5
5	벨룩스	29,851	5.4	7.8	5	31,540	8.0
6	미국	26,412	5.7	6.9	6	25,341	6.5
7	네덜란드	15,720	8.5	4.1	7	16,555	4.2
9	중국	8,085	39.3	2.1	8	11,177	2.8
8	스위스	10,419	2.0	2.7	9	10,531	2.7
10	일본	5,698	5.2	1.5	11	5,971	1.5
24	한국	2,887	21.3	0.8	미상	미상	미상

자료 원: 프랑스 관세청

한국, 프랑스의 2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명	2006년	증감률	구성비	순위	2006.8- 2007. 7	구성비
1	독일	66,388	2.7	15.7	1	73,010	16.7
2	벨룩스	36,792	11.5	8.7	2	38,486	8.8
3	이태리	35,679	5.5	8.5	3	38,265	8.7
4	스페인	28,959	5.4	6.9	4	30,906	7.1
6	미국	25,323	11.3	6.0	5	26,005	5.9
7	중국	23,975	13.9	5.7	6	27,452	6.3
5	영국	25,868	13.5	6.1	7	24,605	5.6
8	네덜란드	17,237	6.3	4.1	8	18,098	4.1
9	일본	10,282	-1.5	2.4	9	10,222	2.3
10	스위스	9,461	7.5	2.2	10	9,826	2.2
15	한국	4,159	13.9	1.0	20	3,907	0.9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 주요 대불(對佛) 수출 품목

2007년 1~8월 기간 중 5대 對佛 수출 품목(무선 전화기,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냉장고, 편직물) 가운데 무선전화기(43.3%), 냉장고(8.6%) 및 편직물(105.1%)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및 평판 디스플레이는 각각 0.9% 및 34.8% 감소했다.

동기간 대불 수출 금액 순으로 12위 및 36위를 차지한 유선 전송장치 및 기타 유선 통신 기기는 각각 33배 및 23배의 높은 증가율 기록했다.

□ 대불(對佛) 수출 증가 품목

- 49대 수입품목 가운데 39개 품목이 금년 1~8월 중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 이 가운데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은 편직물(105.1%), 집적회로 반도체(597.5%), 유선전송장치(3,238.4%), 보조기억장치(153.5%), 철강선(124.7%), 금속 절삭가공기계(168.8%), 의약품(339.4%), 기타석유화학제품(154.9%), 세탁기(207.2%), 기타 유선통신기기(2,223.4%) 및 합성고무(160.5%) 등 11개 품목이다.

□ 대불(對佛) 수출 감소 품목

- 49대 주종 수입품목 중 금년 1~8월 중 대불 수출이 감소한 10개 품목은 승용차(-0.9%), 평판 디스플레이(-34.8%), 기타 플라스틱제품(-5.7%), 필름류(-1.4%), VCR(-39.0%), 섬유 기계(-29.8%), 다이아몬드 공구(-6.3%), 비디오 카메라(-48.7%), 무선 교환 및 중계기(-62.9%) 및 칼라 TV(-58%)이다.

한국의 100대 對佛 수출 품목

(단위: 천 불, %)

연도별			2006		2007(1월~10월)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수출	3,415,467	7.7	2,895,211	-1.6
1	8121	무선 전화기	903,770	-3.5	1,153,900	45.9
2	7411	승용차	749,597	-6.4	549,261	-6.6
3	8361	평판 디스플레이	189,699	264.7	145,219	-14.9
4	8230	냉장고	63,981	-6.9	54,721	2
5	4360	편직물	38,968	-6.1	52,138	71.7
6	8311	집적회로 반도체	12,724	112.3	51,771	592.7
7	7472	항공기 부품	43,163	-2.4	43,477	27.3
8	4411	편직제 의류	31,158	-17.2	41,324	71.8
9	7461	선박	497,504	58.8	41,010	-91.8
10	3203	타이어	41,908	39.3	40,452	11.4
11	7420	자동차 부품	29,995	-16.2	32,094	31.9
12	8128	무선 통신기기 부품	28,206	33.3	29,151	31.3
13	2140	합성수지	28,212	52.2	28,694	32.9
14	7131	공기 조절기	21,482	62.9	26,682	39.7

15	8113	유선 전송장치	988	116.6	25,739	3,081.4
16	3109	기타 플라스틱 제품	20,419	1.1	16,566	-3.1
17	4392	타이어 코드	8,126	-40.7	13,339	100
18	4222	폴리에스테르 사	11,965	1.2	12,615	32.1
19	4490	기타 섬유 제품	15,273	-2.4	12,560	-1.8
20	7112	펌프	10,662	53.7	12,401	51.2
21	3103	필름류	14,025	54.4	11,704	-4.3
22	7211	섬유기계	22,262	77.6	11,550	-25.9
23	2289	기타 정밀 화학 원료	16,504	0.9	11,372	-12.4
24	8241	세탁기	2,809	3.6	10,655	306.6
25	8213	VCR	19,556	5.4	10,522	-40.8
26	8132	보조 기억 장치	3,886	5.8	10,315	165.4
27	2190	기타 석유화학 제품	3,725	390.0	10,264	200.3
28	7521	고속도강 및 초경 공구	8,301	4.5	10,212	57.1
29	6142	철강선	6,956	24.2	10,191	73.8
30	7431	이륜차	9,381	-13.4	9,951	19.2
31	7412	화물 자동차	8,981	-10.8	9,917	64.4
32	8119	기타 유선통신기기	598	41.5	9,880	2,500.1
33	7231	금속절삭 가공기계	5,020	40.0	9,508	113.6
34	4342	폴리에스테르 직물	8,527	-43.0	9,199	32.8
35	8315	실리콘 웨이퍼	11,083	164.6	9,187	8.9
36	7523	다이아몬드 공구	10,554	16.4	9,186	5.4
37	8245	진공청소기	4,611	-17.5	8,544	122
38	2262	의약품	2,566	-53.8	8,443	333.8
39	2150	합성고무	3,982	-17.4	8,237	219.3
40	8242	에어컨	7,592	-40.3	8,001	19
41	8134	모니터	4,926	-78.5	7,687	68.3
42	7111	원동기	5,034	18.1	7,517	77.3
43	7331	의료용기기	6,198	35.0	7,321	51.1
44	8127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33,941	20.3	7,157	-68
45	8214	비디오 카메라	23,568	46.1	7,055	-65.5
46	5151	장신구	8,502	14.3	7,011	5.9
47	7531	프레스 금형	7,633	39.4	6,954	22.8
48	8254	전자 레인지	8,633	38.2	6,943	-9.5
49	8500	전선	5,387	160.4	6,287	40.2
50	8211	칼라TV	15,887	-31.7	6,091	-60
51	8261	전구	4,649	15.4	5,730	57.1
52	7251	건설 중장비	5,746	8.4	5,601	33.8
53	8115	유선 통신기기 부품	1,197	-34.1	5,449	457.8
54	8124	TV 카메라 및 수상기	6,704	8.4	5,137	-8.3
55	8343	인쇄 회로	20,744	-24.9	4,934	-73.8
56	7512	밸브	5,834	-0.9	4,655	-15.5
57	8412	전동기	2,572	-47.8	4,590	111.8
58	6143	연선 및 와이어로프	3,433	40.1	4,568	66

59	8390	기타 전자 부품	5,258	0.6	4,482	0.3
60	8147	의료용 전자기기	4,185	-36.9	4,113	25.2
61	1336	윤활유	1	-97.7	3,994	766,480.0
62	6222	동조 가공품	1,741	-21.4	3,956	144.8
63	9412	안경테	3,273	18.0	3,661	43.2
64	7511	볼트 및 너트	3,147	72.9	3,437	33.4
65	9413	안경 렌즈	2,891	-8.5	3,274	35.5
66	5900	기타 생활용품	2,597	-17.7	3,236	47.9
67	6133	냉연강판	2,433	9.8	3,174	36.9
68	8126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6,833	-36.3	3,147	-46.2
69	2212	안료	3,417	-17.8	3,117	9
70	8131	컴퓨터	17,461	306.2	3,084	-81.5
71	8136	컴퓨터 부품	2,522	-11.6	3,048	39.2
72	8352	축전지	2,133	-11.2	2,955	61.8
73	2261	농약	38	-88.3	2,833	19,522.1
74	7152	광학기기 부품	3,013	-45.2	2,815	0.1
75	7515	전동 축 및 기어	4,806	14.7	2,763	-32.2
76	4111	폴리에스테르 섬유	1,642	-38.5	2,740	109.1
77	8334	계전기	498	50.8	2,638	980.5
78	8151	계측기	1,735	-46.2	2,581	89.3
79	7532	플라스틱 금형	3,389	237.7	2,567	-23.7
80	7519	기타 기계 요소	5,127	112.2	2,509	-38
81	7419	기타 자동차	1,662	-51.0	2,452	58.6
82	8135	컴퓨터 주변기기	971	-21.6	2,446	287.3
83	3209	기타 고무제품	1,981	16.2	2,442	75
84	8153	자동 제어기	109	37.1	2,361	23,446.1
85	6134	아연 도강판	2,173	-61.2	2,321	7.9
86	8423	배전 및 제어기	4,875	-1.8	2,274	-36.2
87	8499	기타 충전기기	3,528	57.9	2,268	-23.4
88	4399	기타 직물	4,791	-16.0	2,038	-50.1
89	5152	화장용품	2,732	-10.6	2,025	-14.0
90	9620	귀금속 장식품	2,860	-26.2	1,973	-8.8
91	5790	기타 공예품	2,044	116.9	1,961	13.8
92	6171	주단 강	481	-58.2	1,924	424.8
93	2900	기타 화학공업 제품	1,665	-23.6	1,885	33.9
94	7149	기타 사무기기	2,209	131.1	1,843	-2.5
95	8224	컴포넌트	2,672	75.1	1,831	-11.1
96	2275	화장품	1,685	-26.7	1,758	17.6
97	8351	건전지	1,707	-9.4	1,747	60.1
98	7901	기타 기계류	1,869	2.0	1,743	7.0
99	0134	식물성 액즙	91	-45.3	1,734	1,850.6
100	6900	기타 철강금속 제품	1,857	11.3	1,730	4.4

자료 원: KOTIS (MTI 4단위 분류)

주: 순위는 2007년 10월말 기준

▣ 주요 대불(對佛) 수입 품목

2007년 1~8월 기간 중 한국의 對佛 5대 수입 품목(의약품, 화장품, 집적회로 반도체, 펌프 및 밸브) 가운데 의약품만 감소세(19.7% 감소)를 기록했고 9.1% 증가한 화장품 외의 3개 품목은 모두 35%내지 13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수입증가품목

- 49대 수입품목 가운데 금년 1~8월 중 대불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40개이다.
- 동 기간 중 대불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한 품목은 밸브(136.8%), 화학기계(189.7%), 기타 산업기계(163.2%), 우주선 부품(2,065.8%),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161.7%), 금속절삭 가공기계(172.2%), 합성수지제 가방(1,269.7%), 그림(565.6%), 기타 전자 응용기기(21,389.6%), 공기 조절기(652.2%), 운반하역기계 부품(2,879%), 농약(117.8%), 기타 요업제품(265.8%) 및 운반 하역기계(144.1%) 등 14개이다.

□ 수입 감소 품목

- 49대 주종 수입품목 가운데 금년 1~8월 중 대불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의약품(-19.7%), 기타 화학공업제품(-24.9%), 합성수지(-22%), 기타 섬유제품(-39.8%), 계측기(-54.5%), 원동기(-57.6%), 귀금속 장식품(-36.8%), 기타 플라스틱 제품(-10.2%) 및 알루미늄 조 가공품(-18.8%) 등 9개이다.

2007년 10월말 100대 수입 품목별 대불 수입 실적

(단위: 천 불, %)

연도별			2006		2007(1월~10월)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19,385	16.7	3,264,577	23.7
1	2262	의약품	277,061	62.8	188,855	-13.5
2	2275	화장품	168,474	15.1	154,148	8.9
3	8311	집적회로 반도체	132,711	4.5	153,136	36.4
4	7112	펌프	109,734	5.3	147,250	58.9
5	7512	밸브	62,442	7.5	113,985	120.8
6	6133	냉연강판	70,737	33.4	104,138	84.3
7	7420	자동차 부품	101,194	15.2	101,788	25.9
8	2289	기타 정밀화학 원료	82,633	-0.8	87,061	29.3
9	8128	무선 통신기기 부품	73,315	34	79,976	38.1
10	2290	기타 정밀화학 제품	62,619	-2.3	74,793	31.4
11	0221	가축 육류	75,099	15.7	67,784	12.7
12	0157	주류	48,314	16.2	60,758	56.4
13	2900	기타 화학공업 제품	77,176	33.1	55,422	-16.1
14	7411	승용차	39,637	68.5	54,149	85.9
15	7290	기타 산업 기계	29,027	4	46,003	110
16	7216	화학 기계	27,078	-13.3	45,231	143.1

17	2140	합성수지	59,097	-2	42,671	-17.8
18	6222	동조 가공품	37,760	279.8	40,721	41.4
19	8423	배전 및 제어기	43,773	33	39,938	14.5
20	5132	가죽제 가방	31,649	40.8	38,375	48.9
21	7482	우주선 부품	2,648	75.6	35,635	1,822.00
22	8127	무선 교환기 및 중계기	31,162	161.9	31,976	47.6
23	7111	원동기	55,575	106.8	30,974	-41.2
24	5133	합성수지 제 가방	2,599	208.5	30,101	1,465.40
25	9210	그림	8,080	89.1	29,945	544.7
26	7901	기타 기계류	24,327	7.4	28,299	46.7
27	7231	금속 절삭 가공기계	10,077	120.7	27,675	186.8
28	4490	기타 섬유제품	55,330	37.2	26,879	-40.3
29	8151	계측기	66,804	118.5	26,355	-54.1
30	7122	운반 하역 기계 부품	903	-4.7	24,958	3,832.70
31	4412	직물제 의류	26,927	22	24,695	8.8
32	0243	낙농품	20,925	30.3	24,065	39
33	9620	귀금속 장식품	42,243	68.5	23,742	-36.3
34	2529	기타 종이 제품	27,346	-0.8	23,502	6.3
35	6132	열연강 판	14,323	1,721.90	22,700	144.7
36	7472	항공기 부품	26,487	18.1	21,629	18.6
37	6219	기타 알루미늄 제품	20,506	-3.8	21,396	21.4
38	3109	기타 플라스틱 제품	25,287	35.6	19,944	-7.6
39	7513	베어링	19,509	17	19,502	25.9
40	8149	기타 전자 응용기기	174	-97	17,353	12,468.70
41	6212	알루미늄 조 가공품	19,683	-8.2	16,711	-5.3
42	2230	접착제	1,298	3.7	16,449	1,396.90
43	7131	공기조절기	2,921	-78.6	15,743	586
44	8155	분석 시험기	16,359	1.2	15,688	13.4
45	7121	운반 하역 기계	8,419	-65	15,643	96.2
46	8342	연결부품	14,947	15.6	15,206	25.4
47	2261	농약	11,330	-3.3	15,118	78.5
48	3209	기타 고무제품	15,557	12.6	15,116	27.8
49	7331	의료용기기	17,398	-0.1	14,744	8.9
50	2490	기타 요업제품	5,410	-42.9	14,290	221.6
51	8499	기타 충전기기	9,318	-2.2	14,221	90.3
52	6172	주철	14,251	11.8	13,490	9.9
53	8115	유선통신기기부품	1,195	14.1	13,413	1,335.20
54	8146	X선 및 방사선 기기	14,969	71.6	13,352	7.5
55	8153	자동제어기	13,403	1.9	12,546	33.1
56	8500	전선	8,788	-37.2	12,358	79
57	732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14,849	19.3	12,295	8.2
58	6232	니켈 조 가공품	11,406	-6	11,498	25.2
59	2150	합성고무	13,646	49.2	11,403	8.5
60	0131	식물성유지	11,870	134.3	11,366	45.4

61	8424	변환 및 안정기	9,828	-29.7	11,350	81.4
62	0152	초코렛 및 코코아 조제품	12,173	47.2	11,304	15
63	8141	교통신호기	16,224	-39.5	11,234	-28.2
64	6213	알루미늄 구조물 및 용기	9,352	136	11,195	70
65	6141	철강관	44,821	26.9	11,108	-72.6
66	8147	의료용 전자기기	8,356	8.1	10,729	75.7
67	7274	인쇄 기계	1,891	-75	10,523	539.6
68	2240	표면 활성제	11,650	-15	10,279	7.5
69	8412	전동기	14,302	1.1	10,176	-19.2
70	0451	어육	5,552	147.6	10,091	155.9
71	4411	편직제 의류	10,218	14	10,021	9.3
72	0136	사료	10,864	69.2	9,926	25.8
73	2437	유리 식기 및 장식품	11,496	20.2	9,850	-3
74	245	단백질류	9,234	-12.6	9,629	30.3
75	2710	마찰제품	11,908	35	9,614	-6.7
76	6231	니켈 코 및 스크랩	3	-64.3	9,198	328,280.4
77	7471	항공기	26,488	47.3	8,744	-48.4
78	7902	기타 기계류 부품	16,711	143.4	8,559	-41.1
79	3203	타이어	10,122	-12.8	8,495	-3.1
80	2120	석유화학 중간 원료	1	-99.9	8,478	747,555.2
81	0142	효모류	9,044	14.9	8,356	8.9
82	8352	축전지	3,878	40.9	8,231	202.9
83	6131	중후판	5,521	-12.4	7,977	123.6
84	1334	나프타	0	-	7,957	-
85	7149	기타사무기기	4,167	163.9	7,865	109.7
86	7442	철도차량 부품	4,936	-25.3	7,823	121.8
87	2212	안료	7,779	0.6	7,671	18.5
88	2190	기타 석유화학 제품	12,213	-18.6	7,644	-29.4
89	8259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9,471	-35.3	7,637	-4.4
90	0134	식물성 액즙	7,838	-3.5	7,629	12.6
91	2511	펄프	4,749	1,531.60	7,584	90.6
92	5151	장신구	10,213	27.9	7,496	-5.7
93	7321	반도체 제조용 장비	7,118	-8.2	7,488	56.8
94	8425	원자로 및 전기로	6,499	-22.2	7,482	31.5
95	6122	봉강	10,242	-7.5	7,272	-22.7
96	8421	변압기	6,715	-23.2	6,939	16.2
97	9509	기타 의료 위생용품	6,542	-15.4	6,856	33.4
98	8113	유선 전송장치	15,143	369.2	6,679	-53
99	0165	빙과류	7,756	26.9	6,607	7.2
100	7519	기타 기계요소	7,444	-17.3	6,607	21.3

자료 원: KOTIS (MTI 4단위 분류)

(순위: 2007년 10월말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 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입수 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관세 제도

벨기에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 교역관련 주요 법규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사이트(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 무기, 위험 폐기물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벨기에를 비롯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다. EU의 수입 규제 동향

프랑스는 EU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 우회덤핑방지 조사강화

- EU 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 이러한 EU의 우회덤핑방기관세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WTO 반덤핑 협정이 조사당국의 개별적 덤핑 및 피해 판정 없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의 우회덤핑방지 관세제도는 개별덤핑산정 과정을 결여하고 있고 조사 기간 동안의 피해 판정도 생략하고 있다.
 - EU의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역외 국으로부터 우회반덤핑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하고 부품 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 비용이 수출국에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EU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2007.12.10일 기준)

- 총 5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이중 한 품목(철강제관 연결구류)은 반덤핑 재심 조사 중이다.
- 또한 1개 품목(DRAM)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1999.10.7	2000.12.28	- 05.5.27, 향후 5년간 지속 결정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각 6% - 기타업체 10.6%
PET칩	3907.6020, ex3907.6080	반덤핑	99.11.6	00.11.30	- 05.12.1 재심 개시 - 07.2.27 확정관세 부과 결정 - SK케미컬, 휴비스, 호남 석유 화학, KP 케미컬은 무세, 기타 업체는 148.3유로/t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9.1	- 대우 3.4%, LG 12.2%, 삼성 무세 - 삼문형은 제외
실리콘	2804.69	중국산 우회덤핑	06.4.21	07.1.19	- 우회 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 측에 제출기로 함 - 09.3.5일부로 종료예정
철강제관 연결구류	ex7307 9311, ex7307 9319, ex7307.9930, ex7307 99 90	반덤핑	01.6.1	02.8.25	- 반덤핑 확정관세율 44% - 07.8.18일부로 재심 조사 중
DRAM	8542.2111,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상계관세	02.7	03.8	- 상계관세율 32.9%

- 폴리에스테르 단 섬유(PSF)
 - 제 소 일: 99. 8. 23
 - 조사개시: 99. 10. 7
 - 제 소 자: CIRFS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
 - CN 코드: 5503.20
 - 품목용도: 쿠션, 자동차 시트 등의 기초재료

93. 11	○ 한국산에 대하여 1.6-4.8%의 반덤핑 관세 부과
97. 10	○ 반덤핑 재심을 개시하였으나 99. 7. 29일 한국산 덤핑 마진이 1.8%로 미소마진 종료
99. 10	○ 한국, 인도산 반덤핑 조사 개시
00. 7. 6	○ 한국산에 대해 0-20.2%의 잠정관세 부과
00.12.28	○ 한국산에 대해 0-20.2% 확정관세 부과 - 대한화섬, 성림: 0%(미소마진) - 휴비스, SK 글로벌: 각각 4.8%, 기타: 20.2%(새한 등)
03.12.8	○ 중간재심 통보(12.29 관보게재)
04.1.14	○ 샘플링기업으로 대한, 휴비스, 성림 3개사 선정 발표
04.3-4월	○ 04.3.12 대한의 대응포기로 (주)새한으로 대체(집행위) - 새한에서 4.29 답변서 제출(휴비스, 성림 3월 기제출)
04.7.29-8.13	○ 집행위 현장실사(휴비스, 새한인더스트리, 성림)
04.9.23	○ 공청회 개최(벨리스 변호사측에서만 참석)
04.12.7	○ 최종안 발표 - 성림 0%, 휴비스 5.7%, 새한인더스트리 10.6% 동우, 이스트영, 경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각 6% 기타업체 10.6% * 대만업체는 미소마진
05.3.17	○ 관보고시(04.12.7 발표내용과 동일)
05.4.4	○ 별도재심관련 Kellner 부과장 면담(상무관)
05.4.19	○ 05년 말 종료기로 관보게재
05.5.27	○ 4.19 관보정정(3.17자 관보대로 향후 5년간 적용)
05.12.22	○ LMP 제외관련 부분중간재심개시관보(C325)
06.4.28	○ 새한인더스트리 Hearing
07.4.11	○ LMP제외관련 부분중간재심 결과 (L96) : 제외 불가

○ PET 칩 (페트병, 페트필름, 폴리에스텔 제조원료)

- 제 소 일: 99. 9. 22
- 조사개시: 99. 11. 6
- 제 소 자: EU 플라스틱 제조업 협회
- CN 코드: 3907 60 20, ex 3907 60 80
- 품 목 명: 점착성 173mg/l 이상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99. 11. 6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및 태국산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동시 조사 개시
00. 8. 5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산 PET 칩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 상계관세의 경우 한국산 PET 칩은 보조금 마진이 0.04-0.46%에 불과해 조사 종료. 그러나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4개국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00. 11. 30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EUR/t) - 호남 101.4, 동국 148.3, 대한 28.2, SK 케미칼 0, 기타업체 148.3
03. 5. 22	○ 한국, 대만산 반덤핑 재심개시(EU플라스틱제조업체요청)
04. 3.22-4.6	○ 대한화섬, KP 케미칼, SK 케미칼 3개사 현장실사
04. 8.27	○ 3개 실사기업에 대해 미소마진(중간보고서)
04. 11.26	○ 최종결과 발표(05.1.21 관보게재) - 3개 실사기업 0%, 호남, 동국 및 기타업체 이전과 동일
05. 3. 2	○ 05.12.1부터 종료예정 관보공고
05.12.1	○ 종료재심 및 대한화섬, KP 케미칼, SK 케미칼 3개사에 대한 부분중간재심 실시공고
07.2.27	○ 부분중간재심 결과 (EUR/t) SK케미칼,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칼은 0 나머지 업체는 148.3EUR/t

○ 양문형 냉장고

- 제 소 일: 05.4.18
- 조사개시: 05.6.2
- 제 소 자: Whirlpool사
- 평균덤핑마진율: 43% 주장
- 대상품목: 400리터 초과 양문형 냉장고
- CN 코드: 8418 1091

05.4.18	○ 제 소
05.6.2	○ 조사개시(관보게재)
05.6.6	○ 대표부에 제소장 및 질의서 사본 도착 - 집행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에 6.2일 기준 40일 내에 질의서를 회신토록 요청
05.7.25	○ 답변서 집행위 제출
06.3.1	○ 집행위 잠정관세 관보게재(3.2일부 시행) · 삼성전자 4.4%, 대우전자 9.1%, LG전자 14.3%
06.4.26	○ 삼성전자 Hearing
06.5.11	○ LG전자 Hearing
06.5.31	○ 대우 일렉트로닉스 Hearing
06.8.31	확정관세부과 (대우 3.4%, LG 12.2%, 삼성 0%), 삼문형 제외

○ 철강제 관 연결구류

- 제 소 일: 01. 4. 17
- 조사개시: 01. 6. 1(규제개시일: 02. 8. 25)
- 제 소 자: Defence committee of EU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 피제소국: 체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한국, 슬로바키아
- CN 코드: ex7307 9311, ex7307 9319, ex7307.9930, ex7307 9990
- 품 목 명: tube and pipe fittings(other than cast fittings, flanges and threaded fittings) of iron or steel, with a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609.6mm

01. 6. 1	○ 반덤핑 조사 개시
02. 2. 7	○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슬로바키아산 잠정관세 부과
02. 8.24	○ 확정관세 부과(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02.12.11	○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으로 반덤핑관세 지속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공개 요청
03. 5. 8	○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 부과로 반덤핑관세율 단계 인하 - 인하율: 03.28 일까지 20.3%, 03.3.29-04.4.28일까지 22.7%, 04.4.29-05.2.28일까지 24.8%

○ DRAMs

- 제 소 일: 02.6.10
- 조사개시: 02.7.25
- 제 소 자: 인피니온 (Infineon, 독일)
- 대상품목: DRAM 및 파생품
- CN 코드: 8542.2111,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93. 3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제소자: 유럽전자부품 제조협회
-	○ 95. 6 - 97. 3월간 일시적으로 반덤핑 조치 부과정지
97. 4	○ 반덤핑 조치 재도입
97. 11. 25	○ 제소자의 제소 철회를 이유로 반덤핑 조치 종료
02. 7. 25	○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개시
03. 4. 24	○ 잠정상계관세 부과 - 삼성전자: 무세, 기타 업체 33% - 적용시기: 03.4.24일부터 4개월간
03. 5. 8	○ 세이프가드/반덤핑관세 동시부과로 관세율 단계 인하 - 03.3.28일까지 20.3% - 03.3.29 - 04.4.28일 22.7% - 04.4.29 - 05.3.28일 24.8%
03. 8.22	○ 34.8% 확정관세 부과
04. 1.23.	○ WTO 분쟁해결기구 의제상정
04.8.24 일정확정	○ 04.5월, 6월 양측 서면입장서 제출 ○ 04.11월, 12월 1차, 2차 패널회의 ○ 05.3.15 중간보고서 배포 ○ 05.4.19 최종보고서 배포 ○ 05.6.17 WTO 회원국 회람 ○ 05.8.3 상소기한(양측 상소 안 함)
06.2.24	○ 양자협상 개시(중간재심개시관련)
06.3.18	○ 부분중간재심 실시 관보게재(C67)
06.4.12	○ 34.8%에서 32.9%로 하향조정

□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품 목	내 역	집행위 공고
Polyethylene Terephthalate	부분중간재심※	L59 2007.02.27 p.1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	관세 부과 연장	L13 2007.01.19 p.1

주: 부분 중간 재심 결과 SK케미컬,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컬은 0, 나머지 업체는 148.3EUR/t 관세 부과.

3) 2008년 상반기 수입규제 전망

□ 통상정책 방향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 EU 의 통상정책, 규정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 EU 는 27 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공동통상정책 (Common Trade Policy)을 취하고 있으며, 무역부문 평균관세율이 4 % 에 불과한 가장 개방된 경제권 중 하나이다.
- 2006.10월 EU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을 발표하고, 새롭게 전개되어 가는 글로벌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유럽의 성장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 2006.12월에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적법하게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 이른바 '개방의 효용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무역규제수단을 사용. 특히, 반덤핑 관세는 현재 평균 5년인 부과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도 축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 한편, 경쟁력이 낮은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세 혜택 부여보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유도하며, 관세도 해당 국내기업들에 적응기간을 부여 하는 수준에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 2007년 4.23일에는 EU 각료이사회로부터 한국, 인도, ASEAN 등 신흥성장국가와의 FTA 협상 권한을 승인 받은 후 한국과 가장 먼저 1차 협상을 진행(5.7 ~ 11) 중이다.
- 국내 보호주의적 무역조치를 지양하고 특히 교역대상국의 시장개방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 한편, 차량 CO₂ 배출 제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등 환경과 무역정책 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환경과 관련된 EU의 기술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지 진출 업계(11개사)를 통해 파악되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 추가적용 예상 품목은 없다.
- 최근 3년간 대 EU 수출 증가율이 급상승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제품(MTI 836)에 대해서는 EU 국내기 업의 반덤핑 조사 제기 가능성이 있다.
- 2005년 대 EU 수출액이 1,372 백만 달러로 전년(455백만 달러)대비 201.6 % 수출 증가율을 기록, 우리나라 대 EU 수출품목 중 6 위 차지
- 2006년에도 3,132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28.3% 급증, 전체 수출품목 순위가 4위로 앞당겨졌다.

5. 관세 제도

가. 개황

프랑스도 여타 EU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프랑스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 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반면에 EU 산업에 민감한 완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 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 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 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 히 분류 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 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프랑스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9.6%가 정상 세율이며 식료품 및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5.5%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등)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세율이 상이한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6. 주요 인증 제도

가. CE Mark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해당 EU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후 이를 입증하는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만 한다. 이 선언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혹은 해당 통지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CE Mark는 제품의 안전과 사용자의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EU규정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표시이며 EU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증명서(비자)’라고 할 수 있다. CE는 불어로 Communauté Européenne의 약자로 유럽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CE Mark제도 의미는 아래와 같다.

-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통일
- EU내 물품이동 장애요소 제거
- EU 규정에 의한 국가간의 상이한 규정 대치
- 각국간의 테스트 인증서 인정

단, CE Mark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건 등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대상품목

CE Mark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EU 규정). 제품의 제조 및 특성상 EU 규정 요구 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물건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유통되기 전에 CE-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50~100 볼트 전압을 사용하는 저전압 기기 (72/23/EEC)
- 프린터잉크 (87/404/EEC)
- 장난감 (88/378/EEC)
- 건축자재 (89/106/EEC)
-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89/336/EEC)
- 개인보호장비 (89/686/EEC)
- 비자동 저울 (90/384/EEC)
-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AIMD)
- 가스기기 (90/396/EEC)
- 유체 및 가스 연료 사용의 온수 보일러 (92/42/EEC)
- 민수용 폭약 (93/15/EEC)
- 의료기기 (93/42/EEC, MDD)
- 방폭제품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94/9/EC)
- 레크레이션 선박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94/25/EC)
- 승강기 (95/16/EC)
- 프린터 (97/23/EC)
- 산업용 기계류 (98/37/EC)
-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product: 98/79/EC, IVDD)
- 무선기기와 텔레 커뮤니케이션 설비 (98/5/EC)
- 케이블카 (2000/9/EC)
- 측량기기 (2004/22/EC)

□ CE 마크 취득 절차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4단계를 통해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 적합성 테스트 (conformity assessment) 실시
- 제조기술 파일 (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출
- 적합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마크 부착

CE마크 취득을 위해 아래와 같은 8가지의 모듈 (module) 방식이 있다.

- 모듈 A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선언한다. 선언 후 적합선언서를 작성하고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한다.
- 모듈 B (EC type-examination)
 -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연구소(통지기관: notified body)는 형식 테스트(type examination)를 실행, 이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EU 국가별 통지 기관 리스트:
 -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 모듈 C (conformity to type)
 - EU형식 테스트 확인서를 취득한 뒤에 (모듈B) 제조업자가 제품이 확인서에 기재된 형식과 일치 한지 또는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선언한다. 선언 후에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D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모듈B에 의거, 제조공정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품 제조 시 수시로 품질시스템 심사 (예: EN/ISO 9002)가 실시된다. 그런 다음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E (product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품질시스템 심사 하에 (예: EN/ISO 9003) 제품을 생산하고, 모듈 B에 의거해서 제품이 EU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한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F (product verification)
 - 제조업자가 모듈B에 의거해서 생산된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통지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형식 테스트에서의 type과 일치함을 검사한다. 검사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G (unit verification)
 - 통지기관이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각 테스트마다 보고서가 작성된다. 테스트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모듈 H (full quality assurance)
 -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최소한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지기관으로부터 감시하도록 한다. 제조업자는 자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제품이 EU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 후 적합선언서가 작성되고, CE Mark가 부착된다.

□ CE 마크 부착

-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오른쪽과 같은 마크로 도식되어야 한다.
-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마크는 제품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기관 인식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 통용 지역

- CE-마크는 EU국가와 EFTA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 국가이지만, 유럽경제구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므로 CE-마크 의무국가는 아니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 용품: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유탄유: 유탄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소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기관 -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 에너지라벨링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GEEA 	○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 라벨 사용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 (19품목)

▶ Energy 2000	
	○ 개요 - 대기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 (15품목) -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그 외의 인증제도

- CE-마크 획득 이후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제품별 인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필수인증이 아니어도 제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품질증명인증이나 환경 비오염 제품증명서 등 관련 제품에 도입된 규격 사양들을 조사, 획득하면 상품마케팅에 유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도입, 적용되고 있는 인증절차를 대리해 주는 회사를 고용, 요청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 프랑스 규격제도 위원회 AFNOR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의 홈 페이지 www.afnor.org에서 제품별로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규격 리스트를 확보 할 수 있다.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제품들은 별도로 프랑스 건강, 의약품 보건소(AFSSAP: 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의 기관으로부터 시장판매허가증, AMM (Autorisation de mise sur le marche)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법규는 발명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1951년도에 설립된 프랑스 특허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나. 상표권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단어, 로고, 상징, 음성 등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통상적으로 해당상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
- 제품의 질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예) 스웨터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PURE LAINE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 기존에 사용 중 이거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표기상의 유사성과 함께 발음상의 유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며, 실질적인 의미가 동일하여 제3자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불가
 - 예) BACARA라는 상표가 있는 경우 BACCARA 상표 등록불가
- 상표 등록의 당사자
 - 상표 등록은 상표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프랑스의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짐
 - 변리사의 선정여부는 프랑스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음 두 가지의 경우 반드시 변리사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함. (여러 사람의 공동 명의로 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프랑스에 등록된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
- 상표심사 처리절차 및 소요기관
 - 상표의 등록은 프랑스 특허청이나 사업자등록소(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한 상표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3개월 가량 소요됨

다. 의장권

프랑스의 의장권은 1909.7.14일에 제정된 의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지난 79년 1월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프랑스 의장법상 주요 내용은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5년 (50년까지 연장 가능)
- 무심사주의 채택, 등록 표시 불요, 위반에 대한 제재
 - 형사상: 최하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의 징역이나 12,000프랑의 벌금
 - 기 타: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위조 상품 및 생산 장비 압수, 손해 배상 및 판결 내용 공고 조치

라. 특허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곳으로는 파리와 8개 대도시에 소재한 프랑스 특허청이다. 특허권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특허 분쟁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모두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국이므로, 프랑스에 특허등록을 희망할 경우 한국의 특허청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 분쟁 시 처리방법
 - 경쟁업체가 특허권을 취득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경쟁업체의 특허에 대한 악선전 또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특허를 출원한 경쟁업체의 직원을 빼앗아 오는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 발생시 프랑스 상사재판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특허권 침해시 1차적으로 경범 재판소에서 형사범으로 취급되며, 경범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시, 최고 2개월의 징역이 언도된다. 경범재판소의 판결 후 징역보다 벌금을 선호할 경우에는 상사재판소(Tribunal de Commerce)로 이관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적 창조, 도표, 지적 활동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원칙론이나 방법론, 놀이(games), 소프트웨어, 정보제시 방법은 특허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럽 특허권 획득에 드는 비용은 특허 세, 번역,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약 25,000불의 비용이 든다.

마. 저작권

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는 재산권과 윤리권(ethical right)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화폐적인 이득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권리는 작가의 생존기간 동안, 작가 사후 50년간 상속인이 동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윤리권은 문학이나 예술적인 작품의 비 재정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되고 생존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으며 영속적으로 작가와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한편 프랑스는 지적소유권에 있어서도 EU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따르고 있어 문화방면에 있어서 음반 50년, 서적, 영화 등은 70년간 저작권을 보호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선 T.V 신청 시 시청료에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반, 공 카세트 테이프, 공 CD, 외장형 하드 디스크, MP3, 3G 휴대폰 판매 가격에도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다. 프랑스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물품(EU 역 외국 물품을 의미)은 프랑스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동 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프랑스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통관절차 흐름도

출항→입항→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보세구역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납부

2) 구비서류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프랑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수입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대상의 야생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19.6%)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4)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관세부과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프랑스 경우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나. 운송

프랑스의 2대 국제 항구는 르아브르 및 마르세이유이다.

□ 르 아브르(LE HAVRE) 항

프랑스 최대 컨테이너 운송항 및 유럽 5대 항

- 2006년도 운송 현황
 -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량: 213만 대(프랑스 전체의 60%)
 - 프랑스 원유 수입량의 40% 운송
 - 유럽 5대 화물 운송 항: 총 75백만 톤(답보)
 - 2006년도 입항 선박 수: 6,180척
 - 여행객 수: 823천 명으로 전년비 9.6% 증가
- 주요 상품별 운송 동향
 - 총 운송량: 75백만 톤(2005년도 수준 답보 상태)
 - 원유 및 정제된 석유제품 등 액체 상품 벌크 운송량은 47.6백만 톤(전체의 64%)으로 전년비 1.6% 증가
 - 석탄(1.8백만 톤) 등 고체 상품 벌크 운송량은 3.7백만 톤(전체의 6%)
 - 기타 잡제품 운송량은 22.6백만 톤(전체의 30%)으로 전년비 3.1% 감소

최근 연도 별 및 화물별 운송 현황

(단위: 톤, 명)

구분	화물 별	05년 12월	04년 12월	증감률	2005년	2004년	증감률
수입	원유	3,184,246	3,392,314	-6.1%	33,977,632	36,922,616	-8.0%
	정제된 석유제품	299,972	368,299	-18.6%	5,797,434	3,869,169	49.8%
	LPG가스	30,457	54,840	-44.5%	288,194	332,249	-13.3%
	기타 액체(벌크)	82,097	49,037	67.4%	807,485	779,921	3.5%
	동물 사료	23,605	0	>100%	107,457	136,347	-21.2%
	석탄	214,459	344,455	-37.7%	2,542,607	1,998,268	27.2%
	시멘트	6,913	3,454	>100%	97,095	95,605	1.6%
	기타 고체(벌크)	187,827	41,990	>100%	1,387,507	1,527,787	-9.2%
	기타 잡제품	739,365	978,904	-24.5%	10,653,885	11,089,989	-3.9%
	(컨테이너)	687,506	926,631	-25.8%	9,781,336	10,150,956	-3.6%
총 수입 물동량(톤)		4,768,941	5,233,293	-8.9%	55,659,296	56,751,948	-1.9%
수출	원유	0	100,474	-100%	142,334	100,474	41.7%
	정제된 석유제품	561,489	545,533	2.9%	5,091,688	4,947,341	2.9%
	LPG가스	14,488	19,141	-24.3%	107,956	108,360	-0.4%
	기타 액체(벌크)	69,931	65,453	6.8%	611,979	723,648	-15.4%
	곡물(벌크)	0	0	-	0	0	-
	동물 사료	0	0	-	0	0	-
	석탄	46,760	33,012	41.6%	364,952	197,723	84.6%
	시멘트	32,867	32,918	-0.2%	290,419	342,524	-15.2%
	기타 고체(벌크)	0	13,138	-100%	58,256	75,387	-22.7%
	기타 잡제품	908,678	1,068,686	-15.0%	12,696,524	12,927,857	-1.8%
	(컨테이너)	835,417	976,070	-14.4%	11,295,151	11,409,432	-1.0%
총 수출 물동량(톤)		1,634,213	1,878,355	-13.0%	19,364,108	19,423,314	-0.3%
수출,입 전체	원유	3,184,246	3,492,788	-8.8%	34,119,964	37,023,088	-7.8%
	정제된 석유제품	861,461	913,832	-5.7%	10,889,122	8,816,510	23.5%
	LPG가스	44,945	73,981	-39.2%	396,150	440,609	-10.1%
	기타액체(벌크)	152,028	114,490	32.8%	1,419,464	1,503,569	-5.6%
	곡물(벌크)	0	0	-	0	0	-
	동물 사료	23,605	0	>100%	107,457	136,347	-21.2%
	석탄	261,219	377,467	-30.8%	2,907,559	2,195,991	32.4%

	시멘트	39,780	36,372	9.4%	387,514	438,129	-11.6%
	기타고체(벌크)	187,827	55,128	>100%	1,445,763	1,603,174	-9.8%
	기타 잡제품	1,648,043	2,047,590	-19.5%	23,350,408	24,017,846	-2.8%
	(컨테이너)	1,522,923	1,902,701	-20.0%	21,076,488	21,560,388	-2.2%
총 수출입 물동량(톤)		6,403,154	7,111,648	-10.0%	75,023,400	76,175,264	-1.5%
식량 및 연료 보급		43,721	50,867	-14.0%	543,681	548,235	-0.8%
전체 물동량(톤)		6,446,875	7,162,515	-10.0%	75,567,080	76,723,496	-1.5%
여행객 수	입국	6,585	13,876	-52.5%	412,036	373,337	10.4%
	출국	5,402	11,037	-51.1%	411,040	377,472	8.9%
전체 여행자 수		11,987	24,913	-51.9%	823,076	750,809	9.6%

□ 마르세이유(MARSILLE) 항

가. 프랑스 최대 운송 항 및 유럽 4대 항

(1) 2006년도 운송 현황

- 2006년 총 운송량: 1980년 이후 최초로 1억 톤 상회(전년비 3.6% 증가)
-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량: 941 천 대(전년비 3.9% 증가)
- 항만청 매출액: 184백만 유로(전년비 5% 증가)

(2) 주요 상품별 운송 동향

- 석유 제품 운송량: 64.2백만 톤으로 2년째 증가(전년비 2.7%증가)
- 기타 잡제품 운송량: 16.4백만 톤(전년비 약 6% 증가)
- 바이오 연료용 화학첨가제 운송량: 3.17백만 톤(전년비 2.7% 증가)

(3) 투자 동향

- 2006년도 투자액: 62백만 유로(최근 5년 연평균 투자 수준)
- 투자 계획: 2007년 161백만 유로, 2008년 155백만 유로, 2009년 92백만 유로
- 투자 기대 효과: 향후 3-5년 후 연간 운송량 23.5백만 톤 증가 예상(잡제품 10.1 백만 톤, 고체 벌크 4백만 톤, 석유제품 7.6백만 유로, 액체 벌크 1.8백만 유로)

□ 유럽 주요 항구별 경쟁력 비교

LE HAVRE, ANTWERF 및 ROTTERDAM 경쟁력 비교

항목	구분	LE HAVRE	ANTWERF	ROTTERDAM
경상 경비	평균 인건비	880,500(100)	1,105,600(126)	1,217,500(138)
	평균 임차료	494,500(100)	508,980(103)	628,300(127)
	소계	1,375,000(100)	1,614,580(117)	1,845,800(134)
유효 인력	무직자	12.5%(100)	11.1%(89)	10%(80)
	저급 인력	49%(100)	52%(105)	35%(71)
	중급 인력	37%(100)	33%(89)	36%(97)
	고급 인력	13%(100)	15%(113)	29%(218)
부지	내부유효면적	133(100)	635	218
	외부유효면적	551	23	351
	내부토지가(연)	1.9유로/SM	3-10유로/SM	8-10유로/SM
	외부토지가(연)	7.5-10유로/SM	60-100유로/SM	75-225유로/SM

자료원: DTZ CONSULTING & RESEARCH 2005년 12월 보고서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환경

- 4억 6천만 소비자를 가진 EU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인접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 프랑스는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등 첨단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그 외 패션,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영재교육을 중시한 프랑스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다만,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과도할 정도로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프랑스 투자의 단점 지적 사항이다.

□ 유럽시장의 중심

- 기업과 자본, 생산설비, 첨단기술이 시간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화한 세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 중이다.
- 그 결과 GDP상 세계 6위의 경제국이며 세계 3위의 서비스 수출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해외 투자국인 프랑스, 가장 큰 단일 시장인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 해외투자기업 유치강국

- 누적된 해외직접투자액은 중국과 같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투자실적 면에서 세계 4위의 투자 유치 국.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일각에서 역설적이라고도 말하는 이 결과가 실제상 프랑스의 강점이다.

□ 기술 중심 국

- 프랑스는 기업과 기업인의 땅으로서 250만 개 업체, 각 분야의 세계적인 경제리더들 및 지명도가 높고 존경 받는 전 세계 남녀 경영인들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
- 예로부터 프랑스식 산업개발 모델은 혁신의 선구자였음. 쾨 메리 2호를 비롯하여 에어버스 A380, 고속철도 (TGV), IC카드, 원자력 산업과 보건 제약분야까지 프랑스 기술자들은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는 선구자로서의 명성을 올리고 있다.

□ 유능한 인력

-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높고, 프랑스 연구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며, 또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프랑스는 주요 해외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유럽의 기수가 되었다.
-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프랑스 기술자, 엔지니어, 경영매니저 및 공무원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 중. 창조성과 뛰어난 직업의식을 겸비한 프랑스 근로자들, 세계적으로 결근율이 낮은 근면한 인력으로 고평가. 또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보다 앞선 노동생산성을 인정받은 국가이다.

□ 저렴한 전력, 교통, 통신비

- 원자력 발전소의 발달(전체 전력의 78%)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기세가 가장 낮으며 전국 어느 곳이나 연결된 기차, 항공 및 도로망의 발달과 전국도의 98%를 커버하는 유, 무선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교통비 및 통신비가 저렴하다.

□ 사업하기 좋은 환경

-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및 공공 적자 감소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특히, 시간 외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세 및 소득세 완전 면제로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9월 국회 비준 이후 발효).

□ 매력적인 금융시장

- 증권 시장의 발달로 사업자금 조달 여지가 많으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운집해 있어 금융시장이 극히 풍부하다.

프랑스 투자 매력도 강점 및 약점 비교표

10개국 투자 매력도 비교 항목	'06순위	'05순위	2대 리더 국	06년
고속 기차	1	1	프랑스, 스페인	26km/백만 명
기업 신설 용이성	2	2	미국, 프랑스	8일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율	2	2	영국, 프랑스	0.371
종업원 1인당 생산성	3	3	미국, 벨기에	120/EU 25국 100
인구 증가	4	4	미국, 스페인	104.9/'95년 100
GDP대비 R&D 지출 비율	4	5	일본, 미국	2.2%/EU15국 2%
투자 자본(GDP대비)	4	5	미국, 영국	0.11/EU15국 수준
항공 운송	5	4	화란, 미국	2.1/EU15국 2.0
시장접근 가능성	5	5	화란, 벨기에	100/EU 7국 112
기업의 장기 투자 증가율	5	5	미국, 스페인	0.022
언어 능력	5	5	미국, 스페인	0.51
23-34세 고등교육 비율	5	5	일본, 벨기에	0.37
기업 세율	5	미상	영국, 화란	0.262
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	6	4	폴란드, 스페인	103/미국 100
초고속 인터넷-케이블 가입율	6	5	화란, 벨기에	0.152
92-'05 기간 GDP 성장률	7	8	폴란드, 미국	0.02
파업 일 수	8	8	폴란드, 일본	40일/1000명
노동 유연성	9	9	미국, 일본	2.3/10
인건비 대비 사회부담 비율	9	10	미국, 영국	0.38

자료원: 프랑스 투자진흥청 AFII

2. 외국기업 투자동향

프랑스는 해외투자 유출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말 누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해외투자 유입액 및 유출액 면에서 4위이며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공제한 수치 면에서 1위이다.

OECD 국가의 해외투자 집계 (1997- 2006)

(단위: US\$ 십억)

순위	국가 / 유입 액	국가 / 유출 액	국가/ 유출 액-유입 액
1	미국 / 1,637.2	미국 / 1,580.4	프랑스 / 391.0
2	벨·룩스 / 1,188.7	벨·룩스 / 1,181.7	일본 / 277.5
3	영국 / 797.2	영국 / 1,045.3	영국 / 248.2
4	프랑스 / 480.8	프랑스 / 871.8	스위스 / 215.0
5	독일 / 473.2	네덜란드 / 513.1	네덜란드 / 214.0
6	네덜란드 / 299.1	독일 / 510.2	스페인 / 181.0
7	캐나다 / 285.3	스페인 / 420.8	이탈리아 / 69.4
8	스페인 / 239.8	일본 / 330.9	캐나다 / 37.9
9	스웨덴 / 192.9	캐나다 / 323.1	독일 / 37.0
10	멕시코 / 178.4	스위스 / 318.5	노르웨이 / 27.5
11	이탈리아 / 128.8	스웨덴 / 210.4	스웨덴 / 17.5
12	스위스 / 103.4	이탈리아 / 198.2	핀란드 / 17.4
13	호주 / 89.7	아일랜드 / 90.1	아이슬란드 / 7.4
14	아일랜드 / 88.5	덴마크 / 81.3	오스트리아 / 6.7
15	덴마크 / 86.7	핀란드 / 71.5	아일랜드 / 1.6
16	폴란드 / 78.6	노르웨이 / 67.0	포르투갈 / 1.6
17	한국 / 55.5	오스트리아 / 52.3	그리스 / -3.1
18	체크 / 55.2	호주 / 46.0	덴마크 / -5.4
19	핀란드 / 54.0	포르투갈 / 45.0	벨·룩스 / -7.0
20	일본 / 53.4	한국 / 42.9	한국 / -12.6
21	오스트리아 / 45.6	멕시코* / 23.2	슬로바키아 / -16.7
22	포르투갈 / 43.5	아이슬란드 / 15.5	뉴질랜드 / -19.9
23	터키 / 42.6	그리스 / 10.7	헝가리 / -30.5
24	헝가리 / 40.9	헝가리 / 10.4	터키 / -36.4
25	노르웨이 / 39.4	폴란드 / 8.8	호주 / -43.7
26	뉴질랜드 / 19.0	터키 / 6.2	체크 / -51.9
27	슬로바키아 / 17.3	체크 / 3.2	미국 / -56.9
28	그리스 / 13.8	슬로바키아 / 0.6	폴란드 / -69.7
29	아이슬란드 / 8.1	뉴질랜드 / -0.9	멕시코* / -97.4
전체 / 6,836.3		전체 / 8,078.1	전체** / 1,241.8 (합계 / 1,297.9)

자료 원: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Database

주: * 멕시코 = 2001-2006

** OECD 전체=전체 유출액-전체 유입액(합계=국가/유출액-유입액 항목 계)

- 2006년 프랑스의 외국직접투자 유입액은 646억 유로로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해외 직접 투자 유출액은 917억 유로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 2007년 7월 말 기준으로 프랑스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542억 유로를 상회했으며 유출액은 932억 유로에 달해 전년도 실적을 이미 초과했다.

프랑스의 최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5년	2006년	2007(1-7)
유출 액	97,275	91,700	93,169
유입 액	65,184	64,629	54,218
수지	-32,091	-27,071	-38,951

자료 원: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프랑스의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지역별 및 국가별 외국인 투자 유입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EU 특히, 유로 존으로 전체의 76.6% 및 61.2%에 해당되며 국가 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007 1/4분기)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유로 존(13)	기타EU(14)	미국	일본	스위스	중국	기타	전체
유출	14,422	2,682	7,093	1,158	-548	66	3,017	27,890
유입	12,378	3,127	2,907	189	265	360	1,012	20,238
수지	-2,044	445	-4,186	-969	813	294	-2,005	-7,652

자료 원: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가. 프랑스 투자현황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 법을 개정하였다. 2001년 5월에는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Invest in France Agency)을 설립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덕분에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창출된 고용인원은 40 000명을 넘어섰다. 상업분야 총 종사자 중 16%, 1.6백만 명이 외국회사에서 고용한 인원이다. 또한 CAC40에 상장회사 자본의 47%가 외국자본이다.

프랑스의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건, 명, EURO 억)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프로젝트 건수	563	558	438	547	583	650	665	4,004
고용인원 수	35,359	25,480	22,861	27,335	29,578	30,146	39,998	210,757
금액	469	564	521	377	253	511	584	5,455(누적)

자료 원: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프랑스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유럽기업이다. 2005년과 2006년 사이 유럽기업의 프랑스 투자는 프랑스 총 고용창출의 80%의 성장을 가져왔다. 반면 미국기업이 기여한 고용창출 성장은 20%에 그쳤다.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4개 국가 기업이 2006년 한 해 프랑스에 외국투자 고용창출 인원의 60%를 차지했다. 미국 기업이 가장 많은(전체의 23.8%) 고용창출 율을 기록, 대(對)프랑스 투자 국가 1순위인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16.4%의 고용창출을 가져왔고 영국은 의약품산업을 중심으로 10.6%의 고용창출을 기록하며 3위의 자리를 지켰다. 스웨덴은 가구유통 업체인 IKEA의 프로젝트 확장개발과 이에 따른 부수 운송산업에 투자로 8.9%의 고용창출 율을 기록했다. 벨기에, 일본, 이태리 기업의 투자는 전년도 비교 감소한 반면 중국투자가 7위로 올라선 것이 주목할 만하다.

주요 대불 투자 국가별 최근 2년간 프랑스 내 고용 창출 현황

(단위: 명, %)

연도 국가별	2005		2006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증감
미국	8,756	29.0	9,511	23.8	755
독일	6,055	20.1	6,570	16.4	515
영국	2,598	8.6	4,225	10.6	1,627
스웨덴	2,247	7.5	3,543	8.9	1,296
스위스	715	2.4	2,021	5.1	1,306
네덜란드	1,153	3.8	1,862	4.7	709
중국	582	1.9	1,572	3.9	990
스페인	1,084	3.6	1,495	3.7	411
캐나다	466	1.5	1,359	3.4	893
벨기에	1,391	4.6	1,263	3.2	-128
핀란드	222	0.7	1,238	3.1	1,016
이탈리아	1,015	3.4	806	2.0	-209
일본	1,438	4.8	794	2.0	-644
기타	2,424	8.0	3,739	9.3	1,315
총계	30,146	100	39,998	100	9,952

자료 원: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보고서

프랑스의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누계)

(단위: 명, %)

연번	국 별	2005년		2006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네덜란드	608	16.5	688	16.7
2	영국	605	16.5	657	16.0
3	미국	509	13.8	550	13.4
4	독일	478	13.0	515	12.5
5	벨기에	416	11.3	488	11.8
6	룩셈부르크	193	5.3	269	6.5
7	스위스	221	6.0	243	5.9
8	이태리	150	4.1	135	3.3
9	일본	84	2.3	84	2.0
10	스페인	63	1.7	82	2.0
11	스웨덴	44	1.2	51	1.2
12	캐나다	15	0.4	46	1.1
13	쿠웨이트	39	1.1	40	1.0
14	아일랜드	35	0.9	33	0.8
15	기타 국가	213	5.8	238	5.8
(순위 미상)	한국	4	0.1	4.3	0.1
전체		3,673	100	4,119	100

자료원: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나.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투자 고용 창출 현황

프랑스 업종별 외국인 투자 고용 창출 현황

(단위: 명, %)

연도	2005		2006		
분야별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증감
對기업 서비스, 자문 및 엔지니어	1,465	4.9	5,209	13.0	3,744
자동차 및 부품	3,461	11.5	4,344	10.9	883
기타 서비스, 상업 또는 금융	3,122	10.4	3,575	8.9	453
항공, 선박 및 철로 장비	1,606	5.3	2,868	7.2	1,262
정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3,784	12.6	2,672	6.7	-1,112
화학, 플라스틱	802	2.7	2,582	6.5	1,780
기계 및 기계 장비	1,059	3.5	2,343	5.9	1,284
금속, 금속 가공 및 리사이클링	1,359	4.5	2,315	5.8	956
운송, 창고, 건축토목공사	2,399	8.0	2,003	5.0	-336
가구, 가정용 설비	2,069	6.9	1,955	4.9	-114
유리, 목재, 제지, 출판, 광물, 세라믹	1,677	5.6	1,733	4.3	56
농 가공 식품, 농업 및 어업	1,295	4.3	1,506	3.8	211
의약품, 화장품	597	2.0	1,435	3.6	838
에너지, 기타 종합 서비스	556	1.8	1,223	3.1	667
전기, 전자제품, 정보기기, 의료 기기	2,325	7.7	1,176	2.9	-1,149
통신 사업 및 인터넷 공급	535	1.8	1,070	2.7	535
섬유, 의류	673	2.2	774	1.9	101
전자 부품	667	2.2	547	1.4	-120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	545	1.8	475	1.2	-70
바이오 기술	150	0.8	133	0.3	-17
기타	-	0.0	60	0.2	60
전체	30,146	100	39,998	100	9,852
- 공업	18,841	62.5	25,409	63.5	6,568
- 서비스 및 기타	11,305	37.5	14,589	36.5	3,284

자료 원: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보고서

프랑스 지역별 외국인 투자 고용 창출 현황

(단위: 명, %)

연도	2005		2006		
지방별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창출	구성비	고용 증감
ILE DE FRANCE	8,590	28.5	9,001	22.5	411
RHONE-ALPES	3,694	12.3	4,179	10.4	485
PROVENCE-ALPES-COTE-D'AZUR	1,800	6.0	1,742	9.4	1,942
NORD-PAS-DE-CALAIS	3,089	10.2	2,853	7.1	-236
MIDI-PYRENEES	2,517	8.3	2,759	6.9	242
BRETAGNE	481	1.6	2,171	5.4	1,690
LORRAINE	1,974	6.5	1,710	4.3	-264
ALSACE	1,770	5.9	1,708	4.3	-62
AQUITAINE	949	3.1	1,647	4.1	698
PICARDIE	333	1.1	1,340	3.4	1,007
AUVERGNE	419	1.4	1,305	3.3	886
LANGUEDOC-ROUSSILLON	630	2.1	1,261	3.2	631
HAUTE-NORMANDIE	554	1.8	1,227	3.1	673
CHAMPAGNE-ARDENNE	124	0.4	1,143	2.9	1,019
PAYS-DE-LA-LOIRE	795	2.6	904	2.3	109
BOURGOGNE	767	2.5	650	1.6	-117
BASSE-NORMANDIE	92	0.3	632	1.6	540
POITOU-CHARENTES	434	1.4	573	1.4	139
FRANCHE-COMTE	158	0.5	446	1.1	288
CENTRE	919	3.0	442	1.1	-477
DOM-TOM(해외 속령)	10	0.0	270	0.7	260
LIMOUSIN	44	0.1	24	0.1	-20
CORSE	3	0.0	11	0.0	8
합계	30,146	100	39,998	100	9,852

자료원: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보고서

프랑스의 연도별 및 월별 해외 투자 유출, 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연도	2005년					2006년				
월	유출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유입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수지 (누계)	유출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유입액 (누계)	전년비 증감률	수지 (누계)
1	5,035	7.29	1,320	-77.12	-3,715	-4,277	-184.95	3,996	202.73	8,273
2	9,089	-6.09	2,133	-66.88	-6,956	379	-95.83	7,218	238.40	6,839
3	19,970	61.48	14,143	34.50	-5,827	3,740	-81.27	16,371	15.75	12,631
4	23,444	38.99	15,670	26.47	-7,774	16,725	-28.66	22,271	42.13	5,546
5	26,096	24.59	18,734	41.89	-7,362	26,691	2.28	23,959	27.89	-2,732
6	28,955	16.75	25,378	47.48	-3,577	33,110	14.35	32,551	28.26	-559
7	34,248	11.94	31,381	60.31	-2,867	38,038	11.07	34,353	9.47	-3,685
8	43,165	48.11	35,598	152.06	-7,567	43,474	0.72	34,710	-2.49	-8,764
9	48,013	45.14	39,046	120.00	-8,967	53,529	11.49	40,268	3.13	-13,261
10	52,518	26.33	40,152	87.67	-12,366	63,515	20.94	46,750	16.43	-16,765
11	68,677	51.88	44,772	106.01	-23,905	69,129	0.66	52,092	16.35	-17,037
12	93,008	102.6	51,121	102.29	-41,887	87,440	-5.99	58,377	14.19	-29,063

자료원: 프랑스 중앙은행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의 對佛 투자 현황

'68년부터 '07년 6월까지 한국의 對佛 투자 규모는 총 277건에 5억 8천 435만 6천 불이다. 2002년 대불 투자 규모는 9천만 불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4년 동안의 연평균 투자 규모는 25백만 불 수준(연 8건)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연도별 대불(對佛) 투자 현황

(단위: US \$ 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 계	277	108	811,818	357	584,356
1968-80	9	5	801	9	771
1981	1	0	259	1	259
1982	1	0	306	1	308
1983	1	0	731	1	685
1986	1	1	78	0	0
1987	0	0	0	1	78
1988	4	3	2,404	4	1,613
1989	5	4	1,658	4	1,071
1990	5	2	5,840	3	3,470
1991	10	3	10,576	6	7,094
1992	12	2	50,417	15	47,773
1993	10	3	45,665	10	34,908
1994	18	2	86,890	23	51,706
1995	8	3	66,977	17	91,020
1996	7	3	40,479	12	22,759
1997	21	10	32,050	22	10,666
1998	11	3	62,646	26	40,095
1999	21	8	16,290	25	12,581
2000	21	7	8,721	26	8,701
2001	10	5	31,289	11	25,014
2002	14	6	96,498	19	90,110
2003	8	5	12,657	17	13,396
2004	13	7	39,567	16	39,275
2005	28	11	27,381	38	24,066
2006	20	9	27,951	30	29,026
2007. 1-9	18	6	143,686	20	27,91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주: 1980년도 실적은 1968년부터 1980년도까지의 합계임.

- 한국은 1988년부터 2007년 9월까지 대불 투자금액 순으로, 제조업, 도. 소매업, 서비스 업 및 건설업 등에 투자를 실행했다.

한국의 분야별 對佛 투자 현황(1988년-2007년 9월)

(단위: 건수, US\$천)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277(18)	108(6)	811,818(143,686)	357(20)	584,356(27,910)
제조업	138 (8)	42(2)	348,554 (12,003)	196(10)	307,546(11,378)
건설업	4(1)	4(1)	131,853(129,600)	3 (1)	14,298 (14,068)
도매 및 소매업	78(4)	30(1)	252,889(611)	88 (4)	22,3316 (611)
숙박 및 음식점업	14(2)	8(1)	3,815(1,255)	18 (3)	3,374 (1,697)
운수업	5	5	473	6	469
통신업	1	1	1,163	1	1,163
부동산 및 임대업	16	6	53,370	21	14,991
사업 서비스업	4(1)	4(1)	6,281 (60)	3 (0)	6,221 (0)
교육 서비스업	1	1	8	1	8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9(2)	4(0)	8,212(157)	13 (2)	7,770 (15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	3	5,200	7	5,200

자료 원: 한국수출입은행

주: 기간: '68년-'07년(1-9월) / () 안의 숫자는 2007년 1-9월 중 실적임.

□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 소자본 투자를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약 19개사 정도이다.
- 태평양화학, 삼성전자, LG전자, 엘지 R&D센터, 한진 해운, RG PRINCE FILM, 엘앤에이치 코리아, 기아자동차, 동양 어패럴, 한국타이어, 흥진크라운 등이다.

프랑스 진출 10대 한국 기업 리스트

(단위: EURO 천)

연번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 내역	투자금액
1	태평양화학	1990	제조업/향수(로리타)	54,213
2	삼성전자	1988	전자제품,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	34,710
3	삼성물산	1977	섬유, 정보기기, 경공업 종합상사	24,249
4	RG PRINCE FILM	2002	만화영화제작	6,273
5	엘지 전자	1990	가전제품 판매업	6,241
6	엘지 R & D 센터	2004	이동통신 단말기 연구. 개발	5,342
7	엘앤에이치 코리아(주)	2000	SPEECH TECHNOLOGY	5,100
8	기아 자동차	2004	자동차 판매업	5,000
9	동양 어패럴	1996	숙녀복 판매업	5,000
10	현대정보기술	1995	IMAGE-IN	4,296
11	유로 대우(주)	2000	중장비 판매 서비스업	4,000
12	(주)이트로닉스	1992	카 스테레오 판매	3,272
13	(주)쌈지	2001-2005	숙녀복, 패션잡화 판매업	2,557+ 847
14	(주)흥진 크라운(HJC)	2001	헬멧(모토사이클, 자전거용)	2,683
15	한국화장품(주)	1997	화장품 판매업	1,357
16	해태(주)	1992	카 스테레오 판매업	1,346
17	한국 타이어(주)	2003	타이어 판매업	1,066
18	KBS 미디어(주)	2003	방송 콘텐츠	1,059
19	브이케이(주)	2005	정보통신기기 판매업	1,051

자료원: KOTRA 2005/2006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터리

□ 프랑스의 대한(對韓) 투자 현황

- '62년부터 '07년 9월말까지 프랑스의 對韓 투자는 총 689건에 51억 불을 기록 중이며, 對韓 투자 국 중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7위(유럽 국가 중 4위)를 기록하였다.
- 2006년의 경우 총 62건에 1,174,434천 불을 기록하였다.
 - 2006년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112억 불이다.
- 2007년의 경우(9월말 현재) 총 36건에 361백만 불을 기록하고 있다.
 - 2007년 9월말 현재 한국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6,312백만 불이다.
 - 2007년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은 110억 불이다.

프랑스의 연도별 대한(對韓) 투자 현황

(단위: 천 불)

연도	건수	금액
1971	1	450
1972	1	150
1973	1	2,600
1974	3	825
1975	1	1,250
1975	1	200
1977	2	3,727
1978	2	3,417
1979	2	1,091
1980	0	0
1981	1	1,121
1982	0	0
1983	2	1,573
1984	3	22,155
1985	5	5,072
1986	1	200
1987	6	11,309
1988	15	50,355
1989	13	39,380
1990	12	22,439
1991	16	28,834
1992	15	29,202
1993	17	39,674
1994	16	56,358
1995	19	35,192
1996	21	90,317
1997	33	411,357
1998	54	369,421
1999	49	750,239
2000	45	607,470
2001	35	425,547
2002	39	110,824
2003	44	150,316
2004	58	179,962
2005	58	85,179
2006	62	1,174,434
2007(1-9)	36	(신고기준)361,000
전체	673	5,073,000

자료원: 산업자원부

대한(對韓) 진출 프랑스 기업 현황

회사명	모기업	진출 연도	투자 금액 (천 \$)	업종/투자분야
한국유리공업(주)	SOCIETE FINANCIERE D'ADMINISTRATION ET DE GESTION	1971	119,551	판 유리제조업
한불 종합금융(주)	SOCIETE GENERALE	1977	53,173	기타여신금융업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SANOFI-AVENTIS	1991	55,546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한국생고방베토텍스(주)	SAINT GOBAIN VETROTEX INTERNATIONAL	1993	89,013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주)	VALEO BAYEN	1999	105,360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아키에스	KIM THEO	1999	535,023	호텔 업
라파즈 한라시멘트(주)	FINANCIERE LAFARGE	2000	170,857	시멘트 제조업
삼성탈레스(주)	THALES INTERNATIONAL	2000	112,500	기타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벤디워터산업개발(주)	VIVENDI WATER	2001	66,1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넥상스 코리아(주)	NEXANS PARTICIPATIONS, S.A.	2001	62,083	절연금속선 및 케이블제조업
신한금융지주회사	BNP PARIBAS S.A.FRANCE	2002	1,000,823	기타금융업
악사(AXA)보험회사	AXA	2007	117,000	보험업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 장려정책

1) 국가매력도 정책을 축으로 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프랑스의 2003년 12월 11일자 투자매력도 강화 대책(50여 개).
 - 고급 인력 유치 정책:
 - 선정된 전략 분야에 세계적인 연구 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유도(세계 최고의 보수 지급, 25-50만 유로의 연구비 지급)
 - 외국 고위임 직원과 가족의 프랑스 입국절차 간소화 및 획기적인 거주 조건 개선 (외국인 상업허가증 제도 폐지, 노동 허가증 및 체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배우자의 프랑스 내 근로허가 및 세제 개선),
 - 프랑스 대학 및 전문 고등교육 기관 홍보 및 외국 학생의 온라인 학교 등록.
 - 기업 및 자본 유치정책:
 - 투자관련 안전 보장
 - 외국 기업의 프랑스 투자시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업무 협력 조율
 - 첨단기술 분야 클러스터의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
 - 연구 개발 활동 시 관련 세금 수준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및 인재의 유도

2) 프랑스의 국가 매력도 강화 조치

□ 외국인 주재원과 동반 가족 입국절차 개선 내용

- 주재원의 현실을 고려한 세제 적용
 - 파견 수당의 과세 면제
 - 사회보장분담금을 본국에서 지불했을 경우 프랑스에서는 면제
- 간부 직원 입국절차 간소화
 - 외국인 간부급 직원과 동반 가족이 입국 시 프랑스 이민국(OMI)에서 노동허가증 및 체류증 발급 일괄 처리
- 주재원의 근로 조건 및 자격 관련 신규 조치
 - 외국 기업의 프랑스 지사나 법인 장에게 요구되었던 외국인 상업 허가증 폐지
 - 주재원 배우자의 프랑스 내 근로 허가(단, 월급이 2,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및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 교육 환경 개선.

□ 연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

- 프랑스 내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감세(CIR) 제도 개선
 - 동 제도의 영속화
 - 연구비 감세(CIR) 예산 증가(5.3억 유로에서 8.5억 유로로)
 - 재정적 수혜관련 산출법 완화
 -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지출항목의 확대
 - 연간 혜택 상한선을 61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로 증액
-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250명 미만, 설립 8년 미만이거나 사회보장 분담금 대비 연구 개발 지출이 적어도 15%가 되며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없는 기업)
 - 세금 경감(법인세, 직업세, 토지세)
 - 사회보장금 고용주 분담금 면제
 - 주식 양도 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3) 기타 제반 주요 지원제도

- 지역개발 우선지역 지원(PAT), 국토개발청(DATAR) 지원
- 사업용 부동산 임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 할인 지원
- 유럽의 지역 개발 기금(FEDER)
- 직업세 면제
- 중소기업 지원 기금
- 공기업의 금융 지원.

나.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 돈내기 게임 분야의 사업
- 개인의 안전이 법으로 규제된 사업

- 테러 활동 분야에 병원체 또는 독물의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및 동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문제 예방과 관련된 연구, 개발 또는 생산 활동
- 우편물 가로채기 및 대화 원격 도청용으로 구상된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정보 기술 제품 및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안전도 검사 및 인증 관련 서비스업
-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공, 사립업체와 계약에 의해 연관된 기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보안 분야에서 행해지는 보안 서비스 상품 및 제품 생산 활동
- 민간용 및 군사용으로 공히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상품 관련 사업: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및 제품 등
- 암호 수단 관련 사업
- 국방 비밀을 위탁받은 기업체들이 행하는 업종
- 군사 또는 전쟁 및 유사 장비용 무기, 탄약, 화약 및 폭발물질의 연구, 생산 또는 상업 활동
- 직접 또는 하청에 의해 국방부 장비 연구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들이 행하는 업종

다. 투자인센티브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에만 주어지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행위가 투자 예상지역에 고용창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들과 교섭을 통해 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근로자 훈련비용 등을 정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며, 규모가 큰 투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일반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지역
 - 투자액의 17%까지 지원 가능하다.
- 투자유치 관심지역
 - 정부에서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지역으로 투자액의 25%까지 지원 가능하다.
- 투자유치 특별대상지역
 - 코르시카 섬과 북부 벨기에 접경지역에는 상기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 도시 면세지역(ZUF) 제도
 - 슬럼 및 빈민가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장 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유형
 - 지방정부 별로 다소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조세 면제보다는 공장부지 제공, 인프라 건설 지원, 근로자 교육훈련비 부담 등의 형태를 지닌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외국인 투자 형태

현행 프랑스 기업법에 설립 가능한 회사 중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종류는 크게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 1인 유한 책임회사(EURL)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 2인 유한 책임회사(SARL)

투자자가 2인에서 10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이다. 즉, 내부 운영 규칙이나 의사결정 기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최고 의결 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임시 총회이어야 하며 그 의결 정족수는 총사원 지분의 25%(2차 소집 시에는 20%)를 기준으로 결정)이다.

□ 주식회사(SA)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 없음.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자유롭다.

추후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다. 회계 승인 및 일반 의사결정 정족수는 주주 총회의 25% (2차 소집시는 20%). 임시총회 시에는 20%(2차 소집 시에는 정족수 제한이 없음)이다.

□ 법인 형태

	1인 유한책임회사 (EURL)	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 (SA)	주식합자회사	약식 주식회사 (SAS)
주요 장점	주주 1인, 단순하고 비용 저렴 실질 과세	설립 및 운영 간편 (폐쇄적 소유권)	"감독 하 경영" 가능 구조 자본구조 (5)	위임도 높은 경영구조 자본구조 (5)	자유로운 구조 최소 주주 1인 정관설립의자유(7)
경영진	1인 경영자 (주주 또는 비 주주)	1인 또는 다수 경영자 (주주 또는 비 주주)	회장 및 집행 이사 1 또는 2명(사장 및 집행 이사), 담당 이사 (최고 5명).이사회(회계감사를 포함한 3인 이상 18 인)	1인 또는 다수의 경영자 (출자자 또는 비 출자자)	회장 1인 (이사회 구성 조항 명시 가능)
최소 자본금	없음(3)	없음(3). 정관에 자본금액 명기. 채권 발행 제한. 산업 내 출자 가능	37,000유로(1) 자본금이 225,000 유로 이상일 경우 공공 저축 모집 허가. 산업 내 출자 금지	37,000 유로 (1) (2) 무한책임 주주는 산업내출자허가, 유한책임 주주는	37,000 Euro (8). 저축 공모 및 산업 내 출자 금지

				금지	
출자자 / 주주	1인	2 - 100인	최소 7인, 연 1회 이상 총회: 연차 회계 승인 및 정기 총회 일반 결정은 과반수 찬성, 임시총회 정관수정은 2/3 찬성	최소한 출자자 1인 및 유한출자자 3인	최소 1인의 무한 책임주주 및 3인의 유한책임 주주. 단체 결정은 무한 책임주주의 동업자 (만장 일치 원칙) 및 유한책임주주의 동업자들에 의한.
총회 정족수	해당 무	1차 소집: 전체 주식 수의 25% +1; 2차 소집: 20%	임시 총회 시, 1차 소집: 25% 및 2차 소집: 20%; 정기 총회 시, 1차 소집: 20% 및 2차 소집: 정족수 해당 무		규정에 따라 자유, 주주 총회 소집 의무가 없음
최소 비도권 (특별 다수결 저지 비율)	해당무	정관수정 등 임시 총회: 33%+1표; 정기총회: 50%+1표 (2차소집시는 다수결)	임시 총회 시: 1/3; 정기 총회 시 : 50%(SAS의 경우, 정기총회 시에는 규정에 따라 자유)		규정에 따라 자유
출자자 또는 주주의 경제적 책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무한 책임 주주: 무제한 및 연대 책임. 유한 책임 주주:출자액한도	출자액 한도 + 민사 및 형사 책임
특징	주식 양도 시 양도세 적용(6). 회계감사 필요(4)	주식 양도시 양도세 적용 대상 (6)	회계 감사 의무	회계 감사 의무	회계 감사 의무
세제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 (1) 회사 설립 시 현금 출자금의 반만 납입하고 잔액은 5년에 걸쳐 지불
- (2) 자본은 가변적
- (3) 장기 회사운영 예비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금 지참을 권장함. 자본금은 출자금의 20% 이상 풀려져야 함.
- (4) 세전 가격 매출규모가 310만 유로 이상 또는 총 결산이 155만 유로 이상 또는 종업원 수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 감사 필요
- (5) 외부자본을 사용하고, 보다 다양한 주식 발행 가능
- (6) 양도가격의 5%를 매수자가 지급.
- (7) 주주, 경영진, 조직과 자본 양도 간의 관계
- (8) 공개 자금모집 금지

나. 법인 설립

1)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자회사 등기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류(MO 및 MO' 작성안내문)
- 지사 대표와 회계감사인(해당될 경우)의 임명 사실이 명기된
- 회사의 정관 2부
- 감사보고서 (해당될 경우) 2부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회사 설립 공고가 나간 관보 또는 일간지 1부
- 지사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 지사장 신원보증서
- 특정 산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 지사장의 체류증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지사 설립관련 서류

2) 서류 공증 방법

필요서류 불문 번역 후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불어 번역 및 공증

3) 투자 서류접수 및 승인기관

□ 투자 진출 절차(법인 및 사무소 설립절차, 허가기관)

프랑스에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 투자 진흥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영문 Invest in France Agenc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투자 방식 및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한국 사무소

대표자	위베르 프레데릭 (Hubert FREDERIC) 한국사무소장
한국인 투자 담당관	오 성림 투자담당관
전화	(02) 564 0419
팩스	(02) 3452 9025
이메일	korea@investinfrance.org
홈 페이지	www.afii.f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 빌딩 8층 (우)135-711

□ 프랑스 법인 설립 절차

사무실 임차 계약 (부동산 중개업소)
⇓
회사 대표 선임
⇓
자본금 마련
⇓
자본금 예치 은행구좌 개설(현지 은행)
⇓
회계감사 선임
⇓
정관 등록
⇓
장기비자 신청
⇓
상호, 상표, 도메인 중복사용 여부 확인
⇓
회사 등록(사업자 등록증(K-Bis)을 발급 받으면 완결 : 약 2주)
⇓
직원 사회보장 가입

4) 투자 허가서 발급 이후 수속 절차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구조 개설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조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구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 도장 신청(관할 시청 및 구청)

프랑스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 투자 법인이 직접 광고를 내어 채용할 수 있다.

회계장부는 법인의 회계 처리 시스템으로 프랑스 재무부(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다. 대표사무소 설립

□ 연락 사무소 등록 절차

프랑스에 진출하는 기업이 상업 활동을 제외한 광고 선전, 정보 제공, 보관, 기타 예비적 단계의 제한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재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적격이다. 국내 모기업이 프랑스 파견 주재원이나 현지고용인에게 사회보장금의 고용주 부담액을 포함한 월급을 지불해야 하며, 회사등기 지역의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관리기관 [URSSAF](#)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ecurite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에 설립한 연락 사무소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고용 직원이 2명이 넘으면 상사 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에 연락사무소로서 등기를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세무당국에게는 항구적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일부 지방세와 급여 관련 고용주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견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이 프랑스에 입국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자, 거주 허가 및 노동허가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거주 및 노동허가는 이민 수속 시 이민국(OMI)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연락사무소 등기 시, 상사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MO> 및 <MO'(작성안내문)>이다. 그 외에 연락사무소 설립 및 대표 임명장, 연락사무소 대표자 인적 서류 (여권, 신분증명서 등), 외국 모회사의 정관, 프랑스 내 거주지 증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자택 임대계약서 등)가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등록 절차	관계 기관
1. 장기 비자 신청 및 발급	주한 프랑스 영사과
2. 이민 수속	프랑스 이민국(OMI)
3. 주거지 임차계약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임대주
4. 연락사무소 임차계약	상동
5. 연락사무소 등기(고용인원 2명 시)	상사 등기소(상사 재판소)
6. 직원 사회보장 가입(주재원 및 피고용자)	사회보장기관(URSSAF) 관할지역 사무소

○ 연락 사무소 등록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류 MO와 MO' (작성안내문)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사무소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 사무소장 신원보증서
- 사무소장의 체류증
- 사무소장의 임명장
- 모회사 정관

프랑스 법인 설립 절차

프랑스 법인설립 절차	허가 기관
사무실 임차 계약 (부동산 중개업소)	
회사 대표 선임	
자본금 마련	
자본금 예치 은행구좌 개설(현지 은행)	
회계감사 선임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변호사)	공증기관
정관 등록	회사 설립지역 세무서
장기비자 신청	주한 프랑스 영사과
상호, 상표, 도메인 중복사용 여부 확인	프랑스 특허청(INPI)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증(K-Bis)을 발급받으면 완결: 약 2주)	상사재판소 회사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
회사설립 공고	관보 또는 주요 일간지
직원 사회보장 가입	사회보장기관(URSSAF)

주: 서류는 불어로 번역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임명한 대리인이 제출한다. 회사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이며 행정 수속 비용은 60유로, 회사설립 공고 비용은 200유로 정도이다.

□ 문의처

- 프랑스 기업설립청(APCE)
 - 주소: 14 rue Delambre 75682 Paris Cedex 14, France
 - 전화: 33-(0)1 42 18 58 58 / 팩스: 33-(0)1 42 18 58 00
 - E-mail: info@apce.com
 - 홈페이지: www.apce.com
- 사회보장기관(URSSAF)
 - 본사 주소: 93518 Montreuil Cedex
 - 전화: 33-(0) 820 01 10 10
 - 이메일: parisrp@urssaf.fr
 - 홈페이지: www.urssaf.fr
 - 파리 강북지역 관할 지부: 10, rue du Faubourg Montmartre, 75 009 Paris
 - 파리 강남지역 관할 지부: 3 rue de Tolbiac - 75 013 Paris
- 기업행정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 외국인인 프랑스에 상사를 설립할 때 관할 지역 내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제반 제출 서류 및 행정 수속 절차에 대한 자문 및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상공회의소는 주요 도시마다 소재하고 있다.
 - 파리 상공회의소(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 주소: 2 R DE VIARMES, 75040 PARIS CEDEX 01
 - 전화: 01 53 40 46 00 / 팩스: 01 53 40 46 08
 - 홈페이지: www.ccip.fr/cfe

6. 투자입지여건

□ 투자 입지 여건

- 프랑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며 세계 6대 경제 및 무역국이자 4대 투자 유출 입 국가이다.
-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대적인 개혁 정책 덕분에 주 35시간 근로법이 완화되고 앞으로는 일요일 개점 및 추가 근무 등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 각종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제세 감세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어 이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국가경쟁력을 확립하고 있다.
- 인구 정책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2.1에 달하며 서유럽 국가 중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다.
- 내수가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되고 있는 관계로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 선호

□ 유망 투자분야

가. 식료품산업

동 분야는 EU 전체 농 식료품산업 매출의 21.1%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규모를 갖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동 분야 대 유럽 수출의 72%가 유럽이다. 미국 및 일본도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이어서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로, 항로 등 뛰어난 교통 연계 시스템 덕분에 유럽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는 효과적인 물류체인 제어를 가증하게 한다.

동 산업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많아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용이하여 프랑스 제 3위의 고용 율을 자랑하는 산업분야로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만한 산업이다. 4,250 개 업체가 농 식료품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3%가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다논(DANON)과 같은 다국적기업도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의 85개 기업이 동 산업 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 치즈 등 전통적인 생산품 외에도, 프랑스는 농 식료품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혁신에 많은 예산 배정되어 있어 정부 출자 연구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전국 40여 개의 기술 센터(ACTIA: Association des Centres Techniques de l'Industrie Agroalimentaire)를 통해 고도의 기술 개발 및 산업에의 응용, 신상품의 생산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 식료품산업이 강한 이유는 프랑스 전체 면적의 55%가 농경이 가능한 정도로 농경지 면적이 넓은데 기인하며 농산물의 70%를 가공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농 식료품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다.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생산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미식가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기도 하다. "Made in France" 제품은 전통적으로 동 분야의 제품의 질과 생산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으며 신선 식품에서 첨단 가공 식품까지 모든 종류의 농 식료품 생산이 가능한 것이 프랑스가 유럽시장 및 세계 수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이다.

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2001년 현재 바이오테크 기업의 수는 250여 개로 유럽에서 세 번째 규모이며 1997년 이후 프랑스의 바이오산업은 급성장을 이루어 2000년 프랑스 바이오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5%에 달한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매출액은 7억5천7백만 유로이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5 000명이며 320,000 명에 달하는 풍부한 연구 인력과 공공연구기관, 병원, 대학들이 과학연구에 공헌한 발표 논문 수로 볼 때 프랑스는 세계 4위이다. 프랑스는 거대한 바이오산업 시장으로 유럽 제2의 제약시장이자 1위의 제약생산국이다.

프랑스는 동 분야에서 근로자 1인 시간당 GDP는 US\$34로 유럽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 인건비는 시간당 80 US\$로 가장 낮아 고용 율이 높은 산업이다. 지난 10년간 프랑스는 제약분야에서 고용이 1% 증가한데 비하여 같은 기간 독일, 이태리 및 스페인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프랑스의 바이오테크 산업은 동 분야 기업의 80%가 인간 건강 관련 기술개발 중심으로 발전해 있다. 프랑스 바이오산업은 주로 기술 플랫폼 기업 (genomics, drug delivery)이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 치료약품 개발로 선회하고 있으며 공 기관과 민간 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바이오 산업단지나 각 지역의 혁신기술 네트워크는 공공 연구소, 병원, 대학, 창업 인큐베이터 등을 포괄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비롯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 등을 공유하여 바이오 기업이 창립 초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8개의 "바이오 산업단지 (GENOPOLE)"가 설립되어 있는데 제노폴은 주로 제노믹스와 포스트 제노믹스로 특화되어 있고 설립 지역은 Evry(Paris 남쪽 지방도시), Lille(벨기에 국경 지역 도시), Strasbourg(독일 국경 지방 도시 내 BioValley), Lyon 및 Grenoble (프랑스 중동부 지방 도시 및 남부 지방 도시), Marseille(지중해 지방 도시), Montpellier(중남부 지방 도시), Toulouse(스페인 국경지방 도시) 및 Bordeaux(남서부 대서양 지방 도시) 등이다.

바이오산업 개발을 위한 프랑스의 금융지원책은 다양하다. 국립 기술 개발 지원 청(ANVAR: 2005년 BDPME와 통합되어 OSEO로 바뀜)은 프랑스 공 기관으로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창업 자문 및 자금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벤처 기금은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000년7월에 조성된 BioAM기금은 국립과학연구원(CNRS), 국립 의약품 연구기관(INSERM), 국립 농작물 학 연구 기관(INRA) 등의 정부 연구기관과 국립금고 (CDC: Caisse des depots et de la Consigne), AXA, Caisse d'Epargne등 금융 회사에서 참여한 것으로 바이오 신생 기업이 창업 구상부터 창업 시까지의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10년간 3천만 유로로 20 내지 25 개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 벤처캐피털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민간기금으로 1999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는 약 167개의 바이오테크 산업 프로젝트에 1억5천5백만 유로의 벤처자금이 투자되었는데, 주요 바이오 벤처 투자자는 Sofinnova Partners, Apax Partners, Atlas Ventures, Banexi Ventures, Auriga Ventures, Genavent 등이다.

프랑스는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장려책으로서 신생 바이오 업체의 창업 지원 및 기존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2002년 은행의 장기대출기금(BDPME: Banque de Developpement des Petite et Moyens Entreprises. 2005년 ANVAR와 통합되어 OSEO로 바뀜) 4억 유로 조성 및 신규 씨드 캐피털 머니 9천만 유로를 정부 등 공기관이 조성해주었다. 그리고 프랑스 연구성은 GenHomme 프로그램으로서 인간 제놈 해독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허용해주었으며 제놈과 포스트 제놈 연구 지원은 물론 정부연구소와 민간 연구소 간의 연구 개발 협력을 지원(5년간 5억5백만 유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주고 있어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다. 물류 산업

유럽 GDP의 8%에 해당하는 약 7,100억 유로의 물류산업 규모를 갖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100만 여 물류 산업체와 약 5백만 명의 종사자 및 1,200억 유로의 물류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동 산업은 성장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산업분야로서 통합물류업체의 경우 매년 10-12%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유럽에서는 약 20여 개의 물류 그룹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은 18억 유로가 넘는다.

외국물류 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프랑스 물류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는데, 영국 기업 (Hays Logistics, Exel plc 및 Tibbett & Britten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ABX logistics, Ziegler, Katoen Natie), 네델란드(TNT Post Group), 독일(Danzas), 미국(UPS, Frigoscandia-Prologis의 계열사) 기업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판매업, 창고업, 포장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을 포함하는데,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건수 및 고용창출 인력 수는 2000년 41건에 2,164명 및 2001년 40건에 2,440명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에서 물류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 중이고 냉장 및 냉동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취급 제품군별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고 물류를 일괄 처리하는 업체의 등장으로 기업의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프랑스 전체 기업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까닭은 프랑스의 뛰어난 교통 운송망(육로, 철로, 항만, 수로, 항공로)의 발달과 풍부한 전문 인력 및 양성교육기관의 발달, 저렴한 토지 및 부동산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급성장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7. 노무관리

가. 프랑스 노동법 개요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사 관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마스터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으로 결정된다. 종업원의 이윤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해 주어 장려하고 있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배치된 파견근로자는 프랑스와 본국간에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프랑스나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나. 노사관계

1) 프랑스 관련법령 하에서 자유로이 고용계약 협상 가능

가장 보편적인 계약유형은 CDI라고 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 고용계약(contrat a duree indeterminee)이다. 관행상 계약서는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론상 계약쌍방은 자신의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계약서 조항은 노동법이나 해당 기업의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저촉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급여 수준, 근로 시간, 직급, 직장주소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한다. 보수는 해당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저보수나 법정최저임금(SMIC)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프랑스의 법정 최저 임금은 매년 6월 말 경에 한번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2007년 6월 29일에 조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8.44유로이며 주 35시간에 해당하는 월 151.67시간 근무 조건의 월 급여액은 1,280.07유로이다.

2007년 신임 대통령 Nicolas Sarkozy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면제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근무시간 35시간제에 탄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축 근로시간(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의 급여화 및 이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면제 법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어 주 35시간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는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며 구매력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인상 현황

(단위: 유로)

연도	시간당 법정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월 급여액		프랑스 관보 공고일
		월 151,67 시간 근무 시	월 169시간 근무 시	
2007	8,44	1,280.07	//	2007/06/29
2006	8,27	1 254,28	//	30/06/2006
2005	8,03	1 217,88	1 357,07	30/06/2005
2004	7,61	//	1 286,09	02/07/2004
2003	7,19	//	1 215,11	28/06/2003
2002	6,83	//	1 154,27	28/06/2002
2001	6,67	//	1 127,23	29/06/2001

자료 원: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시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경우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임시직 고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직이나 시한을 정해놓고 고용하는 경우, 프랑스 노동법은 18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임시고용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현 우파 정부가 신설한 신규고용계약(CNE)은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한 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최고 2년까지 동 고용계약이 유효하며 고용주는 2년 내에 아무 조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물론 동 계약 기간 중이나 만료 후에 정상적인 무기한 고용계약(CDI)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표이사의 자격

대표이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정관에 대표 임명, 급여수준, 책임 소재 등이 명기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시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고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편하며, 상업기업등기소에 회사를 등기하면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직원 고용 시,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직원고용 신청서(DUE)를 회사 소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 및 국민연금연맹 URSSAF에 제출한다.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신청서를 토대로, URSSAF 는 고용인을 의료보험, 고용 보험 등 필요한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새로운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국립 고용청(ANPE)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제안하는 직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이력서 심사, 직원연수 프로그램 등. 프랑스 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책임짐으로 기업이 적합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 보장금 감면이나, 특종 직종에 대한 고용증진수당 등을 통한 고용지원책이 있어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개인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개인적 사유(실제적이고 중대한 사유, 과실, 중대한 과실)나 경제적 사유(기업의 부실화)로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사회보장 계획, 재취업 또는 지원조치, 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비롯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상 노조대표 및 지방 노동부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시에는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60세부터 정년퇴직

근로자는 6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할 경우 항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인 65세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시킬 것인지 혹은 충분한 기간 동안 (40-41년)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근로자들을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퇴직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5) 임금 수준

프랑스의 2005년 6월말 현재 평균 임금은 1,903유로(월 NET)이다. 고용주는 동 임금 (NET)의 약 50%(BRUT 임금 기준 시 약 41%)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약 25%(BRUT 임금 기준 시 약 21%)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합해서 분기별로 사회 보장 기관(URSSAF)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비용은 BRUT 임금의 약 141%(NET 임금 기준 시 약 150%)이다.

지방별 및 직급별 연봉(NET)

(단위: 유로, %)

연도	2005	2000	2005년 연봉(NET)				
지방별	근로자 분포율	평균 연봉	평균	간부	준 간부	사무직	노동직
Alsace	3,1	19,278	21,615	41,440	22,998	15,666	17,544
Aquitaine	4,4	18,216	20,297	40,107	22,289	15,530	16,292
Auvergne	1,8	17,584	19,954	41,425	22,222	15,672	16,416
Basse-Normandie	2,0	17,285	19,532	40,796	22,113	15,601	16,280
Bourgogne	2,4	17,899	20,111	39,890	22,766	15,581	16,654
Bretagne	4,3	17,396	19,866	39,319	21,980	15,619	16,058
Centre	3,8	18,339	20,332	39,489	22,506	15,656	16,620
Champagne-Ardenne	2,0	18,195	20,177	41,368	22,568	15,718	16,964
Corse	0,4	17,482	19,708	41,460	22,679	15,835	15,825
Franche-Comté	1,7	18,157	20,443	40,566	22,586	15,700	16,963
Haute-Normandie	2,9	19,039	21,271	42,004	23,792	15,974	17,630
Ile-de-France(수도권)	25,3	26,017	29,237	50,723	24,677	17,201	18,343
Languedoc-Roussillon	2,9	17,743	19,859	38,891	21,953	15,239	15,921
Limousin	1,0	17,415	19,472	40,615	21,688	15,559	15,973
Lorraine	3,2	18,284	20,565	40,894	22,815	15,655	17,102
Midi-Pyrénées	3,9	18,505	21,093	39,648	22,206	15,567	16,202
Nord-Pas-de-Calais	5,8	18,301	20,501	40,235	22,225	15,613	16,748
Pays de la Loire	5,4	17,876	20,054	40,386	21,994	15,604	16,245
Picardie	2,6	18,000	20,138	40,744	22,415	15,587	16,864
Poitou-Charentes	2,4	17,412	19,568	40,003	21,853	15,685	15,976
Provence-Alpes-Côte d'Azur	6,7	19,158	21,561	41,010	22,824	15,776	16,835
Rhône-Alpes	10,1	19,649	22,000	42,132	22,937	15,965	17,118
본토 평균	98,2	20,429	22,882	45,326	23,117	16,074	16,917
Guadeloupe	0,4	18,327	20,504	44,647	23,439	16,021	15,664
Guyane	0,1	20,506	23,415	47,662	25,507	20,110	16,055
Martinique	0,5	18,563	20,998	45,061	23,966	16,189	15,760
Réunion	0,8	17,806	19,812	44,731	23,431	15,820	15,635
전체(해외 속령 포함)	100,0	20,398	22,842	45,327	23,139	16,079	16,900

자료 원: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

서비스업 연봉(NET) (2005년)

(단위: 유로)

직급별	사업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간부	46,629	40,133
중간간부	22,602	21,953
사무직	17,066	14,461
노동직	15,084	15,674
전체	26,247	18,988

자료원: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

2005년도 직업별 중간 수준 임금(월 급여 NET)

(단위: 유로)

직급별	중간임금 (NET)	직급별	중간임금 (NET)
의사 및 유사 직	3,000	금속 절삭작업	1,480
조사 및 연구직	2,850	사회활동직	1,470
영업 간부	2,800	토목공사 기술직	1,460
행정업 간부	2,730	정비 작업	1,440
엔지니어 및 공업 간부	2,700	건설장비 기사직	1,430
운송업 간부직	2,670	자동차 기사직	1,430
정보처리 엔지니어	2,640	생산 프로세스 작업	1,420
은행 및 보험업 간부직	2,600	기계공	1,400
간부직 공무원	2,600	전기 및 전자 근로직	1,400
건축토목공사 간부 및 현장 감독	2,600	보조 간호직	1,380
홍보직	2,290	행정 사무직 공무원	1,360
교육직	1,980	회계 사무직	1,350
간호사 및 산파직	1,900	건설 작업직	1,350
기계 기술직	1,880	기업 행정사무직	1,340
군인, 경찰, 소방대원	1,800	비서직	1,300
운송업 경영직	1,780	하역 작업직	1,300
공장 기술직	1,770	금속 가공직	1,300
행정 기술직	1,760	푸주간, 빵가게 근로직	1,300
직업 훈련직 및 인사직	1,750	자동차 수리직	1,280
농업 기술직 및 간부직	1,750	전기 및 전자 노동직	1,240
은행 사무직 및 기술직	1,750	금속가공 노동직	1,230
행정 기술직 공무원	1,730	요리사직	1,210
경공업 기술직	1,730	정비보수직	1,200
정보 기술직	1,700	경비직	1,200
외판직	1,670	건설 노동직	1,200
사장 비서직	1,650	호텔 및 음식점 사무직	1,190
직업훈련직	1,620	잡역직	1,120
전기 기술직	1,600	정원사	1,110
정비직	1,600	미용사	1,100
예술직	1,600	기계 근로직	1,090
그래픽산업 기술직	1,590	판매직	1,080
준 의약품 판매업 경영직	1,580	텍스타일, 가죽, 종이 노동직	1,080
보험 기술 사무직	1,580	장인 및 근로직	1,070
관광 및 운송 안내직	1,560	텍스타일, 가죽, 종이 근로직	1,040
건축토목공사 기술직	1,520	가사보조직	1,020
어부	1,520	가정부	1,020
도매업자	1,490	베이비 시터	900
그래픽 근로직	1,490		

자료원: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

8. 조세제도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기업의 투자, 지역경제 개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감가상각, 향후 기업 활동에 대한 손실 연기와 면제 등. 프랑스의 조세정책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에 적용된다. 프랑스는 1백 개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가. 법인세

외국기업이 프랑스에 항시적 사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익은 언제나 프랑스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회사, 지점, 항구적 시설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 항시적 시설의 정의는 체결한 조약 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에 준한다.

1) 과세대상 수익의 정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은 공제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말한다. 수익은 모든 영업활동, 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비용 및 원가는 공제 가능하다.

2) 공제 가능한 비용:

-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유형고정자산
- 비품
- 건물과 장비 임대료
- 급여
- 사회보장분담금
- 구입 물품
- 에너지소비
- 광고비
- 금융 비용

3)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가 남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경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인차량 이용 등 필수항목이 아닌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프랑스의 자회사에게 청구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특히 경영관련 비용, 이자비용, 로열티는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된 가격은 시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 규정

프랑스의 감가상각 규정은 해당 고정자산의 통상 사용연한에 따라 정액법의 감가상각율에 1.5부터 2.5까지의 가속계수를 적용한다. 중고가 아닌 신제품 생산 설비 구입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12개월이다.

5) 법인소득세 세율 및 산정방식

한시적인 특별법인세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율이 적용된다.

- 법인소득세 표준 세율은 33.33%
-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19%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주식의 75%를 개인이 소유하며 1년 매출이 1,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의 경우 수익이 38112 유로 미만인 경우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경우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6) 경상 손실의 이월처리

경상 손실은 발생 년으로부터 5년간에 걸쳐 이월 하거나, 발생 년 이전 3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 총당금이나 장기 순자산 손실과 관련된 손실분에는 특수 규정이 적용 된다.

7) 기업군에 대한 통합신고제도

프랑스의 통합 조세 제도는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그룹회사(groups of companies)들이 세액 산정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프랑스의 모회사가 자신과 세무상 동일한 그룹으로 통합될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95%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 5년 동안 이러한 통합체제를 명백히 유지해와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가 지불한다. 기업은 판매 시 부가가치세 수합의무만 있고, 수합한 총액에서 자신의 구매 및 투자 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다. 기업이 자신의 구매 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수합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면 세액공제분을 변제 받는다. 상품의 역외수출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1) 부가세율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식품의 경우 5.5%, 일부 농산물 및 의약품 (5.5% 또는 2.1%), 서적, 호텔, 대중교통, 신문 및 잡지,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EU 전역에 걸쳐 균일한 관세의무 적용

상품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한 EU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시 1회에 한해 관세가 부과된다. 다른 EU 회원국에 재수출되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하는 상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프랑스로 반입할 수 있다.

다. 연간 도급세 (IFA: IMPOT FORFAITAIRE ANNUEL)

연간 도급세는 2003년에 도입된 기업세로 매출규모가 4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연 1회 부과되며 매년 세율이 책정된다. 2008년부터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도급세(IFA: IMPOT FORFAITAIRE ANNUEL)가 면제되는 개정안이 최종 검토 중이다.

2007년도 연간 도급세율 표

매출 규모	연간 도급세율(유로)
40만 ~ 75만 유로	1,300
75만 ~ 150만 유로	2,000
150만 ~ 750만 유로	3,750
750만 ~ 1,500만	16,250
1,500만 ~ 7,500만 유로	20,500
7,500만 ~ 5억 유로	32,750
5억 유로 이상	110,000

자료 원: 프랑스 경제 재무부

라. 원천 공제세

고용 규모별로 사회 원천공제세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주로 직원 복지를 위한 기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는 10명 미만의 소기업들의 고용증대로 인한 세율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 규모 등급 한계를 폐지할 방침이다.

2007년도 고용규모별 사회 원천공제 세율

기업의 고용규모	직업훈련세	주택 융자금금 1%	주택 보조기금	교통비
9명 이하	급여의 0.55%	해당 무	급여의 0.10%	해당 무
10명째 고용	3년간 0.55% 후 1.05% 까지 점증	해당 무	급여의 0.10%	의무
10~19명	급여의 1.05%	해당 무	급여의 0.10%	의무
20명째 고용	3년째 1.6%까지 점증	3년간 면제 후 3년간점증	급여의 0.5%	의무
20명 이상	급여의 1.6%	부과	급여의 0.5%	의무

자료원: 프랑스 경제 재무부

마. 지방세

1)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

직업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직업세는 납세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당국이 매년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행정당국은 기업의 사무실 임대료 및 기업이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처분 고정자산가액의 16%를 고려하여 직업세를 부과하며, 이 두 가지 수치의 합계의 84%에 대해 매년 지방행정당국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그 밖의 지방세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토지세(Taxe fonciere), 비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이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주거세(Taxe d'habitation) 및 오물 수거세가 있다. 세액은 해당 자산의 임차가액 및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TV 시청료가 주거세의 한 비목으로 취급되어 징수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제도

프랑스의 외환 관리 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1990년에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는 특별한 외환 관리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나. 외국 자본 및 기술 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15,0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는 프랑스 금융 기관이 중앙 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 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 현금 구좌

모든 프랑스 거주자는 프랑스 혹은 해외에 현금 구좌를 가질 수 있다.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은행 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프랑스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다.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한 제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마. 자금 조달 방법

프랑스 은행의 대출은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여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3자의 지급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지 투자법인의 경우, 상장등록을 하여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 40대 그룹회사들만을 위한 제1주식시장 외에 중견 기업들을 위한 제2 주식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활용도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및 바이어 특성

- 신중한 구매태도
 -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한 세금징수로 중산층들도 구매력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 태도는 상당히 신중하며,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찾아 다니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여 상품의 가격 및 안전도, 친환경 제품 여부 등을 꼼꼼히 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독창적인 디자인 선호
 - 프랑스는 패션이 발달한 나라이며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량 다 품종이 거래되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바이어들은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험 정신이 부족한 편이어서 여타 인근 국가에서 시장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쉽게 구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 설득 과정에서 타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는 것이 좋다.
- 보수적인 거래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 프랑스 바이어들은 일단 거래처와 신용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보수 성향을 보였는데 최근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부터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거래 위험 부담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져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용설명서 불어로 명기
 -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사용법이나 용도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식료품일 경우 프랑스어의 표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입 대금 결제
 -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어야 하는 L/C거래 보다는 T/T거래를 선호하며,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이외의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국 상품으로는 휴대폰, 승용차,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등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Samsung제품이 2007년도 프랑스 핸드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상품의 대명사처럼 잘 알려져 있다. LCD TV의 경우도 일본 제품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는 SUV에 대한 성가도가 높은 편이고 가전제품 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및 진공 청소기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각 주력 분야에서 높은 편이다. 특히,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여타의 해외 지역에서 선전 중인 한국 상품들은 프랑스에도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선박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관련 업계에서는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화물선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 프랑스 시장의 특성

프랑스 시장은 대체적으로 자유 시장 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이다.

프랑스는 SIAL, MAISON ET OBJET, AIR SHOW, MONDIAL AUTOMOBILE 등의 대형 전시회를 통해 국제 교역의 장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프랑스는 서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을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 보장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혁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화학, 항공기, 군수물자 및 첨단기술(원자로 및 고속 열차 등) 분야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제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서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프랑스 시장은 IT, 전기, 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 기술 혁신 제품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이면서 유명 브랜드 및 고급 디자인 상품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프랑스는 EU 내에서 가장 늦게 인터넷이 보급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5년 후의 멀티 미디어 제품 및 첨단 기술 제품 시장 잠재력이 많다. 프랑스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 다음에 품질을 중시하고 있어서 대형 유통업이 크게 발달해 있으며 서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통채널은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통 과정에서의 주체는 여타의 산업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제조업체, 유통상, 수출입 업자, 소매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방법은 해당 분야의 박람회 참여하여 바이어 및 경쟁업체들의 동정 및 상품 동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과 상품 전문 잡지 및 시장 조사보고서 등의 매체를 통해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분야별 협회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산업 동향 조사도 필요하다.

프랑스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내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수출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인프라 및 저변 인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IT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관리 및 웰빙 추세에 따라 의료 및 스포츠 관련 제품들도 프랑스 시장에서 유망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 유망 상품

MP3, 광디스크, 3G 휴대폰,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GPS), 게임기기 등의 IT 제품들이 프랑스 시장에서도 유망상품으로 부각 중이다. 프랑스인들은 레저, 문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동 분야 상품의 시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속도 위반용 레이더 설치가 고속도로 및 도시 진입도로 등 주요 도로 상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경고해주는 휴대형 경고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레이더 경고기의 부착은 위법이 아니나 레이더 감지기의 부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1) MP3 플레이어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 및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특히 청소년 층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휴대폰에도 필수 품목으로 내장되고 있고 가정용 및 자동차용 시청각 장비에도 응용되고 있어 동 시장성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 광디스크 'Blue Ray Disk'

동 제품은 고화질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저장매체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날로 높아지는 미디어 분야의 수요에 힘입어 기존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3세대 형 휴대폰

현대 프랑스 몇몇 대도시에서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DMB용 방송이 조만간 지상 파 방송으로 프랑스 전 지역에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DMB용 휴대폰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USB메모리 'Maxell M-Drive Pocket'

대용량 USB메모리는 중요 데이터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요즘 시대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 제품은 작고 가벼운 8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저장 제품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며 가격도 동류 제품에 비해 높지 않아 인기가 예상된다.

5)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2005년부터 프랑스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증했다. 디지털카메라는 기존의 광학 카메라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갔고 우수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개인이 자유 자재로 PC 등에 저장, 각색 및 인화 등을 할 수 있어서 필름이나 인화 현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도 동 상품의 인기도 상승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6) 디젤 승용차

동 제품의 경우 경쟁 차종에 비해 연비가 좋고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실화 가스 배출량도 EU의 규정치를 준수하는 등 친환경적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프랑스의 디젤 승용차 판매 비중은 75% 이상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디젤 엔진 승용차 개발이 필수적이다.

7) 네비게이션(GPS)

2006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네비게이션 제품도 유망하나 저가의 중국산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혹은 품질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는 GPS 전자 칩을 내장한 3세대형 휴대폰이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향후 시장성이 뛰어날 것이다.

8) 속도 위반 감시 레이더 경고기

대당 99~129유로 사이의 대중용 경고기에서부터 대당 699 유로의 최고급 제품에 이르기 까지 가격 및 성능이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벌점 12점 이상이면 면허증이 취소되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예방하려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 물가정보

주요 품목별 한국 물가와의 상대비교

구분	품목군	상대가격 (서울 = 100)
의류	양복	108
	와이셔츠	115
식품	식료품	121
	한국식품	209
	패스트푸드	138
	주류	145
주택	중급아파트 임차비용	398
잡화	잡화	146
통신	핸드폰	273
	인터넷	66
	전화	382
자동차	승용차	166
	휘발유	113
	보험료	150
대중교통	지하철	233
	시내버스	233
	택시	166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26
	골프용품	69
	영화관람료	152
호텔	특급호텔	147
	중급호텔	388

주요 품목별 실제 가격

품목	가격(USD)
폴로 면 100% 남방셔츠	170.00
리바이스 청바지 501	125.00
남성 아르마니 정장 상하의 1벌	1,350.00
여성 아르마니 정장 상하의 1벌	1,500.00
돼지고기 안심 1KG	14.00
스타벅스 카푸치노 톨 사이즈	6.50
맥도날드 빅맥세트	8.20
에비앙 생수(330ml)	1.40
최고급 아파트 가격	2,500,000.00
중급 아파트 임대료 범위	2,300.00 – 4,000.00
사무중심가 사무실 임대료 범위	451.5 – 838.5
씨밀락 어드밴스 조제분유(729 그램)	26.00
하기스골드 중형기저귀(60개들이)	28.00
맥클라렌테크노 XT 유모차	450.00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월 소요비용	0.00
사립 초등학교 등록금	1,300.00
휘발유(리터당)	2.10
대중교통(버스)	2.00
대중교통(지하철)	2.00
대중교통(택시)	8.39
유명 오케스트라 콘서트 티켓	90.30
영화관람요금	13.00
특급 호텔 숙박비	500.00
골프 그린피	100.00
루이비통 스피디 백	670.00
양주 발렌타인 17년	75.00
BMW 525 자동차	60,000.00

3. 바이어 발굴

□ 바이어 발굴

프랑스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찾아오는 바이어나 참가업체들 가운데 수입업체를 방문 상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중 기계, 전자, 건축, 자동차, 농업, 생활소비재,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유망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박람회에 이러한 바이어들이 많이 참관 및 참가하기 때문이다. 직접 참가가 어렵다면 일단 참관만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현지에서 무료, 혹은 유료로 입수 가능한 박람회 공식 디렉토리에 실려있는 프랑스의 관련업체(바이어) 리스트를 통해 바이어를 물색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바이어발굴을 원한다면 KOMPASS를 활용,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kompass.fr이다. 그밖에 각종 산업 협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 전기기계수출입조합: www.ficime.fr
- 기계산업연맹: www.fim.net
- 전기전자통신산업연맹: www.fieec.fr
- 자동차설비조합: www.fiev.fr
- 자동차공업협회: www.ccfa.fr

또한 Kotra 파리무역관 홈페이지에서도 바이어들의 인콰이어리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www.kotra.or.kr/paris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다. 소정의 참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파리무역관은 1년 내지 최고 4년까지 지사활동을 대행해주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 대행 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 전략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파리무역관의 세일즈 출장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파리 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상담약속을 잡은 신규 바이어들과 세일즈 상담을 하고 후속 조치 및 A/S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효과적이다.

네 번째 방법은 파리무역관의 바이어발굴 조사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며 신속한 잠재 바이어 발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 상담이나 전시회 참가 등에 앞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 외에 현지 컨설팅 회사의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용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불어를 해독 또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프랑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이다. 백인 이외에도 식민지 시절 유입돼 온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무슬림들을 비롯, 세네갈, 카메룬 등에서 유입된 흑인, 그 밖의 인도차이나인, 중국인 등이 모여 사는 나라이다. 백인들 또한 포르투갈, 이태리,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

한편 2005년 폭동사태에서 보듯이 이들 소수 유색인종들은 기존의 백인 프랑스인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인종간의 갈등이 언제 또 표면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심코 내 뱃은 인종 및 종교관련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인종 및 종교적인 발언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약속

프랑스 바이어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약속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최소 1주일 전에 약속을 정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름 전에 상담 약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약속은 보통 공식 레터를 통해 이뤄지며 이메일보다는 일반 우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간 개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시간에 늦을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바이어의 경우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잘 만나 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거래관행

프랑스 바이어들은 일단 거래처와 신용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보수 성향을 보여왔는데 근래에는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부터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거래 위험 부담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져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수입 대금 결제 방법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어야 하는 L/C거래 보다는 T/T거래를 선호하며,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이외의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마. 식사

프랑스 음식은 세계적으로 맛있고도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비즈니스맨들은 중식, 일식, 한식에도 매우 익숙해져 있으므로 바이어만 동의한다면 굳이 프랑스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단, 아랍계 바이어와 식사한다면 돼지고기는 삼가야 한다.

프랑스 식당에서는 격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사전에 예약해두는 것이 중요하데, 고급 식당이 아니라면 편안한 복장에 예약을 하지 않고도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지나치게 격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편하게 식사와 상담을 하면 된다.

바. 선물

프랑스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작은 판촉용 선물이나 한국 기념품일 경우에도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 인사

남성끼리, 혹은 남녀끼리 인사를 할 때는 가벼운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간혹 여성끼리 인사를 할 때 볼을 맞부딪치는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 바이어가 이러한 인사를 시도할 경우 가볍게 볼을 갖다 대고 입으로는 소리만 내는 정도의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친해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초면일 경우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복장

복장에 대해서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넥타이에 수트 정도면 무난하다.

자. 편안한 모습으로 상담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표정이 밝은 경우가 많고, 유머감각 역시 뛰어난 편이다. 하지만 한국 업체의 경우 너무 딱딱한 표정으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 바이어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만나면 날씨 이야기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상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이 좋으며, 너무 심각한 표정보다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업무적으로는 프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프리젠테이션 자료 전달

제품을 구두로만 설명하게 되면 바이어가 추후 구매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 부족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 소개, 제품 설명 등 만나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자료로 준비하여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전달하여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어는 제품이 좋다고 바로 구매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후보 품목으로 선정한 후에 구매시점이 되면 본격적인 구매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또한 잘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으며, 바이어 입장에서든 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카. 바이어 스케줄 존중해야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특정 시기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 시즌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지금 바로 구매를 기대한다면 곤란하다. 바이어가 주로 구매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그 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지,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바이어가 일하기 편하게 스케줄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타. 독점권 부여는 신중히

제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바이어는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바이어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바이어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상황과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다른 바이어의 반응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바이어의 독점권 부여 제의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판매 독점권은 바이어 회사의 규모나 시장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바이어의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파. 기다리는 자세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프랑스 바이어들은 기존 거래선과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새로운 거래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제품의 품질, 납기 등 신규 거래에 동반되는 위험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이 좋다고 바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3~5년 동안 공을 들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구매에 신중한 것이 프랑스 바이어들이다. 하지만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세로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 사항

가.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전반적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이다. 행정관서는 물론이요 일반 바이어와 거래를 할 때에 이들의 느린 일 처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자극하기 일쑤이다. 이는 프랑스인들의 낙천적인 국민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든지 한치의 실수 없이 꼼꼼하고 까다롭게 처리하는 업무스타일과 보수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프랑스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한국식의 빨리빨리 문화가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프랑스이다.

나. 계약 및 서류작성 시 꼼꼼하게 검토

한국인들의 경우 계약 및 서류작성 시에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계약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프랑스 인들은 이러한

문서작업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수출입 계약뿐만 아니라, 투자진출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제반 계약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

프랑스인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이어들의 경우 대개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불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면 많은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불어를 잘하는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정서가 있으므로 간단한 회화 정도라도 구사할 수 있다면 프랑스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체류증 발급이 까다로운 나라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 가운데에는 몇 년째 3개월 유효 체류증을 갱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유효 체류증을 갱신하면 1년 유효 체류증이 발급 되는 것이 정상이다. 체류증 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선착순 대열에 가담하여 평균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매 분기 또는 매년 겪어야 하는 나라이다.

최근에 강화된 가족 동반 비자 발급 관련 법개정에 의하면, 앞으로는 불어 실력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리고 DNA 검사를 통한 친족 여부 확인 절차도 도입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로 DNA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태평양 화학

1) 프랑스 투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1990년 프랑스에 투자한 태평양 프랑스는 대표적인 프랑스 현지진출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프랑스 진출을 노리는 많은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총 242명 고용에 연간 5천8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향수 브랜드는 프랑스 내에서 5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대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을 통해 프랑스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면서 프랑스 투자 진출의 효익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흔히 프랑스를 ‘화장품 산업의 리트머스 종이’라 하는데, 프랑스에서의 성공은 곧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비유가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2006년 7월에는 성공적인 프랑스 투자 진출을 통한 한-불 간 우애증진 공로로 서경배 사장이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종도뇌르(LEGIION D'HONNEUR) 훈장을 수훈했다.

2) 공장이라기보다 잘 정돈된 공원 같은 태평양 프랑스 공장

2007년 9월 태평양 프랑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샤르트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밀밭과 언덕을 지나 9월의 햇빛이 내리쬐는 그림같은 평원 위에 펼쳐진 태평양 프랑스 공장을 만날 수 있었다.

마중 나온 전인수 법인장의 안내로 간단한 회사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시찰을 하는 동안 자연 채광이 우수한 공장 내부에서는 화장품 공장답게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풍겨났으며, 근로자들의 표정도 매우 밝았다. 또한 공장 내부 정원에는 갖은 향을 내뿜는 향초를 심어놓아 공장인지 식물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우수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이곳 샤르트르 공장은 총 18,000 m²의 면적 위에 총 1천6백만 유로를 투자, 13개 라인의 향수 및 화장품 생산 시설, 첨단 시설의 R & D센터 및 재고창고,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3) 태평양 프랑스의 성공요인

□ 철저한 현지화 전략: 생산 및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100% 현지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현지 전인수 법인장은 프랑스에서 유학하여 현지 문화 및 상관습에 정통한 인물로서 동인을 주축으로 철저하게 현지화된 인력 운용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현지에 방문했을 때 만나는 현지 직원마다 현지어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여타 한국 투자기업과는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언행의 표현에서 빚어지는 사사로운 오해와 불신감 누적으로 실패하고 돌아간 투자기업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 제조국 후광효과

앞서 말한바와 같이, 프랑스는 전 세계 화장품의 시험 무대로서 프랑스에서 성공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실제로 강력한 현지 연구 인력이 개발한 향수 인의 경우 프랑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 80여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면세점 같은 저가 매장으로의 유통을 방지하는 등 엄격한 유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 화장품 케이스의 선명한 Made in France 마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끄는 강력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 시사점: 현지화야말로 해외투자의 핵심

현지 경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회사정책으로 한국의 본사는 투자와 재무 부분만 관리하고 그 외의 마케팅 등 모든 권한을 현지 경영자에 위임하고 있다. 현지에는 전인수 법인장만이 유일한 한국인이며 나머지 240여명의 직원은 모두 현지인으로 채용하였고, 그나마 전인수 법인장은 파리에 위치한 마케팅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고 샤르 트르의 공장은 현지인 공장장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위임하고 있어, 법인장은 1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하여 특이 사항만 점검한다고 한다. 그 외의 마케팅 법인장 및 제품 기획 등 핵심요직을 모두 프랑스 현지인이 담당하고 광고, PR 등 모든 분야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기용한 것이 높은 프랑스 시장 점유율의 비결이다.

나. 흥진크라운

흥진크라운 유럽 지점은 2001년에 독일 접경 프랑스 동부 지방 도시에 투자한 이래 모토 사이클 헬멧, 재킷 및 장갑 시장에서 매년 3백만 유로의 매출 신장세를 올리고 있는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종업원 19명의 대부분이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불어 및 사정에 능통한 한국인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이는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는 간부직원의 역할이 성공비결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류센터 종업원들과의 인간관계 유지 능력이 출중하여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거래처의 신뢰도 증가 및 매출 증대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직원에게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판매 신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또한 프랑스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접경 도시에 투자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다. 수시로 독일 땅이 되었다가 프랑스로 환원되곤 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근면한 독일계 피가 많이 섞인 알자스 지방은 실업률도 높아 성실하고 우수한 유효 인력을 고용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입국

프랑스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90일 이내의 단순 관광목적 입국 시에는 비자가 불필요하다.

비자 발급에는 3주 이상이 소요되며 유효한 여권 및 비자 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하다

- 주한 프랑스 대사관
 - 주소: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
 - 전화: 02-3149-4300

나. 주택

프랑스에서는 은행계좌 개설 및 각종 전화 개설을 위해 주택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택사정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어서 특히 파리의 경우 25평 ~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데 월 1,500 ~ 3,000유로 정도가 필요하나, 그나마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물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시내 중심에서 떨어질수록 임차료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고를 때는 중앙난방을 제공하는지(전기식 개별난방일 경우 엄청난 전기료가 부과됨), 주차장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골랐으면 집주인과 계약을 맺게 된다. 이때는 주택 보증금 (대개 임차료 2개월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개 1개월치 임차료, 혹은 1년 임차료의 15%)를 지불하게 된다.

입주 전에는 L'Etat des lieux(인벤토리) 에 서명하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회 하에 실시된다. 이는 현재 집 상태를 점검하여 추후 퇴거 시에 변동사항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은행 구좌 개설

주택임차가 끝나면 시중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임차계약서, 여권이 필요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구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때 주택임차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먼저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약속을 잡아야 하며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구좌개설과 관련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구좌를 바로 개설이 되며 1주일 정도 후에 현금카드와 수표책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라. 전화 가설

주택 임차가 끝나면 전화가설을 할 수 있는데 전에는 주택이 위치한 각 지역별 France Telecom 대리점에서 신청했었으나 현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전 임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가설이 매우 용이하며 하루 정도 소요된다.

고속화 인터넷의 보편화로 프랑스 국영 프랑스 텔레콤 외에도 Freebox, Cegetel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를 묶어 총 서비스하고 있다. 가입 및 서비스 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소요시간은 파리일 경우 약 10일 정도 걸린다.

마. 전기 또는 가스 신청

주택 임차가 끝나는 날에 가장 먼저 신청 또는 명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할 것이 바로 전기 또는 가스이다.

전 임차자(또는 주인)가 프랑스 전력-가스공사(EDF-GDF)에 해약 통지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전기나 가스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공제를 희망하는 신규 가입자만을 접수 처리하여 주기 때문이다.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서신을 통해서 신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표나 다른 지불 방법이 가능하다. 이제는 전기 시장도 자유 경쟁 체제이어서 다른 사립 전력회사에 가입해도 무방하다.

바. 자동차 구입

신차의 경우 파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자동차 판매점 (Garage)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인기 차량의 경우 주문 후 차량 인도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지 브랜드인 푸조(Peugeot), 르노(Renault), 씨트로엥(Citroen)의 중형 모델(푸조 208 또는 308, 르노 클리오, 메간 또는 쉐닉 및 씨트로엥 C3 또는 C4) 및 폭스바겐의 골프(Golf), 파사트(Passat) 등이 인기 차량이며 가격은 푸조 308, 1600cc의 경우 20,000 유로 정도 소요된다.

중고차 또한 Garage에 등록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직거래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www.lacentrale.fr 에서도 차량 시세 및 검색이 가능하나 중고차 전문 매장이거나 각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경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 보증을 해주며 대 부분 정비 및 주요 부품의 안전 점검을 해주기 때문이다.

회사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 부분 장기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3년 내지 4년 동안 매달 정해진 임차료를 지불하면 정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적기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매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 한국관련 쇼핑

파리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 슈퍼마켓에서 웬만한 한국식품은 구할 수 있어 불편함은 없으나 가격은 한국보다 2~3개 가량 비싸다. 그 밖의 MONOPRIX, CHAMPION, AUCHAN, FRANPRIX, LECLERC, CARFOUR와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지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파리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 식당에서 거의 모든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으며 기타 PC방, 미용실 등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인 업소 디렉토리나 교민 신문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현지에 와서 참고하면 된다.

사. 교육

프랑스는 국영 및 공영 교육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 영국이나 미국 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재원 및 외교관들이 많아서 이들 자녀들을 위한 사립 학교도 대도시에서 상당 수 자리하고 있다. 영어로 강의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립 학교들이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이 없다. 다만 입학하기 원하는 학생수는 많고 학교 수는 한정되어 있어 6개월 전 등록절차를 시작, 다음 학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2007년부터 국립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영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프랑스 국립 교육기관에 자녀를 입학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프랑스의 학군제도도 2007년부터 해제되어 거주지역 외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초등학교생들의 등 학교 시 부모나 위임자가 반드시 동반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 근처의 학교에 등록시키는 경우도 많다.

아. 병원

프랑스의 병원도 국립 및 대학 병원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개인 병원이나 외국인 경영 병원이 드문 편이다. 종합 병원의 대 부분이 국립 또는 공립이라고 보면, 큰 오차가 없다. 파리 인근 도시에는 미국 병원이 유일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2~3배 이상 비싼 편이다. 개인 병원은 외과 및 치과 또는 소아과 등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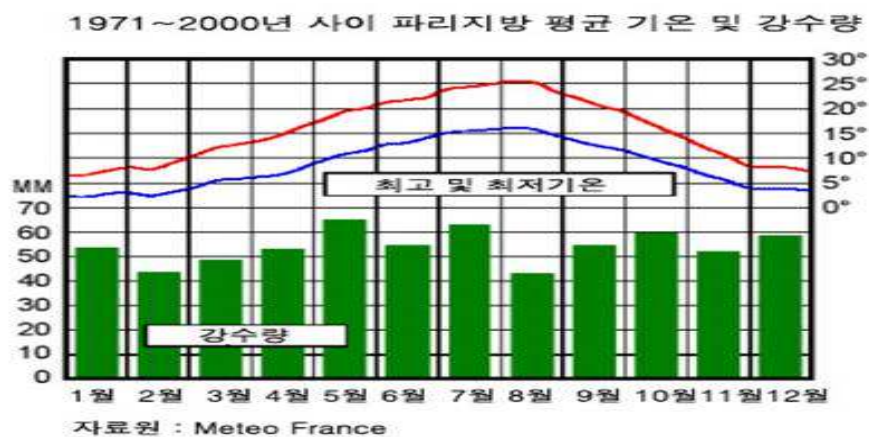
위급 시에는 종합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 24시간 열려 있고 예약을 하지 않아도 순서가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안내 간호원은 환자의 위중 상태를 보아 순서를 바꾸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진료받을 수도 있다.

8. 출장가이드

1. 기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20도로서 7월 평균기온이 20도로서 가장 높고 겨울의 최저기온은 약 영상 2도 정도를 나타낸다.

파리와 파리 근교는 한국의 부산과 같이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는 날이 매우 드물고 강수량은 연평균 520mm로서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루에도 갠 날씨와 비 오는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 편이다. 따라서, 겨울에 프랑스를 방문할 때에는 방수 재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북유럽보다는 덜하지만 약간의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여름에는 저녁 10시 반 경까지 환한 반면, 겨울에는 오후 4시 반 에 해가 진다.

- 출국 전 아래 사이트를 통해 현지 날씨와 기온을 검색 할 수 있다.
- <http://www.meteo.fr>(각 도시 별 검색 당일 및 5일간의 날씨 및 기온 검색 가능)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프랑스는 세계 표준시인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GMT)에 비해 1시간 빠르며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다(프랑스가 자정일 경우 한국은 익일 08:00시).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실시되는 서머타임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으로 줄어든다.

나. 근무시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주 35시간제 도입이 완료된 상황이나 2008년부터는 노사간의 임금 사전 합의 조건으로 주간 근무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의 근무 시간은 보통 평일은 09:00-18:00가 많으나 직장 및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는 보통 9:00-4:30까지 대민업무를 하며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지만 휴가철의 경우 12:00-14:00까지 대민업무는 일반적으로 중단된다.

상점들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까지 영업(10:00-19:00)을 하는 대신 월요일 등 주중 하루를 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폐점하나 연간 일요일 영업 허가 일수는 5일인데 2008년부터는 가구점에 한해 연간 8일간 일요일 영업을 허가된다. 우체국은 토요일 정오까지 근무한다. 참고로, 스페인처럼 시에스타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평일의 경우 대부분의 상점들은 19시면 영업을 종료하는데 샹젤리제 거리(Avenue de Champs-Élysées)의 경우 더 늦은 시각까지도 영업을 하며 일요일에 영업하는 상점도 상당수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관광지역이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개업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3. 도량형

□ 도량형 및 의류치수 비교

프랑스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류 치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가인 독일, 영국 과도 다른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복치수에 대한 주요국가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여성기성복 상의 (가슴둘레 기준)

프랑스	36	38	40	42	44	46	48
영국	10	12	14	16	18	20	22
미국	8	10	12	14	16	18	20
한국	80	85	90	95			

여자스타킹

프랑스	1	2	3	4	5
미국	8.5	9	9.5	10	10.5
한국	S	M	L	XL	XL

남자구두

프랑스	39	40	41	42	43	44	45
영국	5.5	6.5	7	8	8.5	9.5	10.5
미국	6	7	7.5	8.5	9	10	11
한국	245	250	255	265	270	275	

남자기성복

프랑스	36	38	40	42	44	46	48
영국	35	36	37	38	39	40	42
미국	35	36	37	38	39	40	42
한국	28.5	30	31.5	33	34.5	36	37.5

남자 와이셔츠

프랑스	36	37	38	39	40	41	42
미국	14	14.5	15	15.5	16	16.5	17
한국	14	14.5	15	15.5	16	16.5	17

4. 출입국/비자

가. 비 자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자 발급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중앙우체국 사서함 1808호
 - 전화: (02) 3149-4400, 팩스: (02) 365-1694
 - 홈페이지: www.ambafrance-kr.org
 - 휴일: 토, 일요일과 양국 공휴일
 - 비자서류 접수시간: 월-금 (9시-12시30분)
- 비자 취득과 관련된 안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참조요망.
 - (<http://www.ambafrance-kr.org/maina.php?&page=visa.htm&numrub=2>)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시 신고물품이나 현찰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이 다른 항공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5. 환율/환전

프랑스는 다른 EURO 사용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2.1.1일부터 이전의 자국화폐였던 프랑 (Franc)화의 유통을 중단하고 유럽 12개국의 공동화폐단위인 유로(Eur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로의 하부 단위는 센트(Cent)이며, 프랑스 현지에서는 썽팀(Centime)으로 부른다. 주화에는 1, 2, 5, 10, 20, 50 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00(최고액권), 200, 100, 50, 20, 10, 5 유로권이 있다.

지폐 디자인은 1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나, 동전의 뒷면의 디자인은 국가마다 다르다. 참고로, 유럽에서 위조지폐 제조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는 유로화 통용 후에도 위조 지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50유로권으로서, 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50유로권을 지불할 때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유로화 사용국가 (13개국)
 -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슬로베니아(바티칸, 산마리노, 모나코도 동전은 자체 발행하고 있으나 기념품의 성격이 더 강함.)
 - 2008년 1월부터는 사이프러스와 말트의 유로화 사용으로 15개국이 된다.

프랑스의 시중은행과 파리 시내 및 유명 관광지 도처에 있는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는 주요 통화(달러화, 엔화 등)를 쉽게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및 환전소마다 적용 환율이 약간씩 다르며, 시내 오페라 지역에 있는 환전소가 환율이 좀 더 좋은 편이다. 참고로, 환전을 하지 않는 은행이 점차 늘고 있어 주택가 등에 소재한 은행에서는 환전이 어렵다.

□ 유로화 환율 (2007년 12월 20일 기준)

- 미 달러화 대비: € 1 = \$1.4376
- 원화 대비 환율: € 1 = ₩1,351.76

6.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서울과 파리를 잇는 직항 편을 개설하여 운행 중인데 자세한 운항 시간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나 항공의 파리 취항일자는 2008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1) 대한항공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편 (매일 운행)
 - 서울 출발시간 - 13: 50 / 파리 도착시간 - 18: 25
- 파리 출발 → 서울 도착 편 (매일 운행)
 - 파리 출발시간 - 21: 20 / 서울 도착시간 - 14:45(출발 다음날)

2) 에어프랑스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편(매일 운행)
 - 서울 출발시간 - 09: 55 / 파리 도착시간 - 14: 40
- 파리 출발 → 서울 도착 편(매일 운행)
 - 파리 출발시간 - 13: 15 / 서울 도착시간 - 06: 55(출발 다음날)

Charles De Gaulles 공항은 1, 2, 3(3 터미널은 얼마 전까지 T9 터미널로 불렸으며, 주로 전세기가 출발하고 도착한다)의 총 세 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2터미널은 다시 2A, 2B, 2C, 2D, 2E, 2F의 여섯 개의 터미널로 나뉜다. 파리-서울간 직항 항공편은 모두 Charles de Gaulles 공항 2F 터미널에서 출발 및 도착 하고 있다. 일본 환승 편도 2F 터미널에 도착한다.

- 도착예정 터미널 인터넷 검색 법
 - <http://www.adp.fr> 사이트로 접속, 'Horaire de vols'항목을 선택하면 항공편 별 도착 예정시간, 공항 상태(연착 등) 및 도착예정 터미널을 검색할 수 있다.

나. 국내 교통

1) 택시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없으며 시내 곳곳에 지정되어 있는 택시 승차장에서 타야 한다. 체류하는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콜택시 요금에는 부르는 곳까지의 이동 시간 및 거리를 병산한 요금이 합산된다.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이며 출퇴근 러시아워가 아닌 경우, 파리 시내의 경우는 보통 10-15 유로의 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최소요금제가 있어서 이용금액은 5유로보다 적더라도 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택시 요금은 A.B.C 세 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파리 시내에서 낮에 택시를 탈 경우에는 A등급의 요금이 적용되며 야간에는 할증요금 B가 적용된다. 그러나 택시가 파리 시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대낮인 경우에는 할증요금 B가 적용되며, 야간인 경우에는 할증요금 C가 적용된다. 운전사가 어떠한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가는 택시외관에 설치된 캡의 알파벳 A.B.C에 붙어 들어오게 되어있어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의 5-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어떤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가 팁을 포함하여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큰 가방 등의 짐이 있을 경우, 짐 1개당 1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팁을 포함한 택시요금 영수증은 운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 파리의 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택시회사의 전화번호
 - G7 : 0147394739
 - BLUE : 0149361010
 - ALPHA : 0145858585

2) 지하철과 버스

우리나라의 지하철에 해당하는 파리의 공공교통수단은 파리운송공사(RATP)에서 운영하는 지하철(Metro), 지상 전차(TRAMWAY) 및 시내 버스(AUTOBUS)와 철도공사(SNCF)에서 운영하는 시외 급행선(RER)을 들 수 있으며 모두 동일한 표를 사용한다. 지하철(Metro), 지상 전차(TRAMWAY) 및 시내 버스(AUTOBUS)는 역간 거리가 좁아 파리의 거의 전 구간을 운행하는 대신 속도가 느리며 RER은 시내 외 주요 구간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나 정거장 수가 많지 않다.

□ 파리 전철 이용 시 주의할 점

- Metro는 입장 시에만 표를 사용하며 열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갈 때 다시 표를 집어넣지 않는다. RER은 입장 시에 표를 개찰 기에 집어넣고 열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표를 집어넣어야 하며 또한 개찰 기는 그 표를 다시 돌려준다.
 - 승차 혹은 하차(RER의 경우)시 개찰 기에 표를 집어넣고 개찰 기가 표를 다시 돌려줄 때 그 표를 뽑기 전까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 Metro는 Zone 개념이 없이 모두 한 구역으로 간주되나 RER에는 거리에 따라 Zone 개념이 있으며, 각 Zone마다 요금이 틀리다. 따라서 RER 이용 시 역무원에게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고 표를 구입해야 한다.
 - Metro와 Metro 간의 환승 시에는 개찰 기에 다시 표를 집어넣을 일이 없으나, RER ↔ Metro 간의 환승 시에는 표를 개찰 기에 집어넣어야 한다.
 - 같은 역이라도 RER역인지 Metro 역인지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La Défense역의 경우 Metro를 이용할 경우 2 Zone기본 요금이 적용되나, RER을 이용하면 3 Zone 요금이 적용된다. RER은 빠른 대신 요금이 비싸고, Metro는 저렴한 대신 여러 정거장을 지나쳐야 한다.
- RER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각 열차마다 정차하는 역이 틀리므로, 도착할 열차가 행선지에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R의 모든 열차는 'GOTA', 'NORA', 'OFRE' 등 네 글자로 된 이름이 붙어있는데 가고자 하는 행선지에 정차 하는 열차의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

- 주요 용어: 출구(Sortie), 환승구(Correspondance)
- 지하철표 구입시 창구에서 파리 지하철노선도(Plan de Paris)를 요구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지하철 표는 낱장에 1.4유로이며, 10매 묶음(까르네: Carnet)은 10.7유로이어서 지하철을 여러번 이용할 경우 까르네를 사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3일 또는 주간 표도 판매하는데 표 색깔로 구분된다. 일반 지하철 표는 남색 계통이며 관광객용 또는 주간 통근용 표는 오렌지색, 한달 정기권도 오렌지색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오렌지카드(CARTE ORANFE)라 불리고 있다. 오렌지 카드 정기권은 까르네(일반 표 1매 한 묶음)보다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지하철을 자주 활용할 경우에는 더욱 경제적이다. 동 오렌지 카드는 RER용으로도 사용된다. 그 대신 해당 지역(Zone)별로 가격이 다르다.

버스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같으며, 버스요금은 버스 승차 시 운전사에게 현금으로 지불(1.3유로)하고 표를 구입하거나 지하철 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 내에서는 까르네(10 묶음 티켓)를 판매하지 않는다. 시 경계를 넘어가는 버스는 Zone 개념이 있으므로 요금에 주의해야 한다.

3) 임대 자전거

파리나 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 자전거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무인 자동 임대기가 비치되어 있어 은행카드로 1일 또는 1개월 등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다. 1일 임대 계약금은 1유로이며 30분 이내 사용 시에는 무료이다. 30분 초과 시마다 1유로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임대 계약 담보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환불되는데 자전거를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경우 등에 대비한 일종의 보증금이자 예치금이다.

다.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지리 및 교통정보 사이트 <http://www.mappy.fr>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렌터카 등으로 이동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특정 두 지역간의 최단거리 여정(전 유럽범위로 검색 가능)
- 고속도로 이용 시 고속도로 요금
- 예상 소요시간
- 특정 한 지점의 지도상 위치(전 유럽범위로 검색 가능)

라. 통신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 전화기는 이미 거의 철수되었으며 공중 전화를 이용할 방법은 전화 카드를 구입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중전화 카드는 공중 전화기에 바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칩 부착 형 전화카드와 전용 접속번호로 다이얼 하여 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다이얼 하는 선불 제 전화카드 두 종류가 있다. 사용료는 후자의 편이 더 저렴하나 사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중전화용 칩 부착 형 전화카드는 담배 판매소(tabac)에서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 내 대부분의 공중전화는 동전이 아닌 전화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전화카드 구입시

어떤 종류 의 카드를 구입할 것인가를 묻는 경우가 있으며, 칩 장착형 카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carte à puce’(까르따 뽀쓰)를 달라고 해야 한다.

프랑스의 국제전화 호출번호는 00번이다. 00을 누르고 국가번호를 누르면 된다.

- 통화 방법(칩 장착형 카드): ① 수화기를 든다 ② 화면의 글씨가 바뀌면 전화카드를 넣는다. ③ 화면의 글씨가 바뀌면(좀 기다려야 함) 0082-2(서울의 경우)-상대방 전화 번호를 누른다. ④ 통화가 끝난 후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 카드를 뺀다.
- 통화 방법(선불제 카드): ① 수화기를 들고 카드에 기재된 접속번호를 누른다. ② 안내원의 메시지에 따라서 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③ 상대방의 전화 번호를 누른다(국제 전화일 경우 00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형식). ④ 통화가 끝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 한국통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0800-99-0082(카드 없이 공중전화에서도 통화가능)

한편, 여행자에게 있어 파리 시내의 인터넷 환경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당 4유로 정도로 비싼 편이며 한글 사용도 용이하지 않고 수도 적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Hot-Spot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므로 오히려 무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단, Wi-Fi Hot-Spot이 가능하더라도 장소에 따라 유/무료 여부임을 확인해야 한다. 유로로 사용해야 할 경우 Wi-Fi 1일권을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18-30유로 선이다.

- 파리 시내의 Hot-Spot 리스트:
 - <http://www.journaldunet.com/wifi/localisation/36667/paris.shtml>

7. 호텔/식당

가. 호텔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자, 국제회의 및 전시 도시인 파리에 수천여 개의 호텔이 있으나 수많은 국제회의 및 전문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들 전시회가 개최되는 성수기에는 호텔예약이 수월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07년 9월과 10월은 럭비 월드컵 대회로 인해 호텔 사정이 최악이었다. 비즈니스맨들이 파리시내에서 묵을 수 있는 주요 호텔의 리스트 는 다음과 같다.

- Hotel Plaza Etoile
 - 주 소: 21 Avenue de Wagram 75017 Paris
 - 전화번호: (33-1) 43804224 (파리에서 전화 걸 때에는 33-1대신 01, 이하 동일)
 - 팩스번호: (33-1) 47640084
- Hotel Tivoli
 - 주 소: 7 Rue Brey 75017 Paris
 - 전화번호: (33-1) 43803122
 - 팩스번호: (33-1) 47640121

- Hotel Elysées Ceramic
 - 주 소: 34 Av. Wagram 75008 Paris
 - 전화번호: (33-1) 42272030
 - 팩스번호: (33-1) 45229583
- Hotel Concorde Lafayette
 - 주 소: 3 Pl. du General Koenig
 - 전화번호: (33-1) 40685040
 - 팩스번호: (33-1) 40685205
- Hotel Novotel Tour Eiffel
 - 주 소: 61, Quai de Grenelle 75015 Paris
 - 전화번호: (33-1) 4058 2000
 - 팩스번호: (33-1) 4058 2425
- IBIS Tour Eiffel
 - 주 소: 2, rue Cambronne 75015 Paris
 - 전화번호: (33-1) 4061 2222
 - 팩스번호: (33-1) 4061 2299

□ 조금 저렴한 민박형 숙소

- Residence Sabine
 - 주 소: 58 rue du garde chasse, Les Lilas(지하철 Metro 11번 Mairie des Lilas)
 - 전화번호: (33-1) 4183 2200
 - 팩스번호: (33-1) 4183 2210
 - 숙 박 료: 2인1실 46 유로, 콘도 65-70유로
- Hotel du Moulin
 - 주 소: 3 rue Aristide Bruant 75018 Paris
 - www.hotelmoulin.com
 - 전화번호: (33-1) 4264 3333
 - 팩스번호: (33-1) 4606 4266
 - 숙 박 료: 싱글(샤워) 60유로, 싱글(욕실) 66유로, 더블(샤워) 68유로, 더블(욕실) 73 유로, 트윈(욕실) 76유로
- 파리 오페라 국제 오피스텔
 - 주 소: 67, rue de Richelieu 75002 Paris
 - www.guest-house-paris.com
 - 전화번호: (33-1) 4260 6251
 - 팩스번호: (33-1) 4260 0456

나. 한국 식당

식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前菜로 먹는 요리의 경우 약 7-15유로 대이며 김치찌개 백반 등 식사 류는 약 12-15유로 선이다.

식당 명	전 화	주 소
가람	0145757783	15/17, Av Emile Zola 75015
고향	0140598045	6 rue General Estienne 75015
국일관	0142610418	12, rue Gomboust 75001
다래분식	0145773677	4bis, Rue Violet 75015
명가	0147834145	19, boulevard Garibaldi 75015
보배	0145788009	44 rue de Lourmel 7515
사모	0147059127	1, Rue du champ de mars 75007
서울가든	0140606060	165 Rue de Javel 75015
소반	0145793283	85 rue de Entrepreneurs 75015
신정	0145222106	7, rue Clapeyron 75008
오도리	0145778812	18, Rue Letellier 75015
우리	0145773711	5, Rue Humblot 75015
우정	0145207282	8, Bd Delessert 75016
진고개	0148782464	28, rue Lamartine 75009
진미	0146278423	5, rue des Moines 75017
한림	0143546274	6, rue Blainville 75005

다. 기타 가 불안한 식당

식당 명	전 화	주 소	
La Gare	0142151531	19,Chaussee de la Muette 75016	프랑스식
Fermete Marbeuf	0153230800	5, Rue Marbeuf 75008	프랑스식

한국 식당이나 프랑스 식당 모두 22:30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들의 주간 근로시간(35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8. 관공서 관행

일반 관공서는 체계적인 조직사회로 형성되어 있어 업무영역의 구분이 확실하고 민원 사항의 경우 관련서류만 규정에 의해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그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융통성이 다소 발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처리 속도가 늦은 편으로 연휴 기간 또는 여름 휴가 기간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으며 이를 계속 발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원 처리시 서류 및 서신을 선호하는 문서주의 원칙이 남아 있는 분야가 있어 외국 민원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9. 공휴일

2008년도 프랑스 공휴일

월 일	공휴일 명
1.1	신정 (Le Jour de l'an)
3.24	부활절(Pâques): 매년 날짜 변경(부활절 다음 월요일)
5.1	노동절 (Fête du travail) 및 예수 승천일(Ascension)
5.8	2차 세계 대전 승전기념일(Victoire 1945)
7.14	대혁명 기념일(Fête Nationale)
8.15	성모승천일 (Assomption)
11.1	만성절(Toussaint)
11.11	1차 세계 대전 종전기념일(Armistice)
12.25	크리스마스(Noël)

한편, 하계 휴가기간 특히, 8월 초순에는 절반 이상이 휴가를 떠나므로 비즈니스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출장이나 상담을 피하는 것이 좋다.

10. 여행시 유의사항

최근 프랑스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들이 소매치기 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발생 장소도 기존 관광지, 지하철, 공항 등에서 박람회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법 또한 다양한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o you speak English? 하며 접근하면 우리 여행객들은 불어가 아닌 영어라는데 일단 자신감이 생겨, Yes하면서 흔쾌히 반응을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일단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무리들은(보통 2-3명) 축구 얘기를 하면서 다리를 걸기도 하고 또 태권도 얘기를 하면서 넘어뜨리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그러는 중에 여행객의 지갑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고스란히 소매치기의 손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일단 못들은척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우리 여행객의 도난 방지를 위해 최근 주 프랑스 대사관에서 홍보자료로 작성한 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가. 공항

프랑스에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들은 대부분 장시간 비행 및 시차로 인한 피로로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이용 소매치기들은 접근하여 여행자용 가방을 훔쳐간다. 공관 분석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여권 및 소지품 도난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수화물이나 손가방에서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되겠다. 만일 공항에서 가방 등 소지품을 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항공 직원에 도난사실을 알리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토록 한다.

나. 공항-파리 이동 시

공항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공항버스, RER(고속 지하철), 택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RER로의 이동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파리간 RER 대부분에는 2-3인조의 소매치기 범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하기 위해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RER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예정된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RER보다는 보다 안전한 공항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RER 또는 지하철을 타게 될 경우에는 특히 승, 하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탑승객이 많을 경우 몸을 밀착하면서 지갑 또는 기타 소지품을 소매치기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Gare du nord 역 및 Chatelet-Les Halles 역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

다. 숙소

숙박할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할 때 소지품 분실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체크인할 때는 반드시 짐을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놓고 만약에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로 소지품을 지키도록 한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무허가 민박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은 도난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호텔이라고 해도 보안에 대해 안심할수 없는데, 취침 시에는 반드시 호텔 방문을 안에서 잠그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라. 관광지

관광지 중 몽마르트르 언덕 및 샹젤리제 거리 입구가 도난사고 다발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몽마르트르 언덕은 Pigalles(삐갈) 지역까지 도보로 내려오는 도로변에서 사고를 많이 당하며 샹젤리제 거리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통로에서 사고가 빈발하다. 한편, 삐갈 지역에는 저렴한 가격의 스트립 바를 안내하겠다고며 접근하여 계산시 수천 유로에 달하는 청구서를 제시하는 삐끼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철도역

파리의 북 역(Gare du Nord), 리옹 역(Gare de Lyon)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철도 역에서는 2-3인 무리의 접근을 주의한다. 이들 중 한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걸면서 다른 사람은 지갑을 훔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아예 접근 차체를 차단하는 게 좋다.

바. 지하철

지하철은 소매치기들의 온상이다. 특히 1호선(라데팡스La Défense 역과 샤토 드 뱅센느 Château de Vincennes 역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주선)에서는 더욱 주의해야한다. 지하철 소매치기들의 수법은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에 소지품을 가지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행객들은 가능한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하며 자리가 있을 때는 앉는 편이 낫다.

사. 보행 시

가급적 차도 쪽이 아닌 건물 쪽에 가깝게 걷는다.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2명이 탄 오토바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대여섯명씩 무리지어 접근하는 아동 소매치기단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아. 국가간 연결 철도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유로스타(Eurostar)의 객차 내에서 소지품 분실 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식당칸이나 화장실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챙겨서 이동한다. 또한, 프랑스-이탈리 야간열차도 안심할만한 곳은 못 된다.

자. 행사장

파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나 상품전시회 참석 중 도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행사장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소지품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장소 별 행동요령은 특정 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소지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소지를 가능한 줄이고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며 돈, 항공권 및 여권 등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리 보관하는게 좋다. 특히 여권은 외출시 복사본을 소지하는 것도 분실의 경우를 대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1. 유용한 연락처

가. 파리소재 한국 주요기관

- 대사관
 - 주 소: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철역 13호선 Varennes역)
 - 전 화: (33-1) 47 53 01 01 / 팩스: (33-1) 47 53 71 49
 - 조 일 환 대사, 정 태 인 영사
- OECD 대표부
 - 주 소: 2-4, Rue Louis David 75016 Paris (전철역 9호선 Rue de la Pompe역)
 - 전 화: (33-1) 44 05 20 50 / 팩스: (33-1) 47 55 86 70
 - 권 태 신 대사
- 문화원
 - 주 소: 2, Avenue D'Iena 75008 Paris (전철역 6, 9호선 Trocadero역)
 - 전 화: (33-1) 47 20 84 15 / 팩스: (33-1) 47 23 58 97
 - 모 철 민 원장
- KOTRA
 - 주 소: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전철역 7, 14호선 Pyramides역)
 - 전 화: (33-1) 55 35 88 88 / 팩스: (33-1) 55 35 88 89
 - 최 진 계 관장
- 관광공사
 - 주 소: Tour Maine Montparnasse 33, AV. Du Maine BP 169 75755, Paris Cedex 15 (전철역 6호선 Montparnasse Bienvenue역)
 - 전 화: (33-1) 45 38 71 23 / 팩스: (33-1) 45 38 74 71
 - 진 수 남 지사장
- 대한항공
 - 주 소: 9, Blvd. de la Madeleine 75001 Paris (전철역 8, 12, 14호선 Madeleine역)
 - 전 화: (33-1) 42 61 58 46 / 팩스: (33-1) 42 61 22 52
- 외환은행
 - 주 소: 17, Av.Montaigne 75008 Paris (전철역 9호선 Alma-Marceau역)
 - 전 화: (33-1) 53 67 12 00 / 팩스: (33-1) 53 67 12 34

나. 파리소재 한국인업소

- 여행사
 - 한불 여행사: (33-1) 43 12 37 47
 - 시티라인: (33-1) 42 50 00 44
 - 골드라인: (33-1) 44 90 01 08
 - E.P.S. : (33-1) 56 02 60 80
- 인터넷 방
 - 꿈텔 PC 게임방: 01 53 58 37 12 (8, rue Mathurin Regnier 75015 Paris)
 - 컴컴: 01 43 14 21 54 (38bis Blvd. Beaumarchais 75011 Paris)

다. 기타 연락처

- 24시간 영업약국
 - 84, 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01 4562 0241)
 - 133, 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01 4720 3925)
- 지하철 분실물 신고
 - 12호선 Convention역내(01 5676 2000)
-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 118 008, 118 218, 118 007 등 다수
 - 2005년 12월부터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독점이 해제되면서 종전의 12번 대신 118로 시작하는 다수의 서비스가 경쟁체제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

12. 관광명소

가. 시내 관광명소 및 관광방법

파리 시내를 하루 일정으로 여행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관광버스와 세느강 유람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관광버스로는 PARIS VISION, CITYRAMA, L'OPEN TOUR 등이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며 티켓은 1일권과 2일권이 있는데 가격차가 거의 없으므로 2일권이 더욱 경제적이다. 운행 방식은 시내버스와 비슷하게 하차 후 동일한 정류장에서 다음번 버스에 탑승하는 식이며, 운행간격은 약 15-30분 정도이다.

세느강 유람선은 BATEAUX MOUCHES와 BATEAU PARISIENNE가 대표적이며, 총 관광시간은 1시간 또는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출발지는 BATEAUX MOUCHES의 경우 알마 교(PONT DE L'ALMA) 서쪽이며 BATEAUX PARISIENNE은 에펠 탑 밑 세느강변이다. 유람선 관광은 파리 시내를 끼고 세느강을 선회하기 때문에 도착지는 출발지와 같다. 요금은 20시 이전에 탑승할 경우, 8.5 유로이며 20시 이후에는 9유로이다.

또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판매하는 박물관 패스를 구매하면 개별 입장티켓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으나 수지를 맞추기는 사실 어렵다.

이외에도 파리지내를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좀 더 자세히 관광하고자 할 경우 시내 관광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시테 섬과 생루이 섬 (Ile de Cité & Ile St. Louis)
 - 노트르담 대성당
 - 법원 (Palais de Justice)
 - 콩시에르쥬리 (Conciergerie)
 - 생트 샤펠 (Sainte Chapelle)
 - 파리시청 건물(Hôtel de ville) 및 그레브(GREVE) 광장('파업=GREVE'이라는 불어의 어원은 과거 파리 시청 앞 광장의 이름에서 나온 것임).
- 개선문에서 루브르까지
 - 개선문 (L'arc de Triomphe)

- 샹젤리제 거리 (Avenue des Champs-Élysées)
- 콩코르드 광장 (Place de la Concorde)
- 툴리리 정원 (Jardin de Tuileries)
- 루브르 박물관 (Musée du Louvres)
- 오르세 박물관 (Musée d'Orsay)
- 에펠탑에서 앙발리드까지
 - 에펠탑 (La Tour Eiffel)
 - 샤이오 궁 (Palais de Chaillot)
 - 인류, 해양, 영화박물관으로 이용 (단, 해양박물관은 잠정 폐쇄)
 - 앙발리드 (Hôtel des Invalides)
 - 군사박물관 및 나폴레옹 유해 안치소
 - 로댕박물관
- 몽마르트르 (Montmartres)
 - 사크레코르 성당(Basilique du Sacré-Coeur)
 - 테르트르 광장(Place du Tertre)(일명 화가의 광장)

□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의 밀집지역

대다수의 화가들이 동양인의 두상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초상화는 맡기지 않는 편이 낫다.

- 오페라 하우스 일대
 - 쇼핑지역
 - 면세점: 오페라 인근의 오스만 街(Boulevard Haussmann) 밀집
 - 최고급품: 생토노레 거리 (Rue de Faubourg Saint Honoré)
 - 고급 식품점: 포송(Fauchon)
 - 관광포인트: 오페라 하우스 (Opéra Garnier), 마들렌느(Madelaine)
- 레알지구(LES HALLES)
 - 龐피두 센터(CENTRE G. POMPIDOU): 도서관 및 미술관
 -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대형 지하 쇼핑센터)
- 카르티에 라탱/생제르맹 데 프레 일대
(QUARTIER LATIN & SAINT GERMAIN DES PRES)
 - 소르본 대학 (LA SORBONNE)
 - 판테옹 (PANTHEON), 룩상부르그 공원(JARDIN DU LUXEMBOURG)
 - 유명 카페: 레 뒤 마고(Les deux Magots), 브라스리 립(Brasserie LIPP), 카페 플로르 (Café Flore)
- 몽파르나스 (MONTPARNASSE) 구역
 - 몽파르나스 타워 (TOUR MONTPARNASSE): 56층 고층빌딩
 - 유명 카페: 돔(DOME), 셀렉트(SELECT), 로통드(ROTONDE), 쿠플(COUPOLE)
- 기 타
 - 1998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St. Denis에 소재

- 라 데팡스 (LA DEFENSE): 파리 인근 신도시. GRANDE ARCHE에 서면 개선문을 통해 오벨리스크까지 한눈에 볼 수 있음.
- 카타콤브 (CATACOMBES): 지하 납골당
- 하수도 (EGOUTS DE PARIS): 하절기에만 관람가능
- 숲: 파리 서쪽의 불로뉴(BOIS DE BOULOGNE), 동쪽의 뱅센느 숲(BOIS DE VINCENNES)

나. 파리 교외 관광

- 베르사이유 궁전 (CHATEAU DE VERSAILLES)
 - 파리 교외 남서부 약 25Km, 유럽 최대의 왕궁 (100 헥타아르)
 - 화요일 내부건물은 휴관 (단 정원만 개원)
 - 개관시간
 - 하계: 09:00-18:00
 - 동계: 10:00-17:00
- 퐁텐블로 성 (FONTAINEBLEAU)
 - 파리 남부 약 60Km
 - 나폴레옹 유품 전시, 퐁텐블로 숲, 바르비종 등
 - 화요일 내부건물은 휴관 (단, 정원만 개관)
 - 개관시간
 - 하계: 09:00-18:00
 - 동계: 10:00-17:00
- 샤르트르 (CHARTRES)
 - 파리 남서부 약 90Km
 - 노트르담 주교 좌 성당(CATHEDRAL NOTRE-DAME)
 -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Chartres Bleu)
- 말메종 (MALMAISON)
 - 파리의 뉴 타운 LA DEFENSE에서 5Km
 -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추억이 깃든 곳
 - 일요일 오후에만 개관(14:30 -19:00)
- 샹티이(CHANTILLY) 성
 - 파리 동북부 약 60Km
 - 르네상스 풍의 우아한 古城, 인근에 말(馬) 박물관 및 경마장
 - 개관시간
 - 하계: 09:00 - 18:00
 - 동계: 10:00 - 17:00
- 피에르퐁 (PIERREFONDS) 및 콩피앵뉴(COMPIEGNE)
 - 파리 동북부 약 100Km
 - 아늑한 분위기의 중세풍 성
 - 휴관일 없음
 - 개관시간
 - 하계: 09:00 - 18:00
 - 동계: 10:00 - 17:00